

ISSN 1975-4922

2018 연차보고서

2019. 3



한국은행
BANK OF KOREA

BANK OF KOREA

2018 연차보고서

2019. 3

「한국은행법」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 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

총재 서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미·중 무역분쟁,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신인도 및 비상점검체계의 적기 가동 등에 힘입어 외환·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해지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물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용상황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하였으며,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금융경제 여건 하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에 2017년 11월 이후 연 1.5%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안정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금융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습니

다. 아울러 2017년 중국, 캐나다에 이어 2018년에는 기축통화국인 스위스와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중층적 외환안전망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연말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부경영에서는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직무권한의 하부 위임을 확대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요국의 경기 둔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가능성 등 성장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다양한 리스크요인이 상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생산성 둔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실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올해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금융불균형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뢰성 제고를 위해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등 대국민 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2018년 중 우리나라 금융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와 경영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경제와 한국은행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3월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이주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이주열

위원 이일형

위원 조동철

위원 고승범

위원 신인석

위원 윤면식

위원 임지원

차례

I. 한국은행 개요	1
1. 연혁 및 설립목적	3
2. 조직	5

II. 경제 동향	11
1. 실물경제	13
2. 금융·외환시장	22

III. 업무 현황	29
1. 중기전략	31
2. 통화신용정책	32
3. 금융안정업무	40
4. 발권업무	45
5. 지급결제업무	50
6. 외환 및 국제협력업무	54
7. 조사통계업무	65
8. 국고 및 증권업무	73
9. 대외 커뮤니케이션	77

IV. 경영 상황	85
1. 조직 운영	87
2. 재무 현황	95

부 록	109
------------	------------

표 차례

표 I - 1.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6
<hr/>	
표 II - 1. 세계경제 성장률	13
표 II - 2. 세계교역 신장률	14
표 II - 3. 소비 동향	14
표 II - 4. 고정투자 동향	15
표 II - 5.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15
표 II - 6.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16
표 II - 7. 고용 관련 지표	17
표 II - 8. 임금 상승률	17
표 II - 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인플레이션율	18
표 II -10. 주택가격 상승률	18
표 II -11. 주요 품목별 수출	19
표 II -12. 주요 품목별 수입	20
표 II -13. 권역별 주요 지표	21
표 II -14. 주요 국제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22
표 II -15. 은행 여수신금리	24
표 II -16. 주요 금융기관 수신	25
표 II -17. 금융기관 대출	25

표 III-1	2018년 중기전략 목표 및 계획	31
표 III-2	한국은행 원화대출금	34
표 III-3	한국은행 예수금	34
표 III-4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35
표 III-5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36
표 III-6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활동	39
표 III-7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41
표 III-8	통화스압 체결 현황	44
표 III-9	화폐 발행·환수 및 발행잔액	45
표 III-10	화폐 제조규모	45
표 III-11	2011년 및 2018년의 유통수명 추정 결과 비교	49
표 III-12	일중 결제유동성 공급규모	51
표 III-13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	52
표 III-14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범위	52
표 III-15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55
표 III-16	외화자산 구성 내역	57
표 III-17	외화자산 중 위탁자산 비중	59
표 III-18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60
표 III-19	역내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61
표 III-20	지식교류프로그램(KPP) 실적	61
표 III-21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개최 실적	62
표 III-22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62
표 III-23	IMF에 대한 용자 현황	63
표 III-24	BIS 이사회 구성	64
표 III-25	한국은행 작성 국가승인통계 현황	69
표 III-26	국고금 수납 및 지급	73
표 III-27	국고대리점 현황 및 수납금액	74
표 III-28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74
표 III-29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74
표 III-30	대정부 일시대출 평잔 및 누계액	75
표 III-31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75
표 III-32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	75

표 III-33.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의 주요 내용	76
표 III-34. 한국은행 기금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	76
표 III-35. 기금 조달(운용) 현황	76
표 III-36. 홈페이지(메인) 방문자 수	78
표 III-37. 한국은행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운영 현황	78
표 III-38. 화폐박물관 관람자 수	79
표 III-39.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	79
표 III-40. 현장 경제교육 실적	82

표 IV- 1. 신교육체계 운영	89
표 IV- 2. 연도별 직원 채용 규모	91
표 IV- 3. 한국은행 여성 관리자 인원	92
표 IV- 4. 자산 현황	95
표 IV- 5. 부채 및 자본 현황	96
표 IV- 6. 손익 현황	96
표 IV- 7. 대차대조표	97
표 IV- 8. 손익계산서	99
표 IV- 9. 자본변동표	101
표 IV-1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01

그림 차례

그림 Ⅰ - 1.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3
그림 Ⅰ - 2.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현장	4
그림 Ⅰ - 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명단	5
그림 Ⅰ - 4. 집행간부 및 감사 명단	7
그림 Ⅰ - 5. 조직 구성	9

그림 Ⅱ - 1. 국제유가	13
그림 Ⅱ - 2. 지출항목별 성장률	14
그림 Ⅱ - 3. 경제활동별 성장률	15
그림 Ⅱ - 4. 경상수지	19
그림 Ⅱ - 5. 서비스수지	20
그림 Ⅱ - 6. 주요 선진국 주가 및 신흥국 MSCI 지수	22
그림 Ⅱ - 7. 주요 환율	23
그림 Ⅱ - 8. 주요 시장금리 및 장단기금리차	23
그림 Ⅱ - 9.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및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	23
그림 Ⅱ - 10.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24
그림 Ⅱ - 1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26
그림 Ⅱ - 12. 원/달러 환율 변동폭	26
그림 Ⅱ - 13.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27

그림 III- 1. 기준금리	33
그림 III- 2.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 추이	35
그림 III- 3.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활용 비중	37
그림 III- 4. 금융통화위원 기자간담회	38
그림 III- 5. 금융통화위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방문	39
그림 III- 6.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46
그림 III- 7. 위조지폐 발견장수	46
그림 III- 8. 화폐사랑 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	47
그림 III- 9. 화폐 폐기규모	48
그림 III-10. 은행권 유통수명	49
그림 III-11. 주요국 은행권의 유통수명 비교	49
그림 III-12.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 규모	50
그림 III-13. 베트남 중앙은행 직원 대상 외화자산 운용 역량강화 연수	58
그림 III-14. 위탁자산의 펀드 유형별 구성	59
그림 III-15. BIS 사무총장 방한	64
그림 III-16. 2018 BOK 국제컨퍼런스	67
그림 III-17. 2018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	70
그림 III-18. 제6차 OECD 세계포럼	71
그림 III-19. 통화정책 경시대회	78
그림 III-20. 한국은행 소장 미술 명품전	79
그림 III-21. 한국은행 임직원 사회봉사 활동	80
그림 III-22.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 메인화면	81
그림 III-23. 「경제금융용어 700선」(좌), 「알기 쉬운 금융생활」(우)	84
그림 III-24. 「알아두면 쓸모 많은 지급결제 이야기」	84
그림 III-25. 「한국은행 창립 이후 화폐사」	84
<hr/>	
그림 IV- 1.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구조	88
그림 IV- 2.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흐름도	89
그림 IV- 3. 2019년도 신입직원 입학식	91
그림 IV- 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초청 청렴 강연	92
그림 IV- 5. 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94

참고 차례

참고 Ⅲ-1. 2018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	49
참고 Ⅲ-2. 외화자산의 위탁운용 현황	59
참고 Ⅲ-3. 이주열 총재, BIS 이사직 수임	64
참고 Ⅲ-4.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 가동	81
참고 Ⅲ-5. 경제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	84

I

한국은행 개요

1. 연혁 및 설립목적	3
2. 조직	5

1. 연혁 및 설립목적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광복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 속에서 통화 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국가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6월 12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정부가 자본금 15억 원을 전액 출자한 법인이었으나,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 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제정 당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62년에는 정부주도 성장정책을 원활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

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 추천위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외환정책 수립 및 외환관리 기능의 대부분이 정부로 이관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유화 추진과 더불어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및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1997년 개정 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었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이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되고 위원들은 모두 상근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재정경제원 장관이 겸임하던 의장직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담당했던 은행 감독 기능은 신설된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이관되었다. 2003년 개정 시에는 물가안정목표제를

그림 1 - 1.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1950년 6월 5일)



자료: 한국은행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는 종전의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로 축소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불안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1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으며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과 함께 금융안정도 책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2012년 개정 시에는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위원의 임기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는 교차임기제¹⁾가 도입되고 한국은행의 통계·경제조사 관련 자료요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그림 1 - 2.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현장 (2018년 7월 12일)



자료: 한국은행

1) 법 개정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장이 최초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부칙에 명시)하고, 임기교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임(前任) 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만료 직후 개시되도록 하였다.

2. 조직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 본부부서, 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집행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5인의 임명직 위원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인의 임명직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추천기관²⁾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전원 상근³⁾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인 한국은행 부총재(3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이며⁴⁾ 연임할 수 있다.⁵⁾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림 1-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명단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 주 열
(한국은행 총재, 2014년 4월 1일 ~)
〈주요경력〉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부총재



이 일 형
(한국은행 총재 추천, 2016년 4월 21일 ~)
〈주요경력〉
IMF 중국주재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제협력대사 겸 G20 세르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조 동 철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2016년 4월 21일 ~)
〈주요경력〉
텍사스A&M 경제학과 교수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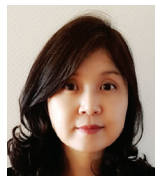
고 승 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2016년 4월 21일 ~)
〈주요경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 인 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2016년 4월 21일 ~)
〈주요경력〉
KDI 연구위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윤 면 식
(한국은행 부총재, 2017년 8월 21일 ~)
〈주요경력〉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임 지 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2018년 5월 17일 ~)
〈주요경력〉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제이피모건 수석본부장 /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자료: 한국은행

- 2)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한다.
- 3) 1997년 12월 31일 「한국은행법」 개정(1998년 4월 1일 시행) 시 통화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래 비상근이던 임명직 위원의 근무형태를 전원 상근으로 변경하였다.
- 4) 단, 2018년 3월 금융통화위원 교차임기제 도입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임명되는 차기 위원에 한하여 3년의 임기가 적용된다.
- 5) 단, 총재와 부총재는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결정, 한국은행권 발행, 여수신정책, 공개시장운영, 지급결제, 금융기관 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 조직 및 기구, 직원의 보수 등 경영 관련 기본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진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18년 중 정기회의 24회, 임시회의 2회 등 본회의를 26회 개최하였다. 또한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 주요 현안 토의 및 본회의 상정안건 사전심의 등을 위해 위원협의회를 81회 열었으며,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14회 개최하였다.

표 1 - 1.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연도	본회의	정기		위원 협의회	심의 위원회	계
		정기	임시			
2016	27	24	3	89	15	131
2017	26	24	2	73	15	114
2018	26	24	2	81	14	121

자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기회의 개최일자를 매년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 연간 총 24회의 정기회의 가운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와 금융안정회의는 각각 8회, 4회 개최되며, 나머지 12회의 정기회의에서는 여수신정책, 금융기관 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과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 조직 및 기구 등 경영 관련 기본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사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있다. 이 중 통화신용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은 통화신용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통화정책방향 결정 내용은 회의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나. 집행간부 및 감사

한국은행은 집행간부로서 총재, 부총재 및 부총재보 5인을 두고 있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인사청문절차⁶⁾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며, 한국은행의 대표로서 「한국은행법」 등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할 의무도 지닌다. 현 이주열 총재는 2014년 4월 1일 임명되었고 2018년 4월 1일 연임하게 되었다.

6) 국회 인사청문절차는 제9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동 법 시행(2012년 4월 22일) 후 최초로 임명된 이주열 총재부터 적용되었다.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으로 총재와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함과 아울러 한국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총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감사 1인을 두고 있다.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다.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2018년 말 한국은행은 본부에 17개 부서(13국 1실 3원)와 9개 국소속실, 1개 본부, 1개 단을 두고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19개 부와 142개 팀(6개 연구실 포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지방에 16개 지역본부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7개 기획조사부와 54개 팀을 두고 있으며 해외에는 5개 국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말 직원수는 2,433명^{가)}이다.

각 부서의 주요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획협력국

기획협력국은 경영전략 수립 및 추진, 운영리스크 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부서 간 업무 조정, 지역본부 및 국외사무소 업무활동 조정 및 종합,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

그림 1 - 4. 집행간부 및 감사 명단 (2018년 12월 31일 현재)

	총 재 이 주 열 (2014년 4월 1일~)		
	부 총 재 윤 면 식 (2017년 8월 21일~)		
	부총재보 임 형 준 (2016년 5월 9일~)		부총재보 허 진 호 (2016년 7월 16일~)
	부총재보 신 호 순 (2017년 9월 26일~)		부총재보 유 상 대 (2018년 5월 15일~)
	부총재보 정 규 일 (2018년 5월 15일~)		
	감 사 장 호 현 (2018년 9월 10일~)		

자료: 한국은행

가) 총재, 금융통화위원(부총재 포함), 집행간부 및 감사 등 13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회 의사관리, 법규 검토 업무를 담당한다.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국은 대내외 의견수렴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 조정·통할 업무, 화폐박물관 운영 등 홍보활동, 정보자료 관리, 연차보고서 작성, 대국민 경제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산정보국

전산정보국은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전산기기의 도입 및 관리 등 IT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인사경영국

인사경영국은 인적자원 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 업무와 부동산 및 시설 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국

조사국은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산업동향 분석 및 산업정책 관련 조사연구, 고용 관련 분석 및 전망, 물가안정목표 설정 및 조사연구, 계량모형 개발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국은 국민소득, 통화금융, 국제수지, 물가,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 등 경제통계의 편제, 분석 및 개발과 함께 통계품질평가, 경제통계시스템(ECOS)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은 금융안정상황 분석·종합평가, 시스템리스크 측정·분석 및 모형 개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및 파급경로 분석, 은행 및 비은행 관련 조사연구, 금융제도 관련 조사연구,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금융기관 경영분석 및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통화정책국

통화정책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입안, 정책수단 기획 및 운용, 통화신용정책 여건 및 효과 분석, 통화신용정책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시장국

금융시장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집행, 통화·금리 분석 및 전망, 금융시장 및 기업금융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및 감시, 지급결제제도 관련 조사연구, 전자금융

관련 기획 및 조사, 금융정보화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여수신 및 국고, 증권, 기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발권국

발권국은 화폐의 발행과 유통·관리, 화폐 및 발권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발권업무 기계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국

국제국은 외환·국제금융에 관한 기획·조사·분석, 외환시장 및 환율 관련 업무, 보유외환 및 외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외국환 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 외환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검사, 외환전산망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은 국제협력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국제금융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 및 금융·지식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외자운용원

외자운용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 기획, 국외 운용 및 리스크 관리, 운용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원은 통화금융, 금융제도, 국제금융

및 무역, 거시경제, 산업, 노동, 북한경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외 연구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감사실

감사실은 한국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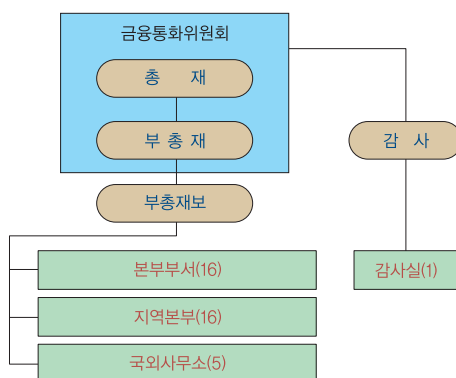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와 함께 화폐 수급, 국고금 수납, 증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외사무소

국외사무소는 주재국 및 인근 관심 국가의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외화자산의 국외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1-5. 조직구성



자료: 한국은행

II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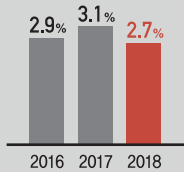
1. 실물경제	13
2. 금융·외환시장	22

2018 한국경제

성장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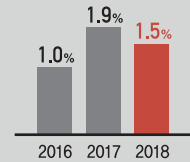
경제성장률(실질 기준)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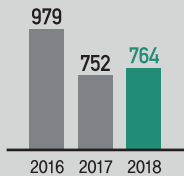
1.5%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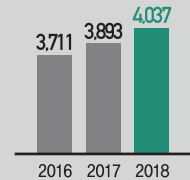
경상수지

764억 달러(흑자)



외환보유액(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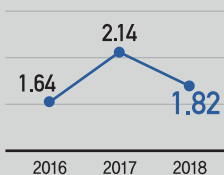
4,037억 달러



금리(연말 기준)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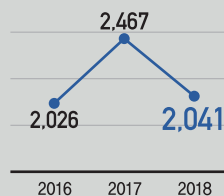
국고채(3년)



주가(연말 기준)

2,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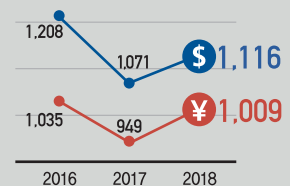
KOSPI



환율(연말 기준)

\$ 1,116 원/달러

¥ 1,009 원/100엔



1. 실물경제

가. 세계경제

세계경제 양호한 성장세 유지

2018년 중 세계경제는 양호한 성장흐름을 유지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유로지역 및 일본은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주춤하며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었다. 신흥국의 경우 인도 및 아세안 5개국을 중심으로 2017년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표 II - 1. 세계경제 성장률

	2016	2017	2018 ^e
세계경제 성장률	3.3	3.8	3.7
선진국	1.7	2.4	2.3
미국	1.6	2.2	2.9
유로지역	1.9	2.4	1.8
일본	1.0	1.9	0.9
신흥국	4.4	4.7	4.6
중국	6.7	6.9	6.6
브라질	-3.5	1.1	1.3
러시아	-0.2	1.5	1.7
인도 ¹⁾	7.1	6.7	7.3
아세안 5개국 ²⁾	4.9	5.3	5.2

주: 1) 회계연도 기준(당해년 4월~익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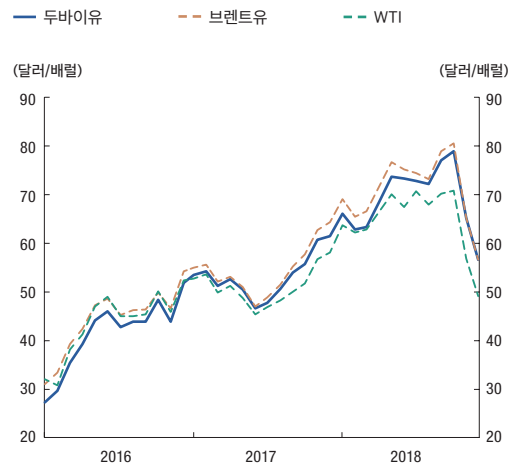
2)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자료: IMF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연평균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큰 폭 상승한 가운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상반기 중에는 OPEC 감산 효과⁸⁾,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반기 들어서는 이란의 원유 생산량 감소세 지속 등으로 10월 초 80달러 중반 수준까지 급등하였으나, 미국의 이란 제재 강도가 예상을 하회⁹⁾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되면서 50달러 초반까지 하락하였다.

그림 II - 1. 국제유가(월평균)



자료: Bloomberg

세계교역 완만한 흐름

2018년 세계교역(물량 기준)은 2017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글로벌 무역분쟁의

8)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은 1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감산 이행률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감산 노력을 보여주었다.

9) 11.5일 미국이 이란에 2단계 제재를 시행하면서 주요 이란산 원유 수입국인 중국, 인도, 한국 등 8개국(2017년 이란 원유수출의 84%를 차지)에 대해 6개월간 예외를 허용하였다.

영향 등으로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평균(2012~16년 중 3.1%)을 상회하는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표 II - 2. 세계교역 신장률

	2016	2017	2018 ^o
세계교역 신장률 ¹⁾	2.2	5.3	4.0
선진국 ²⁾	2.1	3.7	2.2
(미 국) ²⁾	0.6	4.0	4.9
(유로지역) ²⁾	2.5	3.5	1.6
(일 본) ²⁾	-0.1	3.0	3.0
신흥국 ²⁾	0.6	7.2	5.4
(중 국) ²⁾	3.7	8.9	9.6

주: 1) IMF 기준(상품 및 서비스 교역)

2) 상품수입물량 증가율(2018년 중국은 1~9월 중)

자료: IMF, CPB, 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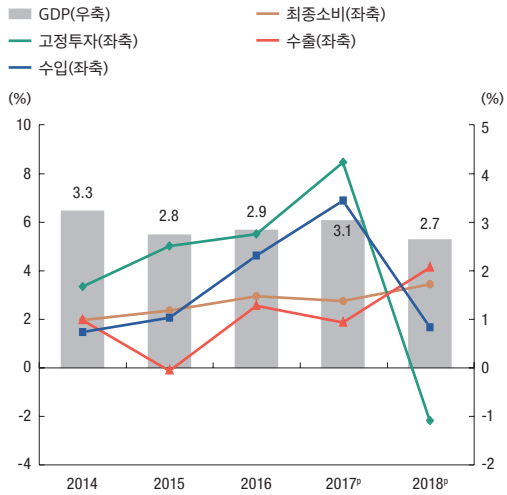
나. 국내경제

(1) 경제성장

국내경제 성장세 지속

2018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은 소비 및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투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2017년(3.1%)보다 다소 낮은 2.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II - 2. 지출항목별 성장률 (실질, 연간)



자료: 한국은행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 증가세는 확대되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및 건강보험급여비 등의 지출이 늘면서 5.6%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민간소비도 고용상황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증가세 확대, 정부의 소득기반 강화 및 내수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2.8%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표 II - 3. 소비 동향¹⁾ (전년대비)

	2017 ^o	2018 ^o							
		연간	I	II	III	IV			
최종소비	2.8	3.5	1.1 (4.0)	0.3 (3.3)	0.7 (3.0)	1.5 (3.6)			
(민 간)	2.6	2.8	0.7 (3.5)	0.3 (2.8)	0.5 (2.5)	1.0 (2.5)			
(정 부)	3.4	5.6	2.2 (5.8)	0.3 (4.8)	1.5 (4.6)	3.0 (7.1)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고정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줄어들며 전년대비 2.2% 감소하였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물건설

이 감소 전환되면서 전년대비 4.0% 줄었다. 설비투자는 2017년 중 큰 폭 증가한 IT부문을 중심으로 조정양상을 보이면서 전년대비 1.6% 감소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

표 II - 4. 고정투자 동향¹⁾ (전기대비)

	2017 ^p		2018 ^p				(%)
	연간		I	II	III	IV	
고정투자	8.6	-2.2	2.0 (3.7)	-2.9 (-1.3)	-4.6 (-6.6)	1.9 (-3.8)	
건설	7.6	-4.0	1.8 (1.8)	-2.1 (-1.5)	-6.7 (-8.9)	1.2 (-5.9)	
설비	14.6	-1.6	3.4 (7.3)	-5.7 (-3.0)	-4.4 (-7.4)	4.4 (-2.7)	
지식재산생산물	3.0	1.9	0.3 (3.5)	-0.7 (2.2)	0.9 (1.6)	0.1 (0.6)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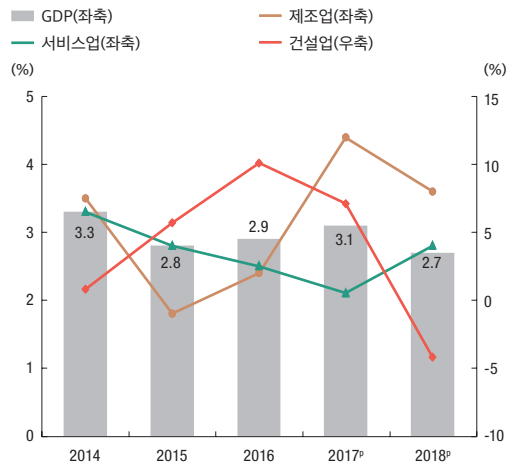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전년대비 4.2% 증가하였다. 재화 수출은 선박,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이 부진하였으나 석유제품·항공품 및 기계류 등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는 2017년에 이어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비스 수출은 사드 문제로 크게 감소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실질 기준)은 전년대비 1.7% 늘어났다. 설비투자 조정 등으로 자본재 수입이 부진을 보이고 내국인 해외관광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 수입 모두 2017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제조업 성장세 둔화 및 서비스업 확대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 성장세는 확대되었다. 2017년 중 큰 폭 증가한 건설업 생산은 감소 전환하였다.

그림 II - 3. 경제활동별 성장률 (실질, 연간)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은 IT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2017년(4.4%)보다 다소 낮은 3.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등 일부 업종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반면 여타 제조업종은 자동차와 조선업의 업황 부진 및 구조조정으로 생산이 감소한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대체로 부진하였다.

표 II - 5.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전기대비)

	2017 ^p		2018 ^p				(%)
	연간		I	II	III	IV	
제조업	4.4	3.6	1.6	0.6	2.3	0.9	
화학제품	3.4	3.7	-1.3	2.4	2.2	1.8	
금속제품	-2.1	-3.3	-1.8	0.9	-3.3	9.1	
기계 및 장비	14.3	2.4	9.7	-4.5	0.8	-5.2	
전기 및 전자기기	7.4	9.4	0.5	1.5	9.0	-5.0	
정밀기기	23.1	12.0	-3.1	12.5	6.4	-3.1	
운송장비	-1.7	-1.1	4.5	-1.0	-0.8	8.9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업은 2017년(2.1%)보다 다소 높은 2.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운수·보관업과 사업서비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은 2017년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표 II - 6.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전기대비)

(%)

	2017 ^p		2018 ^p			
	연간	I	II	III	IV	
서비스업	2.1	2.8	1.1	0.5	0.5	0.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7	1.4	-0.8	0.8	0.5	1.0
운수 및 보관업	2.3	1.9	-1.0	1.8	-0.1	1.5
금융 및 보험업	3.7	4.8	3.7	1.9	-1.3	-0.3
사업서비스	2.0	1.9	1.1	0.4	-1.0	1.0
보건 및 사회복지	7.3	7.5	0.2	0.8	4.8	3.4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 생산은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조정양상이 이어지며 전년대비 4.2% 감소하였다. 농업·림업은 폭염에 따른 재배업의 실적부진 등으로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2017년보다 다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 고용 및 임금

취업자수 증가 규모 큰 폭 축소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2017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는 등 부진하였다. 이는 일부 업종의 업황부진과 구조조정에 주로 기인하지만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가 자동차·조선업 등의 업황부진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폭도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제조업 업황부진의 영향이 관련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 데다 외국인 관광객수 회복도 더뎠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일자리 정책에 힘입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은 크게 늘었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건설경기 조정의 영향으로 2017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일용직 근로자수는 감소 전환하였다. 자영업 업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비임금근로자수도 감소 전환하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취업자수가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30~59세의 취업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크게 줄면서 고용률은 전년대비 0.1% 포인트 하락하고, 실업률은 0.1% 포인트 상승하였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대 후반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0.3% 포인트 하락하였다.

표 II - 7. 고용 관련 지표

(만 명, %)

	2017		2018			
	연간	I	II	III	IV	
경제활동인구	2,775	2,790	2,746	2,812	2,808	2,791
경제활동참가율	63.2	63.1	62.3	63.7	63.5	63.0
취업자수	2,672	2,682	2,628	2,702	2,702	2,697
취업자수증감 ¹⁾	31.6	9.7	18.3	10.1	1.7	8.8
〈산업별〉						
농림어업	0.6	6.2	5.3	5.2	6.2	7.8
제조업	-1.8	-5.6	4.5	-9.1	-9.1	-8.8
건설업	11.9	4.7	6.9	1.6	4.5	5.6
서비스업	20.8	5.2	1.8	12.5	0.6	5.5
(도소매·숙박음식)	3.8	-11.7	-9.8	-7.4	-15.6	-14.2
(보건·사회복지)	6.1	12.5	5.1	14.8	14.2	15.9
(공공행정)	5.5	5.2	6.0	8.7	4.1	1.8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26.5	15.0	22.8	11.3	6.5	19.2
상용근로자	36.6	34.5	40.9	33.5	29.3	34.2
임시근로자	-13.2	-14.1	-12.4	-10.9	-16.2	-17.0
일용근로자	3.1	-5.4	-5.7	-11.3	-6.7	1.9
비임금근로자	5.1	-5.2	-4.5	-1.3	-4.8	-10.4
〈연령별〉						
15~29세	-0.1	-0.3	2.6	-6.9	-2.7	5.8
30~59세	7.4	-13.4	-4.6	-7.2	-20.8	-20.9
60세 이상	24.2	23.4	20.3	24.1	25.2	23.9
실업자수	102.3	107.3	118.1	110.5	106.5	94.2
실업률 ²⁾	3.7	3.8	3.7	3.8	4.0	3.9
(15~29세) ²⁾	9.8	9.5	10.0	10.1	9.4	8.3
고용률 ²⁾	60.8	60.7	60.9	60.7	60.6	60.7

주: 1) 전년동기대비

2) 15~19세 실업률은 계절조정 전, 실업률·고용률은 계절조정 후
자료: 통계청

임금 상승폭 확대

명목임금은 5.3% 상승하며 2017년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 임금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정액급여 오름

세가 확대된 데다 특별급여도 큰 폭 증가 전환하였기 때문이다.¹⁰⁾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노동생산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시간당 명목임금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표 II - 8. 임금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

	2017		2018			
	연간	I	II	III	IV	
명목임금 ¹⁾	3.3	5.3	7.9	4.2	4.9	4.1
(실질임금) ²⁾	1.3	3.7	6.7	2.7	3.3	2.2
〈내역별〉						
상용근로자	2.6	5.1	7.7	3.8	4.7	3.9
정액급여	3.6	4.6	4.7	4.7	4.6	4.4
초과급여	0.6	3.7	1.6	2.6	3.6	7.0
특별급여	-2.2	8.5	24.0	-3.0	6.1	-0.5
임시·일용근로자	5.1	5.5	5.0	6.3	4.7	5.8
시간당명목임금 ³⁾	5.2	6.8	10.9	5.9	10.7	-0.2
노동생산성 ⁴⁾	3.7	4.0	5.0	4.3	7.7	-1.1
단위노동비용 ⁵⁾	1.4	2.8	5.7	1.6	2.8	1.0

주: 1) 비농림어업,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3) 명목임금/근로시간

4) 비농림어업 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근로시간)

5) 시간당 명목임금/노동생산성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은행

(3) 물가

소비자물가 오름세 둔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연평균 기준) 1.5% 상승하여 2017년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은 기상여건 악화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축산물가격이 공급확대로 하락하면서 2017

10) 일부 대기업이 2017년 임금협상 타결금을 2018년 1/4분기 중에 지급한 데다, 2017년 중 실적이 크게 개선된 일부 대기업도 경영성과금 지급액을 크게 늘렸다.

년보다 낮은 오름세를 보였다. 공업제품가격은 4/4분기 중 국제유가 급락 및 유류세 인하¹¹⁾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가격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면서 2017년보다 오름세가 소폭 축소되었다. 전기·수도·가스요금은 2017년 말 도시가스요금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서비스물가는 개인서비스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집세 및 공공서비스요금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2017년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은 2017년 1.5%에서 2018년 중 1.2%로 하락하였다.

표 II - 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인플레이션율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
	연간	연간	I	II	III	IV	
소비자물가	1.9	1.5	1.1	1.5	1.6	1.8	
농축수산물	5.5	3.7	0.7	2.0	4.9	7.1	
공업제품	1.4	1.3	0.7	1.5	1.8	1.1	
석유류	7.7	6.8	3.8	6.7	11.7	5.1	
전기·수도·가스	-1.4	-2.9	-1.9	-3.0	-7.0	0.3	
서비스	2.0	1.6	1.5	1.7	1.5	1.6	
집세	1.6	0.6	1.0	0.7	0.5	0.3	
공공서비스	1.0	0.2	0.5	0.3	0.0	0.1	
개인서비스	2.5	2.5	2.2	2.7	2.5	2.6	
식료품·에너지 제외 ¹⁾	1.5	1.2	1.2	1.4	1.1	1.1	
농산물·석유류 제외 ²⁾	1.5	1.2	1.1	1.3	1.0	1.3	

주: 1)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류 이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2)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 이외 농산물 및 석유류(도시가스 포함) 제외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오름세 둔화 및 전세가격 하락

주택매매가격은 1.1% 상승하여 2017년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가격상승기대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인 반면¹²⁾ 비수도권은 입주물량 증가, 일부 지역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주택전세·월세가격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임대 공급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년대비 각각 1.8%, 1.1% 하락하였다.

표 II - 10. 주택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2017		2018				(%)
	연간	연간	I	II	III	IV	
주택매매가격	1.5	1.1	0.5	0.0	0.3	0.3	
<수도권>	2.4	3.3	1.1	0.4	1.0	0.7	
<비수도권>	0.7	-0.9	-0.1	-0.3	-0.3	-0.1	
주택전세가격	0.6	-1.8	-0.3	-0.7	-0.5	-0.3	
주택월세가격	-0.3	-1.1	-0.2	-0.3	-0.3	-0.3	

자료: 한국감정원

(4)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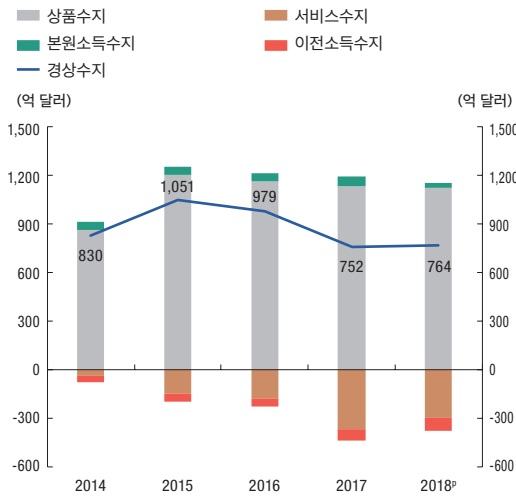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경상수지는 7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7년에 비해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도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흑자 기초를 이어갔다. 본원소득수지는 국내기업의 배당성향 강화 등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이전소득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11)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2018년 11월 6일~2019년 5월 6일) 15% 인하하였다.

12) 다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일) 발표 이후에는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그림 II - 4.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수출 증가

수출(통관 기준)은 6,04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4% 증가하였다. IT제품 수출은 무선통신기기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숙기 진입 등으로, 디스플레이패널이 중국 업체의 공급 확대 등으로 각각 감소했으나 반도체 및 컴퓨터가 주요 IT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비IT제품 수출의 경우 선박이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자동차가 북미지역 판매 부진 등으로 각각 감소했으나 화공품 및 석유제품은 견조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 - 11. 주요 품목별 수출

	2017		2018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IT제품	21.6	<34.4>	11.5	<36.4>
반도체	60.2	<17.5>	28.9	<21.4>
무선통신기기	-22.7	<3.5>	-12.4	<2.9>
디스플레이패널	9.0	<4.8>	-9.9	<4.1>
컴퓨터	10.6	<1.5>	18.5	<1.7>
비IT제품	13.0	<65.6>	2.2	<63.6>
자동차	-0.8	<11.2>	-1.3	<10.5>
석유제품	32.2	<6.2>	32.5	<7.8>
화공품	18.8	<11.4>	12.6	<12.2>
기계류	12.6	<9.2>	9.9	<9.6>
선박	23.6	<7.2>	-49.9	<3.4>
총 수출 ¹⁾	15.8	[5,737]	5.4	[6,049]

주: 1)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입 증가

수입(통관 기준)은 5,3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1.9% 증가하였다. 원자재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원유·가스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비재 수입도 직접소비재 및 비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자본재 수입은 기계류 및 반도체제조장비 등의 수입이 부진을 보이면서 2017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표 II - 12. 주요 품목별 수입

	2017		2018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원자재	22.0	<48.7>	19.7	<52.1>
자본재	16.2	<35.9>	1.6	<32.6>
전기·전자기기	12.9	<20.0>	4.8	<18.8>
기계류·정밀기기	31.9	<13.2>	-4.1	<11.3>
(반도체제조장비)	120.8	<4.1>	-2.3	<3.6>
소비재	9.2	<15.4>	10.9	<15.2>
총 수입 ¹⁾	17.8	[4,785]	11.9	[5,352]

주: 1) []내는 수입금액(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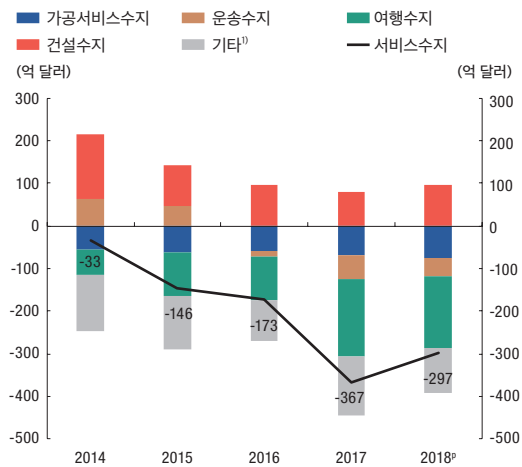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서비스수지는 여행서비스 적자가 줄어들면서 2017년보다 적자폭이 개선된 29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가공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해외건설수주 부진이 2017년 이후 다소 완화되면서 건설수지 흑자규모는 증가하였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일본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5) 지역경제동향

권역별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반도체, 석유화학,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반면 동남권, 호남권 및 대경권에서는 철강, 자동차, 조선,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의 부진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수도권, 동남권, 강원권에서 2017년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나머지 권역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2017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그림 II - 5. 서비스수지



주: 1) 기타사업서비스수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등 여타 서비스수지 항목의 합계
자료: 한국은행

수요동향¹³⁾을 살펴보면 소매판매는 수도권, 강원권 및 제주권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호남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다만, 충청권에서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고 대경권에서 보합 수준을 나타냈으며, 동남권은 2017년에 이어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의 경우, 2017년 중 큰 폭 증가 이후의 조정, 주력산업 업황 부진 등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설비투자 기업 경기실사지수(BSI)가 2017년보다 하락하였다. 건설투자는 대경권에서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 착공이 늘어나면서 건축착공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충청권에서도 상업용 증가에 힘입어 확대되었다. 나머지 권역에서는 주거용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수출은 대부분 권역에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동남권은 선박 인도물량 축소 등으로, 대경권은 휴대폰과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각각 2017년에 비해

13) 지역별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동향을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 BSI, 건축착공면적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감소하였다.

취업자수는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및 제주권에서 주력산업 부진 등으로 2017년보다 감소하였고 수도권에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다만 충청권에서는 양호한 지역경기 상황에 힘입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호남권에서도 소폭 증가로 전환되었다. 실업률은 수도권과 동남권에서 2017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나머지 권역에서는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축산물가격 하락, 공공서비스요금 및 집세 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상승폭이 2017년보다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 호남권 및 대경권에서 투자 수요,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하였다. 반

면 제주권에서는 오름세가 축소되었으며 동남권과 강원권에서는 지역경기 악화 등으로, 충청권에서는 미분양 물량 적체 등으로 각각 2017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주택전세가격은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신규 입주물량 및 미분양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표 II - 13. 권역별¹⁾ 주요 지표

(%)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2017	2018 ^p	2017	2018 ^p	2017	2018 ^p	2017	2018 ^p	2017	2018 ^p	2017	2018 ^p	2017	2018 ^p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²⁾	5.5	6.0	-3.6	-1.9	10.1	1.0	0.3	-3.5	-3.4	-2.0	5.7	-5.0	6.6	-5.4
서비스업생산지수 ²⁾	2.6	2.7	1.0	1.1	2.0	1.3	1.3	1.0	1.5	1.0	1.5	2.0	4.7	2.6
수요														
소매판매액지수 ²⁾	1.4	3.9	-0.8	-0.1	1.5	0.6	-0.7	0.7	0.3	0.0	1.5	2.4	2.3	11.0
설비투자 BSI ³⁾	97	96	93	91	96	97	97	96	90	82	102	97	118	102
건축착공면적 ²⁾	-9.1	-6.1	-24.0	-25.9	-3.5	2.1	15.0	-16.3	-27.1	41.8	-16.8	-2.0	-34.9	-19.5
수출 ⁴⁾	17.9	12.7	13.3	-11.6	20.5	14.8	7.0	13.0	14.6	-5.9	7.4	17.6	20.4	17.4
고용														
취업자수 증가 ⁵⁾	19.9	7.5	2.5	-1.4	4.9	6.8	-1.3	0.3	-0.5	-3.3	4.0	-0.1	1.9	-0.2
실업률	4.2	4.2	3.7	3.7	2.8	3.2	2.9	3.0	3.4	4.2	2.6	2.9	1.9	2.0
물가														
CPI ⁶⁾	2.0	1.4	1.7	1.5	1.9	1.5	2.0	1.5	1.9	1.6	2.0	1.6	2.3	1.7
주택매매가격 ⁷⁾	2.5	3.3	0.1	-3.6	0.2	-0.8	1.9	2.1	0.0	0.6	2.4	-1.6	1.7	0.9
주택전세가격 ⁷⁾	1.4	-1.5	-0.9	-4.1	-0.2	-1.7	1.4	0.5	-0.7	-1.6	1.8	-2.7	0.1	-1.8

주: 1)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설비투자 BSI는 서울 제외),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기준

2) 전년대비 증가율 3) 기준치=100 4) 통관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5) 전년대비 증가(만명) 6) 전년대비 상승률 7) 전년말월대비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한국감정원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장기금리 움직임은 국가별로 상이

2018년 중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연준의 금리인상과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등으로 상승하다가 4/4분기 중 경기 둔화 우려 확대,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약화, 미 정부 폐쇄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유로지역의 경우 독일 장기금리는 ECB의 완화기조 지속, 역내 재정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본 장기금리는 0% 내외에서 횡보하였다.

신홍국의 CDS 프리미엄 및 EMBI+ 가산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및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부채부담 증가와 일부 취약 신홍국의 금융불안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표 II - 14. 주요 국제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기말 기준)

	2017	2018			
		3월	6월	9월	12월
장기금리					
(미국)	2.41	2.74	2.86	3.06	2.68
(독일)	0.42	0.49	0.30	0.47	0.24
(일본)	0.05	0.05	0.04	0.13	0.00
리스크 프리미엄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¹⁾	178	189	198	183	248
(신홍국 CDS 프리미엄) ²⁾	119	137	191	193	207
(신홍국 가산금리) ³⁾	311	326	388	362	435

주: 1) 10년 만기 회사채(Baa등급) 수익률 기준

2) Markit이 14개 신홍국의 CDS 프리미엄을 가중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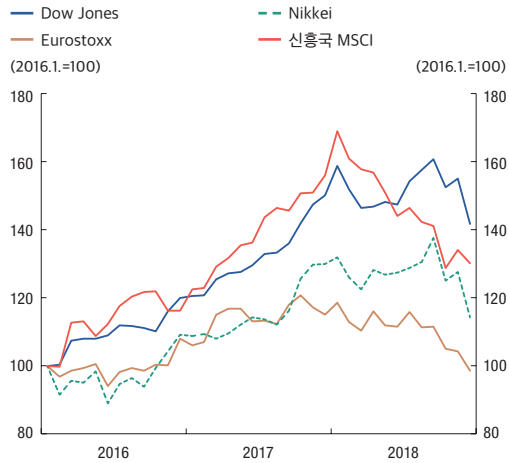
3) JP Morgan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기준

자료: Bloomberg, JP Morgan, Markit

글로벌 주가, 선진국·신홍국 모두 하락

미국 주가지수는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하다가 4/4분기 중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확대 등으로 급락하여 2017년 말 대비 5.6% 하락하였으며 유로지역 및 일본의 주가지수도 각각 14.3% 및 12.1% 하락하였다. 신홍국 주가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미 연준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 신홍국 금융불안 등으로 2017년 말 대비 16.6% 하락하였다.

그림 II - 6. 주요 선진국 주가 및 신홍국 MSC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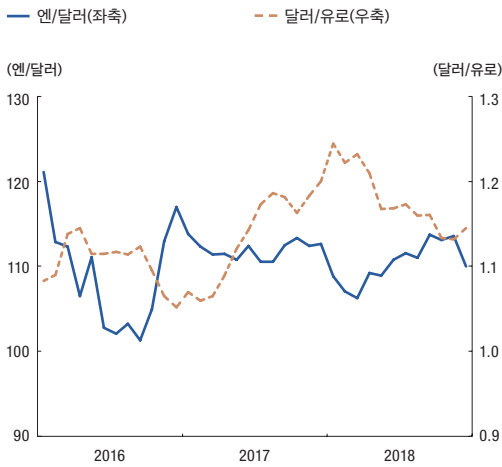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

미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 호조 및 미 연준 금리인상 등으로 주요국 통화에 대해 대체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었다. 다만 12월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¹⁴⁾

14) 미 달러화는 2018년 중 유로화에 대해서는 4.9% 절상, 엔화에 대해서는 2.4% 절하되었다.

그림 II-7. 주요 환율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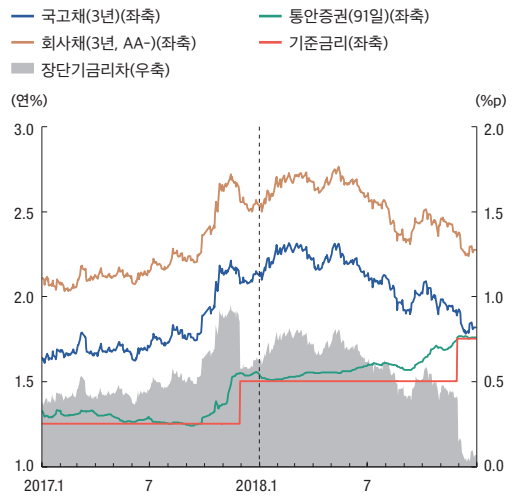
나. 국내금융시장

(1) 금리

국내 장기금리 하락

국고채(3년) 금리는 2018년 말 1.82%를 기록하면서 2017년 말(2.14%) 대비 상당폭 하락하였다. 기간별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등이 엇갈리며 등락하다가 5월 중순부터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8월 이후 국내 고용지표 부진 등이 가세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가 9월 중순 이후에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형성되면서 다소 반등하였다. 그러나 10월 중순 이후 글로벌 성장감속 우려, 국내 경제지표 부진,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재차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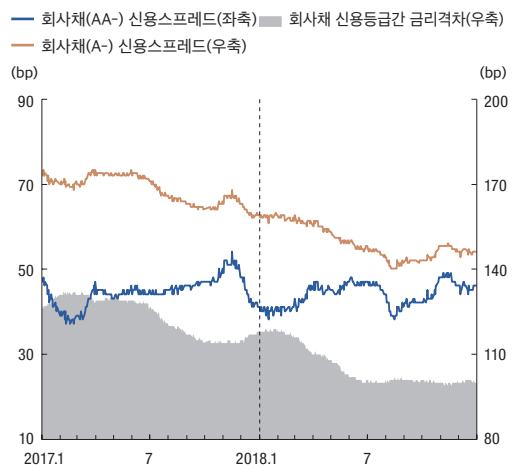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9월 중순 이후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II-8. 주요 시장금리 및 장단기금리차¹⁾

주: 1) 국고채(3년) 금리 - 기준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금리 메리트 부각 등으로 회사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비우량물을 중심으로 축소되었다.

그림 II-9.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 및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²⁾

주: 1) 국고채(3년) 금리 대비

2) 회사채(3년, A-) 금리 - 회사채(3년, AA-) 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은행 여수신금리 상승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4/4분기 중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였다. 다만 여신금리는 장기시장금리의 하락으로 상승폭이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수신금리차는 축소되었다.

표 II - 15. 은행 여수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연%, %p)

	2017		2018			D-C
	12월(C)	3월	6월	9월	12월(D)	
여신금리(A)	3.62	3.67	3.65	3.61	3.72	+0.10
기업대출금리	3.64	3.66	3.63	3.62	3.77	+0.13
가계대출금리	3.61	3.69	3.72	3.62	3.61	0.00
수신금리(B)	1.81	1.85	1.87	1.84	2.05	+0.24
여수신금리차(A-B)	1.81	1.82	1.78	1.77	1.67	-0.14

자료: 한국은행

(2) 자본시장

코스피 큰 폭 하락

코스피는 주로 대외 요인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연초 기업실적 개선 기대가 이어지면서 1월 29일 사상 최고치(2,598)를 기록하였으나 2월 들어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 글로벌 주가 급락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이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반등하다가 5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하반기 들어서는 대외요인의 변동에 따라 등락하다가 10월 중 미·중 무역분쟁 우려 심화, 글로벌 주가 급락 등으로 10월 29일에는 연중 최저치(1,996)까지 하락하였다. 12월 중에도 미국 주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하락폭

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2018년 말 코스피는 2017년 말 대비 17.3% 하락한 2,041로 마감하였다.

코스닥지수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코스피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연말 코스닥지수는 2017년 말 대비 15.4% 하락한 676을 기록하였다.

그림 II - 10.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자료: KOSCOM

(3) 금융기관 여수신

은행 수신 증가폭 확대

은행 수신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2017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정기예금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 수신 경쟁력 제고, 바젤Ⅲ 단기유동성 지표인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자금조달 노력 강화 등에 주로 기인한다.

비은행 부문 중 자산운용사는 신종펀드에 대한 대규모 자금유입이 지속된 가운데 주식형·채권형 펀드로의 자금유입도 늘어나면서 증가

규모가 2017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다만 MMF는 카타르 은행 정기예금 ABCP를 편입한 상품에 대한 환매¹⁵⁾가 늘면서 감소하였다. 한편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수신도 금리메리트가 지속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표 II - 16.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2017	2018				
		연간	I	II	III	IV
은행 수신 ¹⁾	79.5	91.6	14.5	37.6	13.3	26.3
요구불예금	14.3	6.3	-5.1	7.5	-3.8	7.7
저축성예금	47.6	77.6	18.4	24.1	19.1	15.9
수시입출식	19.7	4.6	3.5	4.0	-7.0	4.2
정기예금	28.8	72.2	16.4	20.0	24.7	11.0
시장성수신 ²⁾	17.7	7.8	1.2	5.9	-2.0	2.7
자산운용회사	27.9	53.8	24.9	18.9	0.6	9.4
MMF	-7.0	-7.7	7.9	0.0	-14.0	-1.7
주식형펀드	4.2	7.3	3.4	0.1	1.4	2.4
채권형펀드	-8.6	6.4	-1.6	4.5	3.4	0.0
신종펀드 ³⁾	45.3	48.3	14.8	14.2	10.1	9.2
상호저축은행	6.9	8.6	1.6	2.0	2.1	2.9
신용협동기구 ⁴⁾	44.6	39.7	10.0	10.0	8.2	11.5

주: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 예금 제외 기준

2) CD, RP, 표지어음, 은행채

3)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

4)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기업대출 증가규모 확대, 가계대출 둔화

기업대출은 2017년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규모가 2017년보다 확대되었다.

비은행 기업대출도 증가규모가 2017년보다 소폭 확대되었다.

가계대출은 2017년보다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은 대출규제 강화¹⁶⁾에도 불구하고 전세거래 증가, 아파트 중도금 및 입주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대출규제 강화, 기존 중도금대출의 상환 증가, 지방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증가규모가 큰 폭 축소되었다. 기타금융기관도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론 공급규모 축소 등으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표 II - 17. 금융기관 대출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2017	2018				
		연간	I	II	III	IV
기업대출	82.2	90.3	24.0	22.2	27.8	16.2
은행	40.4	46.7	14.6	10.0	16.5	5.6
대기업	-3.7	6.9	1.8	2.3	1.4	1.4
중소기업	44.0	39.8	12.7	7.7	15.2	4.2
비은행 ¹⁾	41.8	43.6	9.5	12.2	11.3	10.6
가계대출 ²⁾	100.3	74.4	17.1	22.0	18.0	17.3
예금은행	43.3	52.4	8.2	12.8	14.2	17.2
(주택담보대출)	21.6	30.1	4.6	6.0	8.6	10.8
(기타대출)	21.6	22.4	3.6	6.8	5.6	6.4
비은행예금기관 ³⁾	22.6	6.8	0.7	2.6	0.0	3.5
(주택담보대출)	10.8	-3.9	-0.5	-0.8	-1.5	-1.1
(기타대출)	11.8	10.7	1.3	3.3	1.5	4.6
기타금융기관 ⁴⁾	34.4	15.2	8.2	6.6	3.7	-3.4

주: 1) 공공 및 기타대출 포함.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기관 기준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예금

4) 보험기관, 연금기관,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15) 터키 금융불안이 심화되면서 터키 관련 익스포저가 큰 카타르 은행으로 경계감이 확산되었다.

16) 2017년 8.2대책으로 LTV·DTI비율이 축소(투기·투기과열지역 LTV 60%→40%, DTI 50%→40%)된 데 이어 2018년에는 1.31일부터 新DTI가 시행되고 9.13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4)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2017년 말 대비 상승

26

원/달러 환율은 연초 미 달러화 약세, 국내경제 성장세 지속 및 북한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1,054.2원까지 하락하였으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4월 중순 이후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6월 들어 미국과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전망 확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큰 폭의 약세로 돌아선 뒤 10월 들어 미국채 금리 상승 및 글로벌 주가 급락 등의 영향이 가세하며 1,140원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에도 글로벌 주가 급등락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이어졌으나 연중 주가 및 통화 가치 조정이 큰 폭 이루어졌던 신흥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2018년 말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2017년 말(1,070.5원) 대비 4.1% 하락한 1,115.7원으로 마감하였다.

한편 원/엔 환율(100엔당)은 미·중 무역분쟁 우려 및 글로벌 증시 부진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승하였다. 2018년 말 원화의 엔화에 대한 가치는 100엔당 1,008.8원(KEB하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으로 2017년 말(949.2원) 대비 5.9%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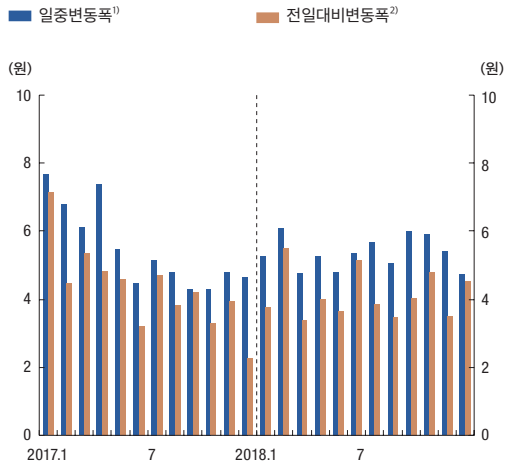
그림 II - 11. 원/달러 및 원/엔 환율¹⁾



주: 1) 원/달러는 서울외환시장 종가, 원/100엔은 KEB하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KEB하나은행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대비 변동폭은 연평균 각각 5.4원, 4.1원을 기록하여 2017년(각각 5.5원 및 4.4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림 II - 12. 원/달러 환율 변동폭



주: 1) 일중변동폭(당일 최고가 - 당일 최저가)의 평균
2) 전일대비변동폭(당일 종가 - 전일 종가) 절대값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하락

외환스왑레이트¹⁷⁾(3개월물)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지속에 따른 내외금리차 역전폭 확대 영향으로 2017년 말 대비 0.70% 포인트 하락한 -1.33%를 기록하였다.

통화스왑금리¹⁸⁾(3년물)도 국고채금리 하락에 연동되어 2017년 말 대비 0.43% 포인트 하락한 1.14%를 기록하였다.

그림 II - 13.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자료: 한국은행, 한국자금융재(주), 한국 톨렛프레본 외국환중개(주)

17) 외환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외환스왑레이트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이다.

18) 통화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한다는 점에서 외환스왑과 유사하지만 만기가 주로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 동안 이자를 교환한다는 점, 최초 교환 시 및 만기 시 교환 원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이 다르다. 통화스왑금리는 LIBOR 금리와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를 말한다.

Ⅲ

업무 현황

1. 중기전략	31
2. 통화신용정책	32
3. 금융안정업무	40
4. 발권업무	45
5. 지급결제업무	50
6. 외환 및 국제협력업무	54
7. 조사통계업무	65
8. 국고 및 증권업무	73
9. 대외 커뮤니케이션	77

2018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수행



물가안정목표 설정
(2019년 이후)



기준금리 인상
(11월, 0.25%p)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25조 원 규모)

금융안정 책무 수행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개최



비상대응체제 가동 등
시장안정 도모
긴급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등 개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적 수행
신규 통화스왑 체결 등

조사연구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한 조사연구 강화



대국민 소통 활성화



글로벌 정책 공조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1. 중기전략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을 완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선진 중앙은행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 수행 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부여한 3년 시계의 중기전략을 2012년부터 매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동 전략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중기전략은 주요 업무 분야별로 9개의 전략목표와 34개의 전략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각 절에는 각 업무 분야별로 전략계획과 연계된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 등이 기술되어 있다.

표 III-1. 2018년 중기전략 목표 및 계획

1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	최적 통화정책 결정 지원 및 정책효과 분석 고도화
	정책수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금융경제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 구축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2 금융안정을 위한 효과적 정책 수행	금융안정상황 점검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금융안정 분석·연구 및 대외협력 강화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의 적극 참여 및 국외정보 수집·활용 체계화
3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도모 및 충격대응능력 제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현안 분석 강화
4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도모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및 정책기능 강화
5 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및 통계 확충	경제 분석 및 예측의 정확성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
	새로운 국제 통계기준의 안정적인 이행과 정착
	경제전망 및 분석에 유용한 통계의 개발 및 확충
	대내외 연구교류 강화
6 외화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외화자산의 안정적 운용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투자전략 도모
	외화자산 운용역량 강화
7 화폐의 원활한 수급 및 신뢰 제고	화폐수급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화폐 공급 및 관리체계 구축
	첨단 은행권 위변조방지장치 조사연구 및 정보 유관기관과의 위폐 정보 공유체계 강화
	화폐·발권제도 및 화폐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확대
8 대국민 소통 및 국제협력 강화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및 경제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국제회의체,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정책협력·교류 강화
9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운영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리스크 관리 성숙도 제고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
	직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력운용 체계 강화
	보수·복지 제도의 합리적 정비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인프라 개선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유의 활성화
	IT서비스 확충 및 고도화

자료: 한국은행

2.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 체계 하에서도 정책결정은 물가 상황 외에 경제성장,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편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가. 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은 2016~18년 중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증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 12월 26일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하였다.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하였다.

이번 물가안정목표 설정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도록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목표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주요 선진국과 같이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2%)에 보다 확고하게 안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안정성 제고 →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 실제 인플레이션 안정 → 통화정책의 신뢰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물가안정목표 설정의 또 다른 특징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별도 설명책임¹⁹⁾을 통한 대국민 설명방식은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제한적²⁰⁾이었다. 그러나 유가 변동성 확대, 경기와 물가 간의 관계 약화 가능성 등으로 물가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4회 발간하고 국회 요구 시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하여 답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하기로 하였다. 이행빈도가 낮은 별도 설명방식을 정기 설명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물가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년 주기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review)하고 그 결과를 공개·설명함으로써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였다.

19)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pm 0.5\%$ 포인트 초과 이탈하는 경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하고 이후에도 이탈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설명하도록 하였다.

20) 별도 설명책임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를 실제로 이행한 사례는 2016년 7월 및 10월 두 차례 발생하였다.

나.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018년 중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²¹⁾ 이 과정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신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특히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하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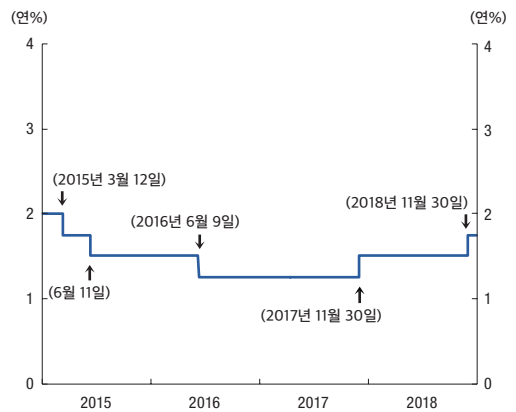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였다. 이는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물가 면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1%대 중반 수준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하반기 중에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심화, 고용상황 부진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11월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여 연 1.75%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 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계속 빠르게 증가하

는 상황에서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될 경우 금융불균형 확대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연중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상되었지만 통화정책 기조와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완화적 금융여건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대외 리스크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가계부채는 정부대책과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가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상존하였다.

그림 III-1.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2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2018년 중 총 8차례(1, 2, 4, 5, 7, 8, 10, 11월)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소수의견은 4차례(7, 8, 10, 11월) 있었는데 7, 8월에 이일형 위원이 각각 0.25% 포인트 인상 의견을, 10월에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이 0.25% 포인트 인상 의견을, 11월에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동결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여수신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수신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여수신업무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으며, 수신업무로는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통화안정계정예치금 등이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대출금은 2018년 말 14조 859억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3조 996억 원 감소하였다.

표 III - 2. 한국은행 원화대출금¹⁾ (기말 기준)

(억 원)

	잔액		증감액
	2017	2018	
금융중개지원대출	171,855	140,859	-30,996
계	171,855	140,859	-30,996

주: 1) 대정부대출금 제외
자료: 한국은행

예수금은 2018년 말 134조 387억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21조 5,584억 원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원화예수금이 1조 9,795억 원, 외화예수금이 19조 5,789억 원 증가하였다.

표 III - 3. 한국은행 예수금 (기말 기준)

(억 원)

	잔액		증감액
	2017	2018	
원화예수금	668,368	688,163	19,795
금융기관	615,940	640,875	24,935
비거주자 ¹⁾	52,428	47,287	-5,141
외화예수금	456,435	652,224	195,789
계	1,124,803	1,340,387	215,584

주: 1) IMF 등 외국기관의 원화예금
자료: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실효성 제고

한국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하였다.

먼저 3~4월 중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성동조선해양 및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전북 및 경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3월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중 400억 원²³⁾을 활용하여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²⁴⁾하기로 하였다. 또한 4월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중 300억 원²⁵⁾을 활용하여 성동조선해양 및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²⁶⁾하기로 하였다.

23) 한국은행 본부가 전북본부에 배정한 한도유보분 250억 원과 전북본부 자체자금 150억 원으로 조성하였다.

24)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와 지난 2년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납품 또는 용역제공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신규 대출실적의 25%를 금융기관에 저리(연 0.75%)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25) 한국은행 본부가 경남본부에 배정한 한도유보분 200억 원과 경남본부 자체자금 100억 원으로 조성하였다.

26) 지난 1년간 성동조선해양 및 STX조선해양에 납품 또는 용역제공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신규 대출실적의 25%를 금융기관에 저리(연 0.75%)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9월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11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요건이 완화²⁷⁾되고 지원대상이 추가²⁸⁾되어 수혜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 산정 시 금융기관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우대를 강화²⁹⁾하였다. 11월에는 업황 부진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의 한시 운용기간을 2019년 11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6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11조 원,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0.5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조 원 등 총 한도 25조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지원금리는 연 0.50~0.75%이다.

표 III - 4.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¹⁾

프로그램	(조 원, 연%)	
	한도	금리
무역금융지원	1.5	0.50
신성장·일자리지원 ²⁾	6.0	0.50
중소기업대출안정화 ³⁾	11.0	0.50~0.75
영세자영업자지원	0.5	0.50
지방중소기업지원	5.9	0.75
합 계	25.0 ⁴⁾	-

주: 1) 2018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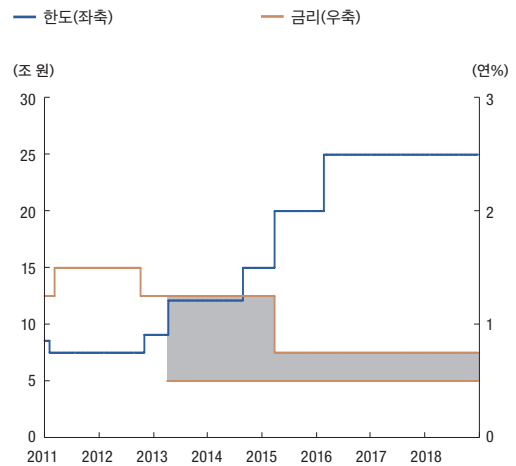
2)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2017년 9월)

3) 기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기취급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지원

4) 한도 유보분(0.1조 원)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 2.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27) 일자리 창출기업에 적용되었던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 후 7년 이내 요건을 폐지하였다.

28) 기존의 청년고용 증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이외에 전체 고용인원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다.

29) 기존에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2배를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 실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제도 개편 후에는 대출실적의 3배를 지원대상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라.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콜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 다양한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유동성 조절, 시장친화적 공개시장 운영 등을 위해 통화안정증권 통합발행제도, 통화안정계정 입찰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한편 미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심화 가능성,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공개시장운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신축적인 유동성조절

2018년 중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는 197.3조 원으로 전년대비 3조 7천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화폐발행 증가 등으로 지준공급이 감소한 데다 예금이 큰 폭 증가하면서 지준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이에 RP매각,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 단기 유동성조절수단 운용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

RP(순)매각규모(RP매각에서 RP매입을 차감한 순액, 평잔 기준)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평잔 기준)는 유동성조절 필요규모 감소 등에 대응하여 전년대비 각각 1조 6천억 원 및 3조 4천억 원 축소하였다.

반면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평잔 기준)는 통화안정증권 만기도래규모, 외국인 등의 견조한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조 3천억 원 확대하였다.³⁰⁾

표 III - 5.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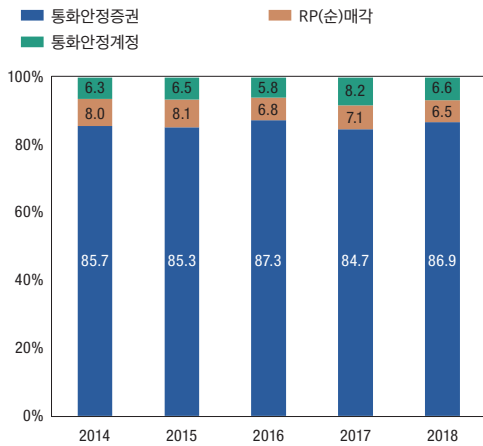
	2017	2018				
		연간	I	II	III	IV
유동성조절필요규모	201.0	197.3	199.7	201.6	196.9	191.3
통화안정증권	170.2	171.5	171.1	171.5	172.8	170.4
RP(순)매각잔액	14.4	12.8	13.9	14.9	11.2	11.4
RP매각	14.4	12.8	13.9	14.9	11.2	11.4
RP매입	0.0 ¹⁾	0.0	0.0 ²⁾	0.0 ³⁾	-	-
통화안정계정	16.4	13.0	14.7	15.2	12.8	9.5

주: 1) 2017년 1월 11일 1일물 RP매입(1조 8천억 원) 실시
2017년 5월 10일 1일물 RP매입(1조 4천억 원) 실시
2017년 9월 6일 1일물 RP매입(3조 원) 실시
2) 2018년 2월 7일 1일물 RP매입(4천억 원) 실시
3) 2018년 4월 11일 1일물 RP매입(4천억 원) 실시

자료: 한국은행

이에 따라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활용비중을 보면 통화안정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중 84.7%에서 2018년 중 86.9%로 확대된 반면 RP(순)매각과 통화안정계정의 비중은 2017년 중 각각 7.1%, 8.2%에서 2018년 중 각각 6.5%, 6.6%로 축소되었다.

30) 2017년 중 통화안정증권 운용규모가 2016년 4/4분기 중 채권시장 불안에 대응한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 축소 조치 및 2017년 4/4분기 중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에 따른 단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상당 폭(6조 5천억 원)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하였다.

그림 III-3.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활용 비중¹⁾

주: 1)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763억 원(2014년 발행, 2015년 상환)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487억 원(2015년 발행, 2016년 상환) 제외
자료: 한국은행

원활한 유동성 조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2018년 3월부터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통합발행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³¹⁾하고, 11월부터 잔존만기 4개월인 1년물 종목에 대해 중도환매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투자수요도 확대되었다. 아울러 4월부터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 시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사전 내정금리 결정방식에서 금융기관의 입찰결과에 따라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찰 수요 변동에 대응하여 통화안정계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운용도 보다 용이해졌다.

금융시장 안정 도모

하반기 들어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비상상황 단계별 시장 안정화 조치 등 공개시장운영 측면에서의 금융시장 불안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한편 공개시장운영은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신속적으로 실시하였다. 9월 일부 MMF의 환매중단³²⁾ 및 연말 단기자금 시장의 수급불일치³³⁾에 따른 초단기 금리의 상승 등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RP매각 및 통안계정예치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였다.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체계를 개편하였는데, 연 2회 중간보고서를 폐지하는 대신 정기보고서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려 발간³⁴⁾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동 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 횟수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렸다. 또한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관련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자료를 동 보고서에

31) 1년물 통합발행기간 확대로 연간 발행되는 종목 수는 12종에서 6종으로 축소되고 종목당 발행규모는 2배 가량 확대되었다.

32) 터키 금융불안이 심화되면서 터키 금융기관의 지분을 보유한 카타르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에 대한 환매 요청이 급증하면서 일부 MMF가 환매를 중단하였다.

33) 통상 연말에는 정부의 국고여유자금 회수, 법인의 MMF환매 증가, 은행권의 경영비율 관리 등으로 단기금융시장의 자금수급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34) 정기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던 반면 중간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없이 국회에 제출하되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분량도 정기보고서의 절반 정도였다.



자료: 한국은행

수룩하여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고려 사항을 시장참가자 및 일반 국민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국회,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 학계 등 각 분야 경제주체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소통하였다. 2018년 중 국회에 네 차례 출석하여 한국은행의 정책 및 업무수행, 금융경제 현황 등을 보고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였다. 또한 경제동향간담회, 금융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 임원들과 국내의 금융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 통화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과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으며, 신년사, 창립 기념사 등을 통해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를 경제주체들에게 제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외국중앙은행 및 경제학계 등의 저명인사들이 참석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통화정책의 역할, 금융시장의 변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회의, 해외컨퍼런스에도 참여하여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 한국경제의 현황 및 전망 등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밖에도 기업 임직원, 교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통해 일반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융통화위원들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국내의 주요 언론사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5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화정책 방향과 금융경제상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교수, 기업 임직원, 교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그림 III- 5. 금융통화위원 기자자동차 광주공장 방문 (2018년 6월 14일, 광주)



자료: 한국은행

24회의 강연 및 연설, 수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통화정책 이해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6월 25~2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Annual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Research Conference」, 10월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Financial Risks and Safety Nets in Asia」 등에 토론 패널이나 연설자로 참가하여 주요국 중앙은행 임원 및 국제금융계 인사들과 국제경제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아울러 「2018 BOK 국제컨퍼런스」, 「19회 매경세계지식포럼」 등 국내에서 개최된 주요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참석하여 학계, 정부 및 유관기관과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금융통화위원들은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등 주요 산업시설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현안과 주력 산업의 업황 및 경쟁력 관련 이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표 III- 6.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활동

분류	주요 참석자	개최주기
기자간담회	국내외 주요 언론사 기자	연 5회
학회 활동 및 강연	경제연구원(소)장 및 대학 교수, 대학생	수시
국외 세미나	중앙은행 임원 및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	수시
지역기업 간담회	지역 경제단체 임원 및 기업 CEO	수시

자료: 한국은행

3. 금융안정업무

가. 금융안정상황 분석·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융안정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분석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강건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금융권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였다. 한편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안정 현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파악에 노력하였으며 금융안정 관련 국내외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금융안정상황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상황을 매분기 점검하는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³⁵⁾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회의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당일 보도 자료 배포 및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6월 및 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³⁶⁾를 심의·의결한 당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8년에는 가계·기업, 자산시장 등 부문별 금융안정상황 점검과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

격에 대한 복원력 평가를 비롯하여 핀테크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리스크 분석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상반기에는 대출금리 상승 시나리오별로 취약차주³⁷⁾ 및 비취약차주의 소득대비 이자상환 부담 증가수준을 추정하는 등 소득측면에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전세가 격 하락에 따른 금융부문 리스크를 임대가구의 재무상황 및 전세자금대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하였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³⁸⁾의 현황을 업종·기업규모별로 살펴보고 장기간 정상기업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핀테크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금융안정 리스크를 평가하였으며, 비은행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거시경제 및 금융 충격에 대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하반기에는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차주의 소득·신용등급별 분포, 취약차주의 부채규모 및 특성 등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향후 가계부채 증가수준을 살펴보았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압력 등을 감안하여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능력 및 차주의 원리금상환부담 수준별 잠재리스크도 점검하였다. 아울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장기존속 한계기업 및 재무건전성 취약기업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35) 한국은행은 3, 6, 9, 12월에 금융안정회의(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거시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36)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

37)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차주를 의미한다.

38)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감안하여 이들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살펴보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다. 거시 위험요인 발생시 금융업권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반영한 전체 금융권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을 평가하였다.

금융안정 관련 조사연구 수행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경기변동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조기경보 및 정책대응 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국내 전문가와 5건의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국가 간 금융연계성,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최적조합, 핀테크가 금융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제기구 및 해외 중앙은행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도 수행하였다.

잠재리스크 포착을 위한 공동검사 수행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의 조기포착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부문검사 및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감독당국 등과의 정보 교류 및 금융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국내은행에 대한 부문검사(3회)를 실시하여 주요 은행의 가계 및 기업 대출 취급실태와 지방은행의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하였다. 가계대출 부문검사를 통해서는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동향을 살펴보고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및 상환능력 변화를 점검하였다. 기업대출 부문검

사를 통해서는 한계기업 현황 및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구조조정 추진 실태를 점검하였다. 지방은행 대출 취급실태 부문검사를 통해서는 영업태도 변화와 잠재리스크, 지방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국내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외에도 개별 은행에 대한 리스크 검사(2회)를 실시하여 해당 은행의 경영실태, 대출 취급실태 및 리스크 요인,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표 III - 7.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2014	2015	2016	2017	2018
부문검사	3	5	3	4	3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4	2	3	2	2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경영실태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도 적극 수행하였다. 자영업자 영업실태, 금융회사의 자영업 신용리스크 평가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문 인터뷰를 하였으며, 국내은행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미래지향적·정성적 평가를 위해 은행 경영층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리스크 평가 서베이 등을 실시하였다.

금융기관 공동검사 결과를 정부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제공하여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동검사 유관기관과의 워크숍,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금융기관 검사업무 부서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검사 결과를 전달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주요국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8년 4월 「한국은행법 제94조 등에 따른 자료협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³⁹⁾하였다.

국내외 금융안정 현안 논의 참여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금융규제 제·개정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회원기관⁴⁰⁾으로서 금융규제 개혁의 효과 평가, 이행 모니터링 및 신규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⁴¹⁾ 또한 글로벌 금융규제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⁴²⁾와 함께 국제적으로 합의된 금융규제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FSB 산하 아시아 지역자문그룹과 동남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 은행감독실무그룹의 회원기관으로서 역내 금융안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글로벌 금융안정 관련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⁴³⁾(Supervisory College)에 활발히 참석

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은행의 글로벌 경영전략 변화 및 성과, 지배구조, 운영리스크 관리 실태, 유사시 회생정리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국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의 운영리스크 관련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운영복원력(Operational Resilience),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리스크 등의 감독 및 검사 정보도 공유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정부 등 유관기관과 주요 금융안정 현안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가계부채점검반」 회의 등을 통해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 참여하여 정부 등과 함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함께 마련하였다. 아울러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⁴⁴⁾」 참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비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거시경제금융회의⁴⁵⁾」에 참여하여 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외 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의 동향 및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제⁴⁶⁾가 민간신용 수준 및 거시금융 경제 상황에 적합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였다.

39) 조항(4조) 신설을 통해 외국 중앙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제공할 경우 입수기관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0) 한국은행은 FSB 총회 및 취약성평가상임위원회(SCAV) 산하 3개의 실무그룹과 BCBS 산하 11개 실무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41) FSB와 BCBS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업무초점을 규제 개혁의 효과 평가, 이행 모니터링, 감독 강화 등으로 전환하였다.

42)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BOK 이슈노트(「기후변화와 금융안정」, 2018-6호)로 발간하였다.

43)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본점 소재국과 진출국 금융당국자들이 참가하는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이다.

44)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2018년 9월에 신설되었다.

45)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2012년 7월에 신설되어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다.

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 등에 따른 투
자심리 악화로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발생할 가
능성에 유의하여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을 제
고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였다.

2018년 중에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외환부문 여건 점검 등에 바탕을 두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⁴⁷⁾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
었다. 또한 외화 LCR 규제 비율이 상향 조정⁴⁸⁾
됨에 따라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국환 은행 및 중개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외환부문의 잠재리스크를
평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도 지속하였다.

한편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의 유효성을 확
보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
화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8
년 7월 실수요 증빙 절차를 완화하고 외화대출
은행과 송금은행의 불일치를 허용하는 방향으
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스위스와 의 통화스왑계약 신규 체결

한국은행은 중층적 금융안전망의 확충을 위
해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체결 노력을 보다 강
화하였다. 그 결과 2017년 11월 캐나다 중앙은
행에 이어 2018년 2월 기축통화국인 스위스 중
앙은행과도 신규로 통화스왑을 체결하였다. 동
스왑은 계약기간 3년에 100억 스위스프랑/11.2
조 원(약 106억 미 달러 상당) 규모이며 만기도
래 시 협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스위스는
전통적인 금융경제 강국으로 세계 3대 신용평
가사로부터 최고의 국가신용등급(AAA)을 받고
있으며, 선진 6개 중앙은행 간 체결된 상설 통
화스왑 네트워크에 포함된 6대 기축통화국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외환부문의 안전판을 확충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층적 금융안전망이 더
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한·중 통화스왑자금으로 양국 간 기업
무역결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화의 교역결제
활용을 유도하고 통화스왑의 제도적 기반이 정
착되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하였다.

역내 금융안전망 기능 강화 주도

한국은행은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도 노력
하였다. 특히 2018년 ASEAN+3 재무장관·중
앙은행총재회의의 공동의장국 중앙은행으로

46)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하고 신용공급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호황기에 추가자본을 적립하고 위기 시에 동 자본을 손실보전 및 대출재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동태적 자본규제를 가리킨다. 201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은행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수준(0~2.5%)을 매분기 결정하고 있다.

47)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대출 관리 강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 외화유동성 규제 등

48) 2017년 1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 고유동성 외화자산/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이 규제수단으로 공식 도입되었으며, 규제 비율이 3단계에 걸쳐 상향(일반은행: 2017년 60% → 2018년 70% → 2019년 이후 80%, 특수은행(기은, 농협, 수협): 2017년 40% → 2018년 60% → 2019년 이후 80%) 조정되도록 하였다.

서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⁴⁹⁾ 협정문의 전면적인 점검 작업⁵⁰⁾을 주관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다.⁵¹⁾ 주요 개정내용은 자금지원 상한기간 폐지 등 CMIM 자금지원체계 강화, 신용공여조건 부과 확대, IMF와의 협력 제고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으로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 CMIM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되고 자금수혜국의 책임성도 강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 8. 통화스왑 체결 현황

구분	체결 국가	규모 (미 달러 ¹⁾ 기준)	최근 체결·연장	만기
자국 통화 스왑	캐나다	사전한도 없음	2017년 11월	없음
	스위스	100억 프랑/11.2조 원 (약 106억 달러 상당)	2018년 2월	2021년 3월
	중국	3,600억 위안/64조 원 (약 560억 달러 상당)	2017년 10월	2020년 10월
	인도네시아	115조 루피아/10.7조 원 (약 100억 달러 상당)	2017년 3월	2020년 3월
	호주	100억 호주달러/9조 원 (약 77억 달러 상당)	2017년 2월	2020년 2월
	말레이시아	150억 링깃/5조 원 (약 47억 달러 상당)	2017년 1월	2020년 1월
	UAE	200억 디르함/5.8조 원 (약 54억 달러 상당)	2013년 10월	연장 협의 중
미달 러화 스왑	CMIM	384억 달러 ²⁾	2014년 7월	-

주: 1) 최초 또는 규모 확대 체결 시 환율 기준

2) CMIM 총 재원은 2,40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수혜 및 분담 규모는 각각 384억 달러(16%)

자료: 한국은행

라.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마다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움직임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불확실성(5~6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에 따른 주가 급락(10~12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3, 6, 9, 12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시기에는 「통화금융대책반⁵²⁾」 회의, 총재 주재 긴급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살피고 시장불안 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49) ASEAN+3 국가는 CMI의 양자간 스왑계약(Bilateral Swap Agreement)의 미비점을 극복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 CMI를 다자화한 CMIM을 설립함으로써 역내 금융지원체제를 강화하였다.

50) 동 개정작업은 CMIM 협정문의 전면개정을 위한 첫 번째 정기점검(Periodic Review)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51) 2019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최종 승인 후 국가별 서명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52) 부총재, 통화정책·국제담당 부총재보 및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4. 발권업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화(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화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은행권과 주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3종을 발행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새 책자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위조지폐 유통방지 노력을 기울였으며, 깨끗한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지속적으로 손상된 화폐를 회수하여 폐기하였다. 금융기관, 한국조폐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원활히 협력하여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

가. 화폐 발행

화폐수요 대응

2018년 중 한국은행은 35조 5,188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고 28조 370억 원의 화폐를 환수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화폐 발행잔액은 2017년 말보다 6.9% 증가한 115조 3,895억 원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오만원권이 9.4%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만원권은 4.5% 감소하여 오만원권으로 대체되는 양상이 이어졌다.

표 III - 9. 화폐 발행·환수 및 발행잔액¹⁾

(억 원)

	2018			2018년 말 발행잔액
	발행 (A)	환수 (B)	순발행 (A-B)	
은행권 ²⁾	354,752	280,118	74,635	1,128,835 (7.1)
오만원권	250,267	168,779	81,488	947,268 (9.4)
만원권	97,280	104,414	-7,134	151,472 (-4.5)
오천원권	3,329	3,229	101	13,937 (0.7)
천원권	3,877	3,696	180	15,977 (1.1)
주 화 ²⁾	436	252	183	25,060 (0.7)
계	355,188	280,370	74,818	1,153,895 (6.9)

주: 1) ()내는 전년말대비 증가율(%)

2) 오백원권 이하 은행권, 오원화 이하 주화, 기념화폐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한 화폐는 7억 9,621만 장으로 2017년에 비해 28.0% 감소하였다. 은행권은 오만원권을 중심으로 7.4% 증가한 반면, 주화는 환수가 크게 늘어난 오백원화와 백원화를 중심으로 70.8% 감소하였다. 이들 제조화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조 5,338억 원으로 오만원권 증가에 힘입어 25.1% 증가하였다.

표 III - 10. 화폐 제조규모¹⁾

	장 수(100만 장)		금액(억 원)	
	2017	2018	2017	2018
은행권 ²⁾	605.0	650.0	115,350	145,000
	(-21.9)	(7.4)	(-42.5)	(25.7)
주 화 ²⁾	500.1	146.2	841	338
	(-18.3)	(-70.8)	(-17.9)	(-59.8)
계	1,105.1	796.2	116,191	145,338
	(-20.3)	(-28.0)	(-42.4)	(25.1)

주: 1)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2) 기념화폐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기념주화 발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생태 보전의 미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시리즈 기념주화로서 10월 4일 「한국의 국립공원」 3종(‘덕유산’, ‘무등산’, ‘한려해상’)을 발행하였다. 이 시리즈는 우리나라 22개 전체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약 7년에 걸쳐 계속 발행될 예정이다.

그림 III- 6.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화종	도안		소재 규격
	(앞면)	(뒷면)	
은화 3만원화 (덕유산)			·은 99.9% ·지름 32mm ·무게 14.0g
은화 3만원화 (무등산)			
은화 3만원화 (한려해상)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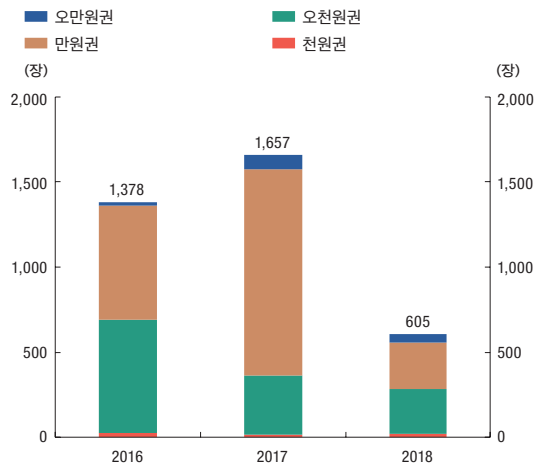
나. 화폐 유통

위조지폐 유통방지 등 홍보 강화

한국은행은 위조지폐의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버스정류장 쉼터, 지하철 차량 내부, 영화관 스크린, SNS 미디어,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화폐사랑 UCC 공모전」(5회차)을 개최하여 65편의 동영상 응모작 가운데 8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밖에 화폐위조범 검거 등에 크게 공헌한 11개 경찰서와 국민 1명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포상을 실시하였다.

2018년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605장으로 2017년(1,657장)보다 1,052장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유통은행권 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도 0.1장으로 2017년(0.3장)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그림 III- 7. 위조지폐 발견장수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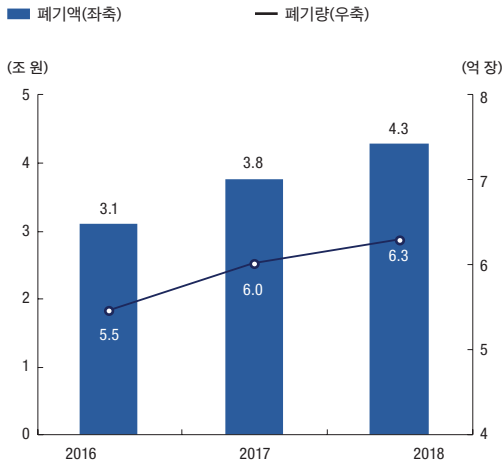
국민의 화폐사용 편의 제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회수한 화폐 중 재사용하기 부적합한 화폐를 폐기함으로써 유통화폐의 청결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2018년 중 폐기한 손상화폐는 4조 2,613억 원으로, 장수 기준으로는 6억 2,655만 장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은행권이 4조 2,590억 원(5억 8,999만 장), 주화가 23억 2,618만 원(3,656만 개)이었다. 한편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56억 3,374만 원으로 2017년(46억 395만 원) 대비 10억 2,979만 원 증가하였다.⁵³⁾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돈 깨끗이 쓰기 SMR(Smart Media Representative)

동영상 광고를 새롭게 실시하였으며, 신권선호 완화 홍보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손상 은행권 교환」 책자도 새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공급하였다.

53) 은행권 유통수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 1> 「2018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 9. 화폐 폐기규모



자료: 한국은행

주화의 유통 원활화

한국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2만여 개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2억 4,915만 개 (346억 원)의 주화를 은행권으로 교환해 주었는데 이는 2018년 주화 발행량의 65.5%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사회복지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동전모금사업에 소형 저금통 34만 개를 지원하여 약 7억 원의 동전을 모금함으로써 주화의 유통 원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다. 국내외 협력

한국은행은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위조지폐의 발견 동향 및 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계속하였다. 특히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위폐 유통방지 홍보용 소책자인 「한국은행과 위폐방지 어벤저스」를 발행하여 각급 학교와 금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수사 또는 재판이 종료된 위조지폐를 검찰청으로부터 인도받아 위조지폐의 제작 방법과 수준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한편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은행권 회의(World Banknote Summit)」, 「은행권 컨퍼런스(Banknote Conference)」 등 해외 은행권 관련 회의와 4월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주화책임자회의(Mint Directors Conference)」 등에 참석하여 해외 중앙은행 및 조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최신 은행권 위조방지장치 개발 동향, 화폐 및 발권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였다.

참고 III-1.

2018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일반적으로 제조 은행권(신권)이 한국은행 창구에서 발행된 후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어 한국은행 창구로 환수될 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의미한다.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일반적으로 용지 재질, 화폐사용습관, 사용빈도에 의해 결정된다. 용지의 물리적 강도가 강해지거나 은행권 사용습관이 향상되거나,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빈도가 낮아질수록 유통수명이 길어진다.

그림 III- 10. 은행권 유통수명



자료: 한국은행

표본조사 방식⁵⁴⁾으로 권종별 유통수명을 추정한 결과 천원권 52개월, 오천원권 43개월, 만원권 121개월로 나타났다. 천원권과 오천원권은 거래적 동기⁵⁵⁾에 의해 빈번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만원권에 비해서는 유통수명이 짧은 반면, 만원권은 거래적 동기에 더해 가치저장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저액면 권종에 비해 유통수명이 긴 편이다. 한편 오만원권의 경우 2009년 6월에 처음 발행된 이후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통수명의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통상 만원권 보다는 더 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추정결과를 2011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천원권은 14개월, 오천원권은 3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통수명 증가는 비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이용 활성화에 따른 현금 이용 감소, 한국은행의 「돈 깨끗이 쓰기」 홍보 활동에 따른 일반의 화폐이용습관 개선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 11. 2011년 및 2018년의 유통수명 추정 결과 비교

(개월)

구분	2011년 ¹⁾ (A)	2018년(B)	증감(B-A)
천원권	38	52	+14
오천원권	40	43	+3
만원권	-	121	-

주: 1) 2018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2011년 유통수명 값을 보정
자료: 한국은행

한편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최저액면(천원권) 및 중간액면(만원권) 모두 주요국 대비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11. 주요국 은행권의 유통수명 비교

(개월)

최저액면		중간액면	
국가(액면가)	유통수명	국가(액면가)	유통수명
미국 (1달러)	70	미국 (20달러)	95
유로존 (5유로)	17	유로존 (20유로)	19
영국 (5파운드)	24	영국 (20파운드)	113
일본 (천엔)	18	일본 (5천엔)	18
호주 (5달러)	68	호주 (20달러)	134
멕시코 (20페소)	42	멕시코 (200페소)	47
한국 (천원)	52	한국 (만원)	121

자료: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 등

54) 은행권 표본을 추출한 후 표본의 유통기간을 추적하여 수명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55)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들은 1만 원 이하 물품 및 서비스 구매 건수의 76.7%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급결제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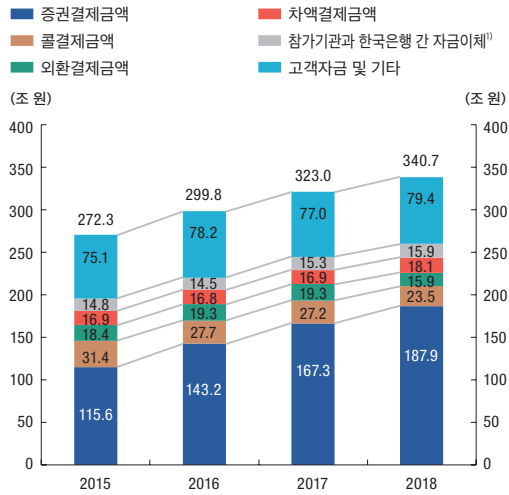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자금결제를 위해서 일중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결제제도를 감시⁵⁶⁾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결제 분야에서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 한은금융망 운영

증권결제자금 증가세 지속

2018년 중 한은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이체는 일평균 1만 7,962건 및 341조 원으로 건수 및 금액이 2017년에 비해 각각 8.7% 및 5.5% 증가하였다. 결제자금 종류별로는 콜 및 외환결제자금이 감소하였으나 증권결제자금은 기관간 RP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원화자금 결제규모 대비 증권결제 비중은 2017년 중 51.8%에서 2018년 중 55.2%로 확대되었다.

그림 III - 12.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 규모 (일평균)



주: 1) 국공채 등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자료: 한국은행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지연 및 교착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을 공급하였다. 2018년 일시결제부족자금 공급규모는 일평균 2조 4,764억 원으로 2017년보다 4.3% 증가하였다. 일중당좌대출⁵⁷⁾ 일평균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3,28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일중RP⁵⁸⁾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7년보다 4.5% 증가한 일평균 2조 1,479억 원을 기록하였다.

56)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의미한다.

57) 은행들의 일시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당일 상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대출이다.

58)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81조의2(일시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 III- 12. 일중 결제유동성 공급규모 (일평균)

(10억 원, %)

	2016	2017	2018	증가율 ²⁾
일중당좌대출 ¹⁾	380.2	318.2	328.5	+3.2
일중RP	2,449.8	2,055.9	2,147.9	+4.5
계	2,830.0	2,374.1	2,476.4	+4.3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결제전용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2) 2017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인프라⁵⁹⁾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⁶⁰⁾(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⁶¹⁾에 따라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18년 중에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요 소액결제시스템⁶²⁾에 대해 평가를 각각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한은금융망은 PFMI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업무복원력 및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 소액결제시스템은 PFMI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부문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개 국내은행과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국내은행은 일중 유동성 관리 등 지급결제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나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⁶³⁾의 이행실적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은행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관 간 RP 등 차입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단기간에 차입규모를 크게 늘린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단기 차입한도를 설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 수행

2017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거래도 급증하면서 암호자산(crypto-assets)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와 함께 일부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59) 경제주체들의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CCP), 중앙예약기관(CSD), 증권결제시스템 및 거래정보저장소(TR)로 구성된다.

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2012년 4월에 제정·발표한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이다.

61) CPMI-IOSCO는 PFMI를 보완하기 위해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I 손실복구지침」(2017년 7월), 「CCP 복원력 추가지침」(2017년 7월) 등 국제기준을 추가 제정하였다.

62)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중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항공동맹 및 전자금융공동망이 한국은행의 감시대상 중요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되어 있다.

63)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을 절감하기 위해 일중 일반자금이체 및 콜거래시스템 자금이체 금액의 60% 이상을 참가기관 간 상계처리되는 보통지급지시로 입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발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를 구성(1월)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암호자산의 경제적·법적 성격 등에 대한 국내외 논의내용과 암호자산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발간(7월)하였다. 또한 CBDC의 기본개념과 구현방식,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보고서를 2019년 1월에 발간하였다. 앞으로도 분산원장 등 관련 기술의 발전, 암호자산 시장 상황, CBDC 관련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한국은행은 국제기준⁶⁴⁾(PFMI)에 맞춰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12월에 개편하였다. 먼저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증권 제공비율(이하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되 은행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9~2022년 중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III- 13.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

(%)

현행 ¹⁾	2019.8.1.	2020.8.1.	2021.8.1.	2022.8.1.
50	70	80	90	100

주: 1)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16.8월 기준 30%에서 50%로 인상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번에 추가된 적격증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주금공 MBS),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 및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증권이다. 다만, 추가 적격증권으로의 풀립을 방지하고 유동성리스크에도 대비⁶⁵⁾하기 위해 전체 담보증권 중 추가 적격증권의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였다.

표 III- 14.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범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좌 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금공 MBS (2018년 말까지 한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금공 MBS(상시 허용¹⁾) 	2018. 12.20.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금채·중금채·수출입금융채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 	2019. 8.1.

주: 1) 주금공 MBS를 한국은행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는 2018년 말 예정대로 종료
자료: 한국은행

64)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Principle 4(Credit risk): An FMI should effectively measure, monitor, and manage its credit exposures to participants and those arising from its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processes. An FMI should maintain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cover its credit exposure to each participant fully with a high degree of confidence.

65) 기존 적격증권(한국은행 대출용 적격담보증권)을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로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 유사시 한국은행 대출담보로의 활용 여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사회적 비용 절감,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을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의결(7월)하고 관련 기술표준⁶⁶⁾을 제정하였으며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발전 및 운영 경험을 전수하고 정책조언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개도국 중앙은행과의 협력도 지속하였다.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2년간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GPPI, Working Group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그간의 워킹그룹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의장직을 연임(2018년 8월~2020년 7월)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회원으로서 BIS CPMI 정례회의, CPMI-역내국 중앙은행 간 공동컨퍼런스 등 지급결제제도 관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지급결제 관련 주요 연구 및 논의⁶⁷⁾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주요국 19개 중앙거래당사자(CCP)를 대상으로 실시한 PFMI 이행점검에도 참여하였다.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중앙은행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실시 등

66) 모바일 지급수단(QR코드) 표준과 현금카드의 모바일화 방안인 모바일 현금카드(HCE) 표준을 말한다.

67) PFMI 등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이 해당된다.

6. 외환 및 국제협력업무

가. 외국환업무

한국은행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통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국내 정착 및 외환거래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유로지역의 정치적 불안,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 발생,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불안이 글로벌 주가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졌을 때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등⁶⁸⁾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3월)된 가운데 국내외 주가의 급락(10월)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을 때에는 필요할 경우 비상대응 계획에 따른 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의지를 밝

히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한국은행은 2018년 5월 기획재정부와 함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2019년 3월말부터 단계별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시장안정조치 내역공개는 그간 우리 외환시장 성장과 대외건전성 향상, IMF 등 국제사회 권고 및 다른 나라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온 결과로 2019년 3월과 9월에는 반기별 자료를 공개하고 2019년 12월부터 분기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는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 이행선언서 공표

한국은행은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⁶⁹⁾(FX Global Code) 준수를 위한 내부점검을 완료하고 2018년 5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이행선언서를 공표하였다. 이행선언서는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에 대한 지지, 준수에 대한 약속과 이를 위한 내부절차 완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글로벌 행동규범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지속하였다.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행동규범의 한글 번역본을 마련하여 시장참가자들

68)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7회(미 연준 FOMC 회의, 미 주가 급락, 북미 정상회담 무산 등),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2회(3월 및 9월 미 연준 FOMC 회의)

69) 한국은행은 BIS 외환시장 실무그룹 회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FX Global Code) 제정 실무작업에 직접 참여하였다. 동 규범은 런던시장 환율조작 사건 등 일련의 위법행위를 계기로 외환시장의 신뢰 회복 및 청렴성 제고를 통해 시장기능의 효과적인 작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국제 행동규범으로 2017년 5월 25일 공표되었다.

에게 배포하였으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행동규범 이행선언서 저장소(Public Register)를 마련하고 이를 글로벌 외환시장협의회의 이행선언서 검색 네트워크(Global Index)와 연계시켜 국제적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글로벌 외환시장협의회의에 참여하여 동 규범의 평가, 실무그룹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외환거래분야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송금, 환전 등 외환분야의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중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외환규제 혁신 추진단」 및 규제개선 간담회에 적극 참여하여 외환분야의 칸막이 해소⁷⁰⁾, 사전신고 면제 대상 거래 확대⁷¹⁾, 동일 유형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기관 조정⁷²⁾,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 시스템 도입⁷³⁾ 등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외화자산 운용업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운용하고 있다. 투자자산의 가치보전을 위해 원리금의 회수불능 등 신용리스크가 큰 자산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외환보유액의 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규모 및 구성

2018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37억 달러로 2017년 말에 비해 144억 달러 증가하였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환(유가증권, 예치금 등)이 3,933억 달러로 2017년 말 대비 139억 달러 증가한 가운데, SDR과 IMF 포지션이 각각 34억 달러와 2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금은 48억 달러로 2017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I - 15.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기말 기준)

	2016	2017(A)	2018(B)	증감(B-A)
외환보유액	371,102	389,267	403,694	14,428
외환	361,701	379,477	393,332	13,856
SDR	2,878	3,374	3,427	52
IMF 포지션	1,727	1,621	2,140	519
금	4,795	4,795	4,795	0

자료: 한국은행

70) 증권사, 카드사 등에도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하고,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자 송금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

71)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소액임차, Tax Refund 업체 제3자지급 등 정형화된 거래의 사전신고를 면제하였다.

72) 기획재정부 신고사항 중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의 한국은행앞 이관, 한국은행 신고사항 중 거주자의 현지법인 대출, 거주자의 2년 미만 체재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의 외국환은행앞 이관 등이 대상이다.

73) 한국은행 신고사항 실행내역 추적 관리, 위변조 적발 등이 가능해졌다.

한국은행은 운용목적에 따라 외화자산을 현금성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하고 이 중 투자자산은 운용방식에 따라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자산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다.

현금성자산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외화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및 일시적인 외화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매각 시 거래비용이 적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국채 및 예치금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직접투자자산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 주요 국제통화로 발행된 장·단기 채권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현금성자산과 직접투자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자금유출입 등으로 현금성자산의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자산과의 신속한 자금이관을 통해 현금성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위탁자산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의 다변화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인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에는 채권과 함께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위탁자산도 필요 시 현금화가 수월하도록 신용도가 높은 채권과 우량 상장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⁷⁴⁾

2018년 말 현금성자산은 5.3%, 직접투자자산은 76.4%, 위탁자산은 18.3%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미·중 무역분쟁,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외화자산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자산구성 면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은 축소하였다. 통화별로는 2018년 중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 및 미 연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미 달러화가 전년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 달러화 표시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기준 미 달러화 비중은 69.8%로 2017년 말에 비해 1.7% 포인트 증가하였다.

상품구성 면에서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에 대응하여 안전성이 가장 높고 시장규모가 큰 정부채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반면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채 등 비정부채와 주식의 비중은 축소하였다.

74) 위탁자산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 2> 「외화자산의 위탁운용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I- 16. 외화자산¹⁾ 구성 내역 (기말 기준)

(%, %p)

	2016	2017(A)	2018(B)	증감(B-A)
1.자산별				
현금성자산	4.7	3.2	5.3	2.1
투자자산				
직접투자자산	77.3	77.7	76.4	-1.3
위탁자산	18.0	19.1	18.3	-0.8
2.통화별				
미달러화	70.3	68.1	69.8	1.7
기타통화	29.7	31.9	30.2	-1.7
3.상품별				
예치금	6.5	6.8	5.0	-1.8
유가증권				
정부채	36.9	37.5	42.9	5.4
정부기관채	21.0	19.2	18.0	-1.2
회사채	14.8	14.7	13.7	-1.0
자산유동화채	13.1	13.2	12.8	-0.4
주식	7.7	8.6	7.6	-1.0
계	100.0	100.0	100.0	-

주: 1) <표 III- 15>의 외환 중 한국은행 외화자산
자료: 한국은행

외화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리스크 관리 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외화자산 운용 관련 전산·결제시스템 점검, 정기적 재해복구 훈련 등을 통해 외화자산 운용에 수반될 수 있는 제반 위험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금융위기 발생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보유자산의 유동화 비용⁷⁵⁾ 측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외화자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제결제통신망(SWIFT) 시스템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재난 및 금융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 상황별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재해복구 훈련을 실시하였다.

외화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조직과 인력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외화자산 운용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산 배분, 리스크 관리 업무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진 점을 반영하는 가운데 하위 부문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하였다.⁷⁶⁾ 또한 외화자산 리스크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관리팀 장을 외부 공모를 통해 채용하였다.

아울러 거래상대방 다양화 및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국내 증권사와의 외화채권 거래를 개시하고 그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거래상대방으로서 조기 정착되도록 하였다.⁷⁷⁾

외화자산 운용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 외화자산 운용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신흥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외화자산 운용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였다.

2018년 중에는 터키중앙은행, 인도네시아중

75) 정상 상황 또는 금융위기 상황 등에서 외화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비용을 의미한다.

76) 조직 정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V장 1절 「외자운용 조직 개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7) 한국은행은 2017년 외화채권 거래기관으로 국내 증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2018년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양은행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양국의 외화자산 구성 및 운용체계 등을 논의하고 투자경험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문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투자전략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외에도 BIS 주최 아시아 외화자산 운용 워크숍, 세계은행 고위급 포럼 등 국제기구 등이 주최한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2018년 중에는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브라질, 베트남 등 각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화자산 운용을 주제로 한 개별적인 연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국가별로 실무직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다.

참고 III-2.

외화자산의 위탁운용 현황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일부를 국제적인 자산운용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위탁운용은 위탁운용사의 투자전략, 운용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외화자산 운용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투자상품, 운용전략 등의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위탁자산은 지난 10년간 전체 외화자산 중 14~19%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위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이다.

표 III-17. 외화자산¹⁾ 중 위탁자산 비중 (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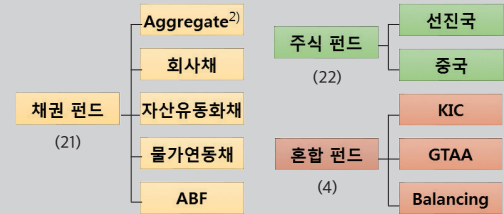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4.1	14.3	15.8	16.7	15.3	15.2	15.5	18.0	19.1	18.3	

주: 1) <표 III-15>의 외환 중 한국은행 외화자산
자료: 한국은행

위탁자산은 유형별로 채권 펀드, 주식 펀드 및 혼합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 펀드는 선진국 정부채, 우량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채, 물가연동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구성되며, ABF(Asian Bond Fund)⁷⁸⁾도 포함하고 있다. 주식 펀드는 대부분 선진국 주식 펀드로 구성되며, 이 외 중국 주식을 포함하고 있다. 혼합 펀드는 채권과 주식 모두를 운용하는 펀드로서, KIC에 위탁한 펀드, GTAA(Global Tactical Asset Allocation) 펀드⁷⁹⁾, Balancing 펀드⁸⁰⁾ 등이

있다. 2018년 말 위탁자산은 채권 펀드 21개, 주식 펀드 22개, 혼합 펀드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I-14. 위탁자산의 펀드 유형별 구성¹⁾ (2018년 말 기준)



주: 1) () 내는 펀드 수

2) 선진국 정부채, 우량 회사채, 자산 유동화채 등에 투자하는 혼합형 채권펀드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투자공사법」에 의거하여 KIC에 일부 외화자산을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2018년 말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의 규모는 원금을 기준으로 250억 달러이다.

아울러 국내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내 자산운용사에도 외화자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2018년까지 국내 위탁 운용사에 대해서는 중국 주식에 한정하여 위탁 운용하고 있으나, 국내 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운용역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 등을 반영하여 향후 선진국 주식 등으로 투자대상 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78) EMEAP가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 투자한 기금으로서 역내 8개국 정부 및 준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79)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채권·주식 간의 비중 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

80) 위탁자산 내의 상품별 비중 조정 등을 위해 활용하는 펀드다.

다. 국제협력업무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자 간 및 양자 간 국제협력·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갔다.

G20, IMF, BIS 등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금융계와의 정책 공조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제 공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11월에는 이주열 총재가 BIS 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국제금융계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다.⁸¹⁾ 아울러 ASEAN+3, SEACEN, EMEAP 등 역내 협의체의 활동 및 논의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역내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특히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대해 포괄적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앙은행 직원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한국은행의 정책수행 경험을 개도국의 수요에 맞추어 제공하였다.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

한국은행은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정책공조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4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3회)에 참석하여 무역마찰, 신흥국 자본유출 등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포용적이

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일의 미래(Future of Work), 투자자산으로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로드맵,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개혁 등 국제금융체제 이슈,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 및 영향 평가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불균형, 금융부문 기술발전의 영향, 금융포용 이슈 등에 대한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IMF·세계은행 회의(2회) 및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5회)에서는 세계경제전망, 세계금융안정 상황, 글로벌 금융경제현안 및 정책과제, 저소득국 지원 등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이 국제금융계 차원의 정책공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III - 18.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18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3·7월 부에노스아이레스, 4월 워싱턴 D.C., 10월 발리)	·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 국제금융 체제, 인프라의 투자자산화를 위한 로드맵, 금융포용, 금융부문의 기술발전, 국제조세, 아프리카 협약 등
· IMF·세계은행 회의(4월 워싱턴 D.C., 10월 발리)	· 세계경제전망, 세계금융안정 상황 및 글로벌 정책과제 등
·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1, 5, 6, 9, 11월 바젤)	· 글로벌 금융경제 현안 및 정책과제 등

자료: 한국은행

역내 금융협력관계 강화

한국은행은 ASEAN+3, EMEAP, SEACEN, AIIB 등 아태지역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금융경제현안 논의는 물론 산하 실무그룹(Working Group)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역내 회원국 간 금융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였다.

81) 이주열 총재의 BIS 이사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 - 3> 「이주열 총재, BIS 이사직 수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ASEAN+3의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CMIM 협정문 개정작업 주관에 더하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⁸²⁾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운영도 도모하였다. 한편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⁸³⁾에 참석하여 각국의 금융경제 동향, 핀테크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3개국 중앙은행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였다.

아울러 EMEAP 산하 「지급결제 실무그룹」의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 관련 공동연구 및 실무그룹 운영규약 개정 등을 주도하였다. 이외에도 SEACEN의 「EXCO 자문위원회」 멤버로서 SEACEN 센터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경험 공유 확대

한국은행은 정책수행 경험 공유 및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중앙은행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들 기관이 국내 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먼저 지식교류프로그램(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⁸⁴⁾의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수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네팔 등 2017년도 협력대상국과 사업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양국 중앙은행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스리랑카를 신규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였다.

표 III- 19. 역내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18년 중)

회의 명	주요 의제
·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마닐라)	· 역내 및 세계 금융경제 동향, 자금지원 강화 등을 위한 CMIM 협정문 개정방안
· 제18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마닐라)	· 각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 3국간 역내 금융협력방안 등
· 제23차 EMEAP 총재회의 (8월, 마닐라)	· 글로벌 요인이 역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 제7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 (8월, 마닐라)	· 핀테크 발전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 금융사이클과 거시건전성 정책 등
· 제10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11월, 텐진)	· 각국의 금융경제 동향, 핀테크 현황과 과제 등
· 제54차 SEACEN 총재회의 (12월, 콜롬보)	·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통화정책 등

자료: 한국은행

표 III- 20. 지식교류프로그램(KPP) 실적 (2018년 중)

협력대상국	사업과제
라오스	지급결제시스템 규정 제정
베트남	외환보유액 운용 리스크 관리
캄보디아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간 상호관계 분석 및 시사점
몽골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금융안정
네팔	지급결제제도 구축방안
스리랑카	금융시장 발전 방안(공공부채 관리 중심)

자료: 한국은행

운영 측면에서는 개발협력사업 경험이 풍부한 국내 전문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대상국 중앙은행과의 공동연구 및 실무진 대상 역량강화연수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사업과제에 대한

82) ASEAN+3 국가들은 CMIM 협정문을 근거로 2011년 4월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를 설립하였으며 2016년 2월 AMRO를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함으로써 역내 감시체제를 강화하였다.

83) 한중일 3국 중앙은행이 2009년부터 매년 순번제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중국인민은행이 12.23~24일 텐진에서 개최하였다.

84) 한국은행의 업무 관련 지식, 정책수행 경험, 한국의 금융시스템·인프라 발전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 등의 중앙은행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사업을 말한다.

이해도 향상 및 중앙은행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협력대상국 중앙은행 고위인사와의 정책대화, 현지 언론사 및 금융기관을 통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자문내용이 실제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아울러 교류협력 관련 MOU를 체결한 라오스 중앙은행의 요청으로 현지에서 중소기업 진흥을 주제로 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라오스 및 네팔 중앙은행 직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은행 지급결제 관련 업무연수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였다.

또한 16개국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중견직원 85명을 대상으로 통화정책, 금융안정, 외화자산운용, 경제통계, 지급결제, 내부경영 6개 분야에 걸쳐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Central Banking Study Program)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을 방문한 외국 중앙은행, 정부기관 직원 등 258명을 대상으로 단기 연수도 실시하였다.

표 III- 21.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개최 실적 (2018년 중)

연수주제	참석인원
1차 외화자산운용 (3월 6일~3월 9일)	6개국 9명
2차 통화정책 (4월 17일~4월 20일)	9개국 18명
3차 경제통계 (6월 19일~6월 22일)	8개국 9명
4차 내부경영 (9월 4일~9월 7일)	12개국 17명
5차 금융안정 (10월 23일~10월 26일)	6개국 16명
6차 지급결제 (11월 13일~11월 16일)	10개국 16명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확대

한국은행은 2018년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또는 협의체에 출자금 3억 5,449만 달러, 출연금 2,208만 달러 등 총 3억 7,657만 달러 상당액을 납부하였으며 2018년 말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출자·출연금모는 총 165억 달러에 이른다. 2018년에는 주로 국제개발협회(IDA)의 제18차 재원보충에 참여하기 위한 출자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 관련 출자 등에 따라 출자·출연금이 증가하였다.

표 III- 22.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백만 달러)

	2017년 말(A)	2018년 말(B)	증감(B-A)
출자금	15,191	15,545	354
IMF	11,861	11,861	0
IBRD	263	263	0
IDA	1,693	1,840	147
ADB	293	293	0
AfDB·AfDF	439	473	34
AIIB	449	598	149
기타	193	217	24
출연금	933	955	22
IMF	72	72	0
IBRD	34	34	0
ADB·ADF	605	627	22
IDB·MIF	161	161	0
IIC	40	40	0
기타	21	21	0
출자·출연금 합계	16,124	16,501	377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18년 말 한국은행의 IMF에 대한 용자 규모는 3억 4,567만 SDR로 이 중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에 따른 용자규모는 2억 6,000만 SDR,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PRGT,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차입약정⁸⁵⁾에 따른 용자 규모는 8,567만 SDR이다. 2018년 중 총 용자규모는 전년대비 7,289만 SDR 감소하였다. 이는 빈곤 감축 및 성장지원기금 차입약정에 따른 용자가 6,401만 SDR 증가하였으나 IMF가 신차입협정에 따른 용자액 중 1억 3,690만 SDR을 상환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 23. IMF에 대한 용자 현황

(백만 SDR)

	2017년 말	2018년 중		2018년 말	증감(B-A)
	(A)	용자	상환	(B)	
NAB	397	0	137	260	-137
PRGT	22	65	1	86	64
계	419	65	138	346	-73

자료: 한국은행

85) IMF가 저소득국가에 대한 양허성 용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체결하였으며 2013년 처음 용자를 실시하였다.

참고 III-3.

이주열 총재, BIS 이사직 수임

이주열 총재는 2018년 11월 11일 BIS 본부(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정례 BIS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3년으로 2019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BIS 이사회는 BIS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국제경제·금융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BIS의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연직 이사(6명), 지명직 이사(1명), 선출직 이사(최대 11명) 등 18명⁸⁶⁾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 24. BIS 이사회 구성¹⁾

	대상	정원	임기
당연직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영국 중앙은행 총재	6명	총재직 수행기간
지명직	미 뉴욕연준 총재	1명	3년 (연임가능)
선출직 ²⁾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캐나다, ECB, 멕시코, 중국, 브라질, 인도, 한국 중앙은행 총재	11명	3년 (연임가능)

주: 1) 2019.1월 기준

2) 당연직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중 이사회가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자료: BIS

특히 이사들은 경제자문위원회(Economic Consultative Committee) 당연직 위원으로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⁸⁷⁾ 및 산하 위원회 논의 의제를 제안하고 의장 선출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고 있다.

이번 이사직 수임은 우리나라가 1997년 BIS에 정식 가입한 이래 처음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점과 이주열 총재가 지난 2014년부터 BIS 총재회의 및 주요 현안 논의에 기여한 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사회 참여를 통하여 국제금융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상호관심사, 현안 이슈 등에 대해 대면 또는 유선으로 언제든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협력체널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림 III- 15. BIS 사무총장 방한¹⁾ (2018년 11월 20일)



주: 1) 이사선임 직후 이사회 업무 전반에 대해 브리핑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방문한 BIS 어거스틴 카스텐스(Agustin Carstens) 사무총장
자료: 한국은행

86) BIS는 2016년 11월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연직 이사가 추천하는 지명직 이사를 축소(6명 → 1명)하고 선출직 이사를 확대(9명 → 11명)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의결하였으며, 이사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동 개정정관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87) BIS 회원국 중 주요 30개국 총재가 참여하는 정례회의(연 6회)로 세계경제동향, 국제금융경제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며 국제금융, 지급결제 등에 관한 각종 산하위원회에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7. 조사통계업무

가. 조사연구업무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성장, 물가, 고용, 통화·금융, 국제경제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

(1) 본부의 조사연구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2018년 중 경제 현안 관련 조사연구 업무는 먼저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의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 및 불확실성 경로 등을 통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고,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을 통해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소비, 투자 및 정책여건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경제 성장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경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비와 관련하여 서비스소비의 변동요인을 평가해⁸⁸⁾ 보는 한편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해외소비의 증가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였다.⁸⁹⁾ 2018년 2/4분기 이후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의 경우 부문별 여건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회복 시기를 전망하였다.⁹⁰⁾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재정활동의 성장제고 효과를 추정하였다.⁹¹⁾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수출의 내수파급 효과가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배경을 분석하고 수출의 고용 및 투자촉진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⁹²⁾ 아울러 인터넷거래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거래 확대가 고용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⁹³⁾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고용상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고용상황을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⁹⁴⁾ 아울러 핵심 노동연령층(30~54세) 남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하는 배경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⁹⁵⁾

88) 서비스소비 변동요인 점검 및 평가(경제전망보고서, 2018년 7월)

89) 해외소비 변동요인 및 경제적 영향(BOK 이슈노트, 2018년 3월)

90) 향후 설비투자 여건 점검(경제전망보고서, 2018년 10월)

91) 최근의 재정정책 기조(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8년 7월), 우리나라의 재정충격지수 시산 및 시사점(조사통계월보, 2018년 9월)

92)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분석(조사통계월보, 2018년 7월)

93)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18년 12월)

94)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조사통계월보, 2018년 8월)

95)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평가 :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을 중심으로(BOK 이슈노트, 2018년 12월)

물가 측면에서는 근원물가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개인서비스물가 분석 등을 통해 기초적 물가압력의 약화 여부와 향후 전개방향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관리물가의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경기판단과 경제전망의 정도(精度)를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도 지속하였다. 먼저 외국인 카드매출, 온라인구매 데이터 등 새로운 모니터링 지표를 확충하여 모니터링 기반 경기판단 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추세성장을 저하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전망(BOKDSGE) 모형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분기마다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여 경제주체들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장기 조사연구와 관련해서는 고용 문제를 중점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별 연구 결과를 「BOK 경제연구」 등으로 발간한 데 이어, 관련 논문 14편을 하나로 묶은 「고용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총서를 정부·국회·연구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학계의 후속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혁신역량, 재고투자와 경기변동에 대한 동학적 분석, 중앙은행 평판과 인플레이션-실업 관계, 외환보유액과 은행대출,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충 및 교류 강화

연구 역량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먼저 「The Role of Monetary Policy: Present and Future」를 주제로 「2018 BOK 국제컨퍼런스」를 6월 초 개최하였다. 동 컨퍼런스에서는 학계 및 국제기구의 저명 학자들⁹⁶⁾이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정책 관련 종합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도전과제와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9월 중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거시 모형과 전망」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의 거시모형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모형에 대해 제기된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초에는 BIS와 공동으로 「Asia-Pacific Fixed Income Markets: Evolving Structure, Participation and Pricing」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동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위험선호 변화가 신흥국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 수익률 결정요인, 아시아 채권시장의 지표채권 등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아태 지역 채권시장의 발전 과제 등에 대한 활발한 정책토론이 이루어졌다.⁹⁷⁾

또한, 미국 뉴욕 연준(뉴욕, 9월) 및 일본은행 금융연구소(한국은행, 12월)와 제2차 공동 리서

96) 로버트 홀(Robert E. Hall) 스탠포드대 교수 및 마사아키 시라카와(Masaaki Shirakawa) 전 일본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토마스 사전트(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 마틴 우리베(Martin Uribe) 콜롬비아대 교수, 엘렌 맥그라탄(Ellen McGrattan) 미네소타대 교수, 리카르도 라이스(Ricardo Reis) 런던 정경대 교수 등 저명 학자와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J. Waller)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 부총재, 지오반니 델 아리치아(Giovanni Dell' Ariccia) IMF 부국장, 앤드류 필라도(Andrew Filardo) BIS 팀장 등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치 워크숍을 개최⁹⁸⁾하여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이와 함께 IMF 등 국제기구 직원 및 해외 대학 교수들과 생산성, 거시건전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에 관한 공동연구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부서 간 협업연구 강화

조사연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 연구 분위기를 전행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서 간 협업연구를 강화하였다. 연중 총 4차례의 「연구위원회⁹⁹⁾」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조율하였으며, 국내외 공동연구와 부서 간 협업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점 연구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 연구주제에 따라서는 연구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관련 부서의 전문인력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97) BIS의 어거스틴 카스텐스(Agustin Carstens) 사무총장, 신현송(Hyun Song Shin) 조사국장 및 베누아 모종(Benoit Mojon) 경제분석국장 등이 참가하였으며, 기조연설자인 엠마누엘 멘취(Emanuel Monch) 독일연방은행 연구원장을 비롯하여 리카르도 카발레로(Ricardo Caballero) MIT대 교수, 그레고리 더피(Gregori Duffee) 존스홉킨스대 교수, 데이비드 응(David Ng) 코넬대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교수(전 금융통화위원) 등과 미 연준, 일본은행, 홍콩통화청, 태국중앙은행, 인도중앙은행 등 주요 해외 중앙은행의 정책당국자들이 참석하였다.

98) 2017년부터 뉴욕 연준 및 일본은행 금융연구소와의 공동 리서치 워크숍을 매년 번갈아 주관하여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99) 위원장(부총재)과 부위원장(경제연구원장), 10인의 운영위원(주요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지역본부는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금융안정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 편제 및 주요 현안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구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지역본부는 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분기 작성하여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아울러 전국적 관심도가 높은 지역 주력산업(IT·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운송·관광 등 전국 경기와 관련이 큰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 내용을 「지역경제보고서」 내 현장리포트에 수록하는 등 주력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기업경영분석 등 지역경제의 동향 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편제하였다.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지역본부는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

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취약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택가격 급등, 자영업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지역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자료, 지역경제의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심층분석한 조사연구 자료 등을 작성¹⁰⁰⁾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도 활발히 수행하였다.¹⁰¹⁾ 이 중 4차 산업혁명과 대구경북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광주전남지역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가 청년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원지역경제의 혁신역량 평가 및 제고방안 등 지역사회에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경제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주제를 다룬 보고서를 선별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 공동연구보고서 모음집(통권 제8호)」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우리 경제 현안인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지역본부가 자체조사 또는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한 연구·분석자료를 한데 모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과 정책과제」를 발간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지역사회와의 연구교류 강화

지역본부는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경제의 성장전략,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포럼 등을 다수 개최하였다.

보호무역주의 심화,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충 방안,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지역경제세미나를 활발히 개최

100) 2018년 중 총 78건의 자체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101) 2018년 중 총 55건의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및 2건의 외부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였다.

¹⁰²⁾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담당제¹⁰³⁾ 운영의 일환으로 안동·구미(대구 경북본부), 하당신도시(목포본부), 원주(강원본부)에서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을 위한 차별화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현안 및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경제포럼을 개최¹⁰⁴⁾하여 지역민과 관련 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소통 강화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3) 국외사무소의 조사연구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동향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재국 중앙은행·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현지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현지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¹⁰⁵⁾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충함으로써 최신 정책 동향 및 연구 조류 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금융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을 주제로 국외사무소 워크숍¹⁰⁶⁾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외교류 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였다.

나. 통계업무

한국은행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화·유동성, 예금·대출 금리, 가계신용 등 전통적 통화금융통계 외에도 국민소득(GDP), 산업연관표(I-O), 국민대차대조표(B/S),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와 함께 국제투자대조표,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BSI) 및 소비자동향(CSI) 조사 등 1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big data)를 공식통계 편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데이터, 뉴스기사 데이터 등을 확충하는 한편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 기법 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를 외부전문가와 진행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학계, 정부 등과의 통계협력 업무도 수행하였다.

표 III - 25. 한국은행 작성 국가승인통계 현황

부문	종류
국민계정	국민소득, 국제수지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민대차대조표 ¹⁾ ,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권·채무
통화금융	통화금융통계
가계부문,미시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²⁾
물가지수	생산자물가(PPI), 수출입물가(EPI, IPI)
기업통계	기업경영분석
경제심리	기업경기조사(BSI), 소비자동향조사(CSI), 경제심리지수(ESI)
금융안정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지급결제	지급결제통계
기 타	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³⁾

주: 1) 통계청과 공동 2) 통계청·금융감독원과 공동 3) 금융감독원과 공동
자료: 한국은행

102) 2018년 중 총 30회의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03) 지역본부 관할지역 내 행정·경제중심지로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사연구·모니터링·교류협력 등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 말 12개 지역본부가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104) 2018년 중 총 20회의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105) 2018년 중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06) 1월에는 홍콩주재원, 7월에는 뉴욕사무소에서 개최하였으며 인접 국외사무소 직원 및 본부 관련부서 직원 등이 참여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통계 개선 및 확충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편제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한국은행은 국민소득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임과 동시에 시의성 및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국민계정의 2015년 기준년 개편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금융안정 관련 미시분석 수요에 맞추어 구축된 「가계부채DB」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계부채DB 분석시스템」을 개발(1월)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¹⁰⁷⁾ 그리고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 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기업경영분석 및 산업별 대출금 통계의 업종을 개편하였다.

아울러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 및 소득 계정,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 작성 등을 준비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여건 포착 및 통계의 시의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기업경기조사(BSI) 및 소비자동향조사(CSI)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하여 표본개편을 실시하였다. BSI는 2016년 법인세 신고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개편을 진행하였으며 시험조사를 거쳐 6월부터 새로운 표본에 의한 통계 작성결과를 공표하였다. CSI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표본개편을 실시한 후, 시험조사를 거쳐 10월부터 작성결과를 발표하였다.

107) 가계부채DB의 이해와 활용(조사통계월보, 2018년 9월)



자료: 한국은행

국내외 통계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경제통계」라는 주제로 「2018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을 개최(10월)하였다. 동 포럼에서 국내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계기법, 가계부채DB 이용 등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관련 최신 이슈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그리고 OECD와 통계청이 공동 주관한 「제6차 OECD 세계포럼」(11월 27~29일, 인천 송도)

에서 「복지의 측정(Measuring Well-being)」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를 통하여 인적자본 및 무료디지털 서비스 가치 측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연구결과들을 소개하였다.

한편 통계청과의 통계협력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내 통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IMF 및 OECD 통계국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통계 관련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11월).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 등이 개최한 국제회의 및 실무 워크숍 등에 참가하여 DGI¹⁰⁸-2 이행 등 새로운 국제통계기준의 안정적인 이행 및 정착 방안과

108) Data Gaps Initiative: 2009년 G-20회의(런던)에서 시작된 국제 통계 개발·개선 사업으로 IMF와 FSB 주도하에 주요 국제기구(BIS, ECB 등) 및 G-20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CDS, 구조화사업, 비은행금융기관 대외익스포지)을 완료(DGI-1)한 후, 2016년부터 2단계 사업(파생상품, 대외직접투자, 통계공유 등)을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DGI-2).

같은 현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국제적 네트워크도 확대하였다.

통계서비스 향상

한국은행은 빅데이터, 디지털 경제 등의 금융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개정판(9판)을 발간하였다. 독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 속 활용사례, 카툰 등을 포함시키고 책자 전반에 시각적 요소를 강화하였다. 또한 대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제통계지표 해설 강좌(연 85회)」를 개최함으로써 통계의 홍보채널을 구축하고 경제통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 밖에 한국은행 홈페이지 메인메뉴에 ‘경제통계’ 항목을 신설하고 콘텐츠를 확충하였으며, 통계전용 홈페이지인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기능 개선을 목표로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8. 국고 및 증권업무

가. 국고업무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국고금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고,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시기도 한다. 아울러 국고금 수급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수납 및 지급 현황

국고금 수납업무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¹⁰⁹⁾에서 취급하고 있다. 2018년 중 국고대리점 등을 통한 국고금 수납규모는 438조 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수입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39조 원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발행자금 등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고금 지급업무는 국고전산망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 지출관의 국고금 이체요청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권자 계좌로 국고금을 지급한다. 2018년 중 채권자 계좌를 통한 국고금 지급 규모는 667조 원으로 전년대비 60조 원 증가하였다. 또한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상환자금 등을 정부예금으로부터 지급하고 있다.

표 III- 26. 국고금 수납 및 지급

(조 원)

	2016	2017(A)	2018(B)	증감(B-A)
총수납				
국고대리점 등 수납	366	399	438	39
정부예금 수납 ¹⁾	1,210	1,240	1,391	151
총지급				
채권자 계좌 지급	583	607	667	60
정부예금 지급 ¹⁾	978	1,015	1,141	126

주: 1) 국고계정 간 대체 포함

자료: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현황

한국은행은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유형에 따라 수납대리점과 수납점으로 구분하는데, 수납대리점이란 은행 영업점, 수납점이란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원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영업점을 의미한다. 2018년 말 기준 국고대리점은 1만 7,052개로 2017년 말에 비해 86개 증가하였다.

2018년 중 국고대리점을 통한 수납금액은 423조 원으로 국세수입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52조 원 증가하였다. 대리점 유형별로 보면 수납대리점이 405조 원으로 전체 수납금액의 대부분인 96%를 차지하였다.

109) 2008년부터 국고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을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다.

표 III - 27. 국고대리점 현황¹⁾ 및 수납금액

(개, 조 원)

		2017(A)	2018(B)	증감(B-A)
개수	수납대리점	6,912 (22)	6,894 (22)	-18 (-)
	수 납 점	10,054 (6)	10,158 (6)	104 (-)
	계	16,966 (22)	17,052 (22)	86 (-)
수납금액	수납대리점	354	405	52
	수 납 점	17	17	0
	계	371	423	52

주: 1) ()내는 대상기관 수

자료: 한국은행

국고전산망 운영

한국은행은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지급을 실시간 전자이체 처리하여 재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고금 수납, 국세 환급 등 대량의 자료는 지정된 시간에 일괄 처리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2018년 중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여 차례의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장애 시 이메일 등 대체매체 혹은 재해복구센터¹¹⁰⁾를 이용하여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였다. 2017년부터는 수작업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중 국고전산망을 이용한 일평균 처리 규모는 383.4천 건, 17.1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5%, 10.3% 증가하였다. 이는 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국고여유자금 운용 및 국고금 지출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다.

표 III - 28.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일평균)

(천 건, 조 원, %)

		2017	2018	증가율
건수	실시간 전자이체	41.7	43.9	5.3
	일괄 처리	335.8	339.5	1.1
	(국고금 수납)	302.6	304.3	0.6
	(국세 환급)	33.2	35.2	6.0
	계	377.6	383.4	1.5
금액	실시간 전자이체	13.6	15.0	10.3
	일괄 처리	1.9	2.1	10.5
	(국고금 수납)	1.6	1.8	12.5
	(국세 환급)	0.3	0.3	0.0
	계	15.5	17.1	10.3

자료: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및 현황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8년 한도는 40조 원으로 2017년과 동일하였다.

표 III - 29.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10억 원)

	2017(A)	2018(B)	증감(B-A)
통합계정	30,000	3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	8,000	-
양국관리특별회계	2,000	2,000	-
계	40,000	40,000	-

자료: 한국은행

2018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규모는 평잔 기준 1.1조 원으로 전년대비 0.3조 원 감소하였으며 누계액 기준으로도 8.0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7.0조 원 줄어들었다. 이는 연중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일시차입 수요가 둔화된 데 기인하였다.

110) 주전산센터가 마비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를 위한 백업 전산시스템이다.

표 III- 30. 대정부 일시대출 평잔 및 누계액

(조 원)

	2015	2016	2017(A)	2018(B)	증감(B-A)
평균잔액	3.2	1.5	1.4	1.1	-0.3
누계액	66.0	11.7	8.0	1.0	-7.0

자료: 한국은행

나. 증권업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고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위탁에 따라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의 발행·상환·등록사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고채권¹¹¹⁾은 경쟁입찰 등을 통해 97.4조 원이 발행되고 77.1조 원이 상환되었다. 그 결과, 2018년 말 국고채권 발행잔액은 2017년 말(546.7조 원)보다 20.3조 원 늘어난 567.0조 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장기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장기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20년, 30년, 50년 만기 국고채권 발행잔액이 증가하였다.

재정증권¹¹²⁾은 경쟁입찰을 통해 연중 2조 원 발행되었으며, 연내에 전액 만기 상환되었다.

표 III- 31.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10억 원)

	2017년 말		2018년 중		2018년 말
	잔액	발행(A)	상환(B)	순발행(A-B)	잔액
국고채권	546,715	97,406	77,077	20,329	567,044
3년	51,059	19,505	23,367	-3,862	47,197
5년	109,518	19,870	25,150	-5,280	104,238
10년 ¹⁾	209,004	23,566	28,060	-4,494	204,510
(물가연동)	10,497	940	2,049	-1,109	9,388
20년	108,253	9,751	500	9,251	117,504
30년	67,562	22,589	-	22,589	90,151
50년	1,319	2,125	-	2,125	3,444

주: 1) 물가연동국고채권(10년물) 포함

자료: 한국은행

표 III- 32.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

(10억 원)

	2015	2016	2017	2018
발행	37,510	20,940	7,940	2,000
상환	37,510	20,940	7,940	2,000

자료: 한국은행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¹¹³⁾과 마찬가지로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채권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5개 외국 중앙은행 및 1개 국제금융기구와 증권 커스터디 업무 이용약정을 맺고 있으며, 증권 보관, 증권 및 대금 결제, 원리금 수령, 거래내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은행 간 국제협약¹¹⁴⁾에 참여하여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111) 정부가 중장기 재정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다.

112) 정부가 회계연도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정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 국채이다.

113) 현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NY),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중국인민은행(PBOC), 호주 중앙은행(RBA), 프랑스 중앙은행(BDF), 독일 중앙은행(DBB), 캐나다 중앙은행(BOC),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등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I- 33.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의 주요 내용

대상기관	대상증권	주요 업무
외국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증권 보관, 증권 및 대금 결제, 원리금 수령, 원천징수, 거래내역 관리 등

자료: 한국은행

다. 기금관리업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는 정부의 위탁업무로서 수입금의 징수, 지출금의 지급 및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말한다.

표 III- 34. 한국은행 기금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

기금명	설치목적 및 주요 업무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	<p>정부의 여유자금을 통한 관리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계정: 국고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일반회계 예탁,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 • 용자계정: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 • 차관계정: 국제협력기구, 외국 정부·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을 관리
공적자금상환기금	<p>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2003년에 설치</p> <p>2003~2006년 중 부담한 총 49조 원의 채무를 2027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p>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p>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86년에 설치</p> <p>매년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p>

자료: 한국은행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은 국고채권 발행, 예탁금의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연중 159.9조 원을 조달하여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및 외국환평형기금 예탁 등으로 운용하였다. 용자계정은 용자금의 원리금 회수 등으로 0.7조 원을 조달하여 국책사업에 대한 용자 등으로 운용하였다. 차관계정은 예탁금의 원리금 회수 등으로 0.2조 원을 조달하여 일반회계 진출 등으로 사용하였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등으로 3.4조 원을 조달하여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중 정부 출연금 415억 원, 한국은행 출연금 415억 원 등 830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¹¹⁵⁾ 2018년 말 전체 가입자 수는 27.6만 가구로 2017년 말 대비 1.9만 가구 감소하였다.

표 III- 35. 기금 조달(운용) 현황

(10억 원)

	2017(A)	2018(B)	증감(B-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181,272	159,873	-21,399
용자계정	1,697	656	-1,041
차관계정	256	221	-35
공적자금상환기금	15,894	3,427	-12,46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83	83	0

자료: 한국은행

한편 3개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MMDA, RP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114)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BIS가 참여하는 국제회계가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1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축만기 시에 저축가입자에게 연 0.9%~1.5%(저소득 가입자는 연 3.0%~4.8%)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9. 대외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UCC 동영상 공모전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새로 개최하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확충하는 등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중앙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한편 국민들의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가. 국민과의 소통 확대

한국은행은 조사연구자료의 발간·배포, 각종 회의·행사 개최,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 화폐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조사통계월보」, 「BOK 경제연구」, 「해외경제포커스」 등 총 399건의 간행물과 339건의 보도자료 및 보도참고자료를 생산·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 주요업무와 더불어 고용구조 변화, 압호자산과 같은 최신 이슈에 대한 연구 및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차보고서」, 「지역경제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와 기준금리 조정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외부 전문가 또는 일반 국민

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수립 및 업무수행에 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대국민 소통의 기회로 삼았다. 먼저 2018년 처음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UCC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응모작 202편 중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한국은행과 관련된 미담이나 경험담 등을 소개하는 「한국은행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통화정책 경시대회¹¹⁶⁾」를 통해서도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관점에서 경제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상호토론을 축소하고 결선대회 진출팀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참가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통화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학계와 교환하고 한국은행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힘썼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폭넓은 정보 공유 및 실시간 소통을 위하여 온라인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였다. 우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14개 홈페이지를 통합 홈페이지로 재구축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메뉴체계를 개편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이미지·동영상 등 시각 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정보 전달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한국은행 소셜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등)를 메인화면에 배치하여 정보전달 경로를 다양화하였다.¹¹⁷⁾

116)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모의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국 56개 대학 88개 팀 총 352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117)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 4>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 가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한국은행

표 III- 36. 홈페이지(메인) 방문자 수 (기간 중)

	2016	2017	2018 ¹⁾
홈페이지 방문자 수	2,477	2,454	2,861

주: 1) 2018년 5월 16일 이후 통합 홈페이지 가동
 자료: 한국은행

또한 한국은행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2018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 이벤트」 등의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여 이용자들이 퀴즈를 풀면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 업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주요 보도자료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게시하고, 유튜브를 통해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한은금융강좌, BOK 국제컨퍼런스 등 각종 동영상 자료를 적극 제공하였다.

표 III- 37. 한국은행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운영 현황¹⁾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플리커	카카오 스토리
개설시점	2013년 7월	2014년 8월	2014년 8월	2014년 8월	2014년 10월
수록 콘텐츠 수(개)	724	1,261	1,092	1,476	893

주: 1) 2018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일반인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화폐와 금융경제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는 화폐박물관에는 2018년 중 26만 4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한·중·일 고대 화폐의 흐름」 기획전을 통해 한중일 최초의 주화, 교역에 널리 쓰인 화폐 등 80여점의 고대·중세 화폐를 전시하였으며, 화폐광장 전시코너를 개편하고 2층 전시장 환경조성 공사를 시행하는 등 관람시설도 개선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표 III- 38. 화폐박물관¹⁾ 관람자 수 (기간 중)

	(천 명)		
	2016	2017	2018
관람자 수	277	255	264

주: 1) 지역본부 화폐전시실 포함
자료: 한국은행

또한 예술계를 후원하기 위해 창립 이후 꾸준히 미술품을 구입해 왔으며 2002년 한은갤러리 개관 이후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한국은행 소장 미술 명품전」 기획전을 개최하여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100인 100선」 도록에 수록된 주요 작품 89점을 계절별로 3차에 나눠 공개하였다.

이 밖에도 외환심사, 화폐발행, 통화정책 등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질의와 민원에 신속하고 친절히 응대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표 III- 39.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¹⁾ (기간 중)

	(건)		
	2016	2017	2018
접수건수	1,098	1,277	1,234
처리건수	1,098	1,277	1,234

주: 1) 민원사무처리부 사후 등록 등으로 변동 가능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21. 한국은행 임직원 사회봉사 활동 (2018년 12월 15일)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한국은행 직원들은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무료급식, 요양원 방문 등의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결손아동, 독거노인 등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도 수시로 실시하였다.

참고 III-4.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 가동

한국은행은 기존의 메인 홈페이지뿐 아니라 경제교육, 화폐박물관, 경제연구원 등 각각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분산 운영해오던 14개 홈페이지를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로 재구축하여 2018년 5월 16일부터 가동하였다. 이로써 원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홈페이지로 접속하였던 이용자들은 통합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는 아우르는 정보가 방대한 만큼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메뉴체계와 화면구성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되었다. 특히 경제교육, 화폐박물관 등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수요가 많은 주제들을 대메뉴와 메인화면 등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배치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미지, 동영상 등 시각 자료의 활용을 확대하여 정보 전달력을 향상시켰다. 간행물 등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한편, 미디어센터를 신설하여 기자회견담회 등 각종 영상자료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메인 화면에 편입하였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의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외부 검색포털을 통해서도 통합 홈페이지 수록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통합 홈페이지 가동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영상 등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들을 확충하고 피드백 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통합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III- 22.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료: 한국은행

나. 대국민 경제교육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및 한국은행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경제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현장 경제교육을 보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경제분야를 시의성있게 강의하는 「한은금융강좌」를 매주 개최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 직원들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상공회의소 등에 경제강좌도 확충하였다. 대학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경영경제특강」 및 「경제의 이해」 과목을 정규과정으로 연중 개설하였으며, 이외에도 1학기에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 「정책과 시장연구」, 2학기에는 경인교육대학교에 「경제와 금융생활」 과목을 각각 개설하였다. 또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수원대학교 등 지역대학에도 「중앙은행론」 강좌를 정규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상·하반기에 1회씩 경제강좌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여타 다양한 현장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청소년 대상 교육의 경우에는 「청소년 경제강좌」와 「청소년 경제캠프」 등 청소년을 직접 지도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교사직무연수」, 「경제교육봉사단」¹¹⁸⁾ 운영 등 간접방식의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¹¹⁹⁾ 차원

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장경제체제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8년 중 총 1,336회에 걸쳐 6만 7,920명을 대상으로 현장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III- 40. 현장 경제교육 실적

	2016	2017	2018
청소년교육	703 (34,106)	748 (31,483)	749 (33,659)
일반인교육	812 (45,249)	703 (37,680)	587 (34,261)
합계	1,515 (79,355)	1,451 (69,163)	1,336 (67,920)

(회, 명)

주: ()내는 교육인원 수
자료: 한국은행

다음으로, 경제교육 교재 개발 및 콘텐츠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들이 경제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구성물 콘텐츠, 이러닝(e-learning) 동영상, 경제교육 책자, 한은 금융강좌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특히 종합구성물 콘텐츠는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을 주제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게 드라마, 컴퓨터 그래픽 등을 활용한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경제교육 책자로는 경제금융용어 해설집인 「경제금융용어 700선」과 금융안내 책자인 「알기 쉬운 금융생활」을 발간하였다.¹²⁰⁾ 한편 이러한 경제교육 교재 및 콘텐츠를 국민들이 더욱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경제교육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한국은행 대표 홈페이지에 통합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국민들이 시간과 장

118) 대학생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119)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금융소외계층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회계층이 금융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120) 교재개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 5> 「경제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계적으로 경제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

한편, 대국민 경제교육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였다. 경제교육 전공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경제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은행 경제교육포럼」을 2회 개최하였다. 동 포럼의 의견들은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등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OECD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¹²¹⁾가 제시한 2018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OECD INFE를 중심으로 한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21) 금융경제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국제표준(모범사례)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8년 5월에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특별기구이다.

참고 III-5.

경제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

한국은행은 대국민 경제교육 확충을 위해 경제교육 교재 및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먼저, 국민들의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경제교육용 책자 2권을 발간하였다.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최신 경제금융용어를 사전 형식으로 해설한 책자로, 독자들에게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과 국내외 금융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되었다. 「알기 쉬운 금융생활」은 기존 「서민들의 금융생활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한 책자로, 국민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금융상식과 자산부채관리, 노후설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위 책자들은 단행본으로 발간되었으나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검색해 볼 수 있다.

그림 III-23. 「경제금융용어 700선」(좌), 「알기 쉬운 금융생활」(우)



자료: 한국은행

다음으로, 온라인 경제교육의 강화를 위해 종합 구성물 콘텐츠, e-learning 동영상 등 온라인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유

튜브에 게재하였다. 특히 「알아두면 쓸모 많은 지급결제 이야기」 등 종합구성물 콘텐츠는 재연드라마, 컴퓨터 그래픽 등이 반영된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한국은행 창립 이후 화폐사»,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등 e-learning 동영상은 자료화면과 강의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한은금융교과 동영상 47편을 한국은행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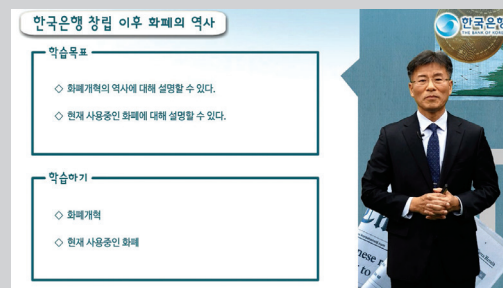
앞으로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온라인 경제교육 교재 및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함으로써 대국민 경제교육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III-24. 「알아두면 쓸모 많은 지급결제 이야기」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25. 「한국은행 창립 이후 화폐사」



자료: 한국은행

IV

경영 상황

1. 조직 운영	87
2. 재무 현황	95

2018 경영 상황

조직 운영



차세대시스템개발단 신설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구축)



디지털혁신 연구조직 신설
(암호자산, 디지털 금융혁신연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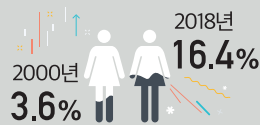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직무권한 하부위임 등)

인력 운영



채용인원 확대



여성 관리자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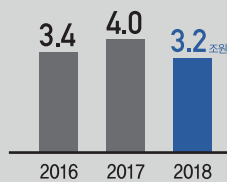


신교육체계 전면시행

재무 현황



자산



손익



당기순이익 처분

1. 조직 운영

한국은행은 2018년 중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외자운용의 효율성 도모, 암호자산 연구 필요성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조직을 정비하였다.

가. 조직 체계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신설

한국은행은 2018년 본격적으로 구축 단계에 돌입한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인 차세대시스템개발단을 신설하였다. 차세대시스템개발단은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하고 인프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반과 시스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반으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 1월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9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산정보국 신회계결제시스템구축팀과 IT지원팀을 폐지하여 IT담당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외자운용 조직 개편

한국은행은 외자운용 부문에서 투자전략(middle)-투자운용(front)-운용지원(back)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운용부문의 효율화를 위해 2018년 7월 외자운용원의 조직을 개편하였다.

우선 외자운용원장 직속으로 운영되던 투자전략 부문에 외자기획부를 신설하여 외화자산 증가 및 투자상품 다양화에 따른 운용전략 및 리스

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투자운용1부와 2부를 투자운용부로 통합하여 운용부문에서 정보 공유 확대와 일관된 투자전략 적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외자운용원은 3부(외자기획부, 투자운용부, 운용지원부) 10팀 체제로 개편되었다.

암호자산 등 디지털혁신 연구 강화

2017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관련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2018년 1월 가상통화연구반을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에 신설하였다. 가상통화연구반은 관련 부서들과 함께 TF를 조직하여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혁신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연구와 대내외협력 업무를 수행하였다.

국제협력 기능 강화

2017년 1월 국제협력국이 신설된 이후 국제기구 회의 참여와 통화스왑 등 금융협력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역할도 확대됨에 따라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서 내에 교류협력부를 신설하였다. 교류협력부 산하에는 외국 중앙은행 직원대상 행사 개최 및 한국은행 방문 교류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대외교류팀과 개도국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협력팀을 배치하여 대외교류 협력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인사담당 조직체계 개편

한국은행은 2018년 5월 부총재 직속의 인사운영관 직책을 신설하여 기존에 인사경영국 인

사팀이 담당하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한편 인사운영 외 인적 자원 관리 업무인 준법관리, 복무, 평가 등은 인사경영국에 인사제도팀을 두어 계속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조직 운영방식

직무권한 하부위임 추진

한국은행은 경영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직무권한 하부위임을 전행적으로 추진하였다. 2018년 4월부터 부서 간 협의를 거쳐 6월 중 내부경영 부문을 중심으로 집행간부와 부서장의 직무권한 60여건을 하위 직책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8년 7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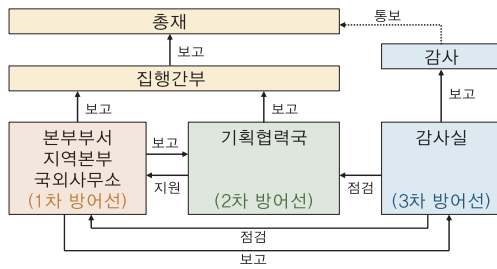
이와 함께 결재단계 및 대면보고 축소 등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3중 방어모형(3-lines of defense model)에 따라 운영리스크¹²²⁾를 관리하고 있다.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각 부서에서는 부국장을 ‘운영리스크 관리자’로 지정하여 동 관리자의 통할 하에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2차 방어선으로 기획협력국 내에 운영리스크 및 업무연

속성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전행적인 차원에서 관련 업무의 기획·조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사실은 3차 방어선으로서 내부 감사 등을 통해 1·2차 방어선의 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IV-1.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구조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운영리스크 관리 업무는 「리스크 레지스터¹²³⁾」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리스크 레지스터는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등을 포함한 리스트로 대내외 업무여건 변화, 행내외 발생 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¹²⁴⁾

각 부서에서는 매년 리스크 레지스터 기반의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RCSA, Risk & Control Self-Assessment)을 실시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인식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및 행내외 발생 사건 분석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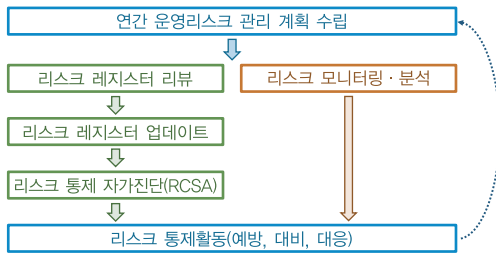
122) 부적절한 업무프로세스나 시스템, 직원관리 미흡,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조직의 목표 달성이 저해되거나 재무적 손실, 평판 훼손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한다.

123) 리스크 관리와 감사 업무의 체계적인 연계 수행을 위해 2015년 도입한 리스크 레지스터는 리스크와 함께 관리 조직, 반복패치 여부,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에 대한 평가, 통제활동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24) 2018년 감사원의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와 같은 업무수행방식이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밖에 전세계 중앙은행 등의 운영리스크 관리자 모임인 IORWG(International Operational Risk Working Group)¹²⁵⁾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각국 중앙은행의 운영리스크 및 업무연속성 관리와 관련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

그림 IV- 2.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흐름도



자료: 한국은행

한편 사이버공격, 자연재난 등 다양한 위협 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속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고 있다. 2018년에도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업무지속계획의 준비성 및 유효성을 점검하였으며, 모의훈련 결과를 토대로 업무지속계획을 보완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유사시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¹²⁶⁾

다. 교육훈련

신교육체계 전면시행

2018년부터 한국은행 신교육체계의 전면시행을 통해 교육훈련과 조직성고가 연계된 역량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신교육체계 직무연수 기초과정은 정책·조사, 제도·법, 현업·경영 등 3개 과목을 통해 전반적인 기본업무 지식을 전수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응용과정은 직무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학술·이론 외에 경제현안·실무 관련 콘텐츠를 포함하였다. 또한 조직개발연수는 중앙은행 직원이 갖추어야 할 직급별 필요역량, 품성·교양, 조직가치 함양 등 조직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였다.

표 IV- 1. 신교육체계 운영

세부과정		운영방향
직무연수	기초	기본업무지식 전수
	응용	직무전문역량 향상
조직개발연수		직급별 필요역량, 품성·교양, 조직가치 함양

자료: 한국은행

신교육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내부 자문기구인 「교육과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총 2차례 회의를 통해 진행적 관점에서 연수내용의 업무연계성, 과정개설의 우선순위 등을 협의·평가하고 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 최대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인 ATD(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ICE(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sition)에 참석하여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패러다임과 학습방식의 변화 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은행 인재개발 현황과 비교·평가하고 신교육체계를 보완할

125)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앙은행(ECB 포함), BIS 및 IMF(2018년 가입) 등 95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2011년 12월에 가입하였다.

126)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2018년도 비상대비 확립 유공포상」시 한국은행은 중점관리대상기관(7,027개)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HRD분야 최신 트렌드 및 이슈에 대한 일련의 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하여 인재개발 담당 직원들이 업무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직무연수와 실무 간의 연계성 강화

신교육체계 시행에 맞춰 직무연수의 세부 연수 프로그램을 실무와의 연계성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다. 먼저 실습위주의 「학술 논문 replication」 과정을 신설하여 직원들이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관련 연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빅데이터와 이자율 기간구조 분석」,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R중급」 과목을 개설·운영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 규정입안의 실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감사실무」 등 실제 업무수행에 기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수과목을 꾸준히 개설하였다. 이밖에 한국은행 조사·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계량 및 통계패키지 분야의 연수과목을 난이도별로 개설하여 단계적으로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고급직무연수의 경우 국외 저명교수와의 면담 및 토론 기회를 부여하는 Office Hour, 관심 있는 직원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Open Class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연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한편 직무연수 참가가 업무성과로 귀결되었는지에 대한 사후서베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연수와 업무의 연계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확충

신교육체계 시행에 따라 조직개발연수 중 직급별 과정을 역량강화과정과 승진자과정으로 구분하고 이전보다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최신 디지털 기술의 흐름을 익히기 위한 「디지털 스마트 work」, 관리자로서의 품성교육을 위한 「책임자 리더십」, 원만한 조직운동을 위한 「젠더감수성 및 젠더간 갈등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직개발연수 공통과정은 조직 전체의 목표달성과 변화를 위해 리더십, 발표능력 제고, 소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독서경영 프로그램, 리더십 지식콘텐츠 학습 프로그램 등 관리자들의 리더십과 통찰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글로벌 직무역량 및 경력개발 지원

직원들의 글로벌 직무역량 확충과 외국중앙은행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외업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밖에 퇴직예정자의 은퇴 후 생애설계와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퇴직준비연수를 사전집합연수, 역량개발연수, 집중선택과정 등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다.

라. 인력 운영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사명감, 조직융화력 등 기본소양은 물론 전문지식 및 직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화에 대

그림 IV- 3. 2019년도 신입직원 입학식 (2019년 1월 7일)



자료: 한국은행

한 사회적 기대에도 적극 부응하였다.

2018년에는 신입 종합기획직원(G5) 59명을 포함해 모두 129명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2017년에 이어 1990년대 이후 최대 수준이다.

표 IV- 2. 연도별 직원 채용 규모

(명)

채용구분	2015	2016	2017	2018
종합기획직원 ¹⁾	70	64	70	59
일반사무직원	20	30	30	19
일반기능직원	5	7	21	38
기타	9	3	8	13
합 계	104	104	129	129
남	54	50	69	95
여	50	54	60	34
(비중)	(48.1)	(51.9)	(46.5)	(26.4)

주: 1) 채용실시연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성별, 학력, 출신학교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계속 실시하고 외부위원 면접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시 공개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른 지방인재 채용, 상업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도 병행하였다.

아울러 인력운용의 전문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리스크관리팀장 등 개방형 직책과 박사급 조사연구인력, IT 전문가, 경력직 변호사 등 총 13명의 외부 전문가를 공모 절차를 통해 채용하였다. 또한 신입 종합기획직원(G5) 채용 시 별도 전형을 통해 외국어 능통자 3명을 선발하였으며, 일반사무직원(C3) 채용 시에도 경력직원을 14명 선발함으로써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청원경찰, 서무원 등 일반기능직원 채용 확대 등으로 전체 채용직원 중 여성인력 비중은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여성 관리자



자료: 한국은행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 말 4급 이상 여성 비중이¹²⁷⁾ 16.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마.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한국은행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청렴·반부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경조사비 가액 기준, 외부장의 사례금 상한액 등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직무 관련자인 퇴직임직원과의 사적접촉 신고 의무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127) 표 IV- 3. 한국은행 여성 관리자¹⁾ 인원

(명, %)

	2000	2005	2010	2017	2018
여성관리자	35	76	90	190	210
비중 ²⁾	3.6	7.1	8.2	15.2	16.4

주: 1) 종합기획직원 4급 이상 중 여성직원

2) 종합기획직원 관리자 인원 중 여성 비중

자료: 한국은행

또한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영업일을 ‘청렴 및 청탁금지 강조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주제를 사내 인트라넷 및 외부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였다.

아울러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반부패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청렴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직원을 대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위직원을 초청하여 청렴·반부패 특강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한편 주요 사업에 대한 대외적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2인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차세대회계결제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계약 과정 및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청렴도 및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청렴한 중앙은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바. IT시스템 고도화

2018년 중 한국은행은 IT기술의 발전, 행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T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첫째,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다. 사업 전담조직인 차세대시스템개발단을 신설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단계를 거쳐 2020년에 차세대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차세대 사업을 위해

사업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통관리, 리스크 기반 사업관리, Best Practice를 향한 변화관리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둘째, 조사연구 지원을 위한 데이터 업무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데이터 입수·활용방식 개편, 대량 미시데이터 분석환경 구축, 데이터 워크플로우 자동화 기능 개발 등을 통해 단순·반복적인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데이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IT부문 간의 협업을 통해 최적 솔루션을 신속하게 탐색·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셋째, 사용자 친화적인 IT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IT시스템을 구축 또는 개선하였다. 14개 홈페이지의 통합¹²⁸⁾ 이외에도 기록관리 관련 법률 등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新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모바일, PC 등 접속채널이 상이한 사용자에게 동일한 서비스 및 메뉴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넷째,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 개인정보보호 등 IT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능형 사이버공격 탐지·분석 장비를 도입하였다. IT부문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주기적인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각종 장애 또는 재해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 등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128) 홈페이지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4>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 가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IT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해 IT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에 대비하여 윈도우10 PC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윈도우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노후화된 통신장비 교체를 통해 통신망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사. 통합별관 건축 추진

한국은행은 국가중요시설인 본부 건물들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한층 강화¹²⁹⁾하기 위해 통합별관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1별관은 철거 후 통합별관으로 재건축하고, 근대건축 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2별관과 주 근무공간인 본관은 건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여 건물의 활용성이 제고되게 할 계획이다.¹³⁰⁾

아울러 2별관을 방문자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은행 주변에 공원 및 보행로 등을 확충하여 국민을 위한 개방 및 소통 공간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화폐박물관(사적 제280호)과 한국은행 일대의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문화재의 보존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사업 추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에 사업일체를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절차를 비롯한 사업의 전 과정을 조달청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IV- 5. 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자료: 한국은행

129) 보안강화를 위해 건물 내부공간 및 이동동선을 시설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관리하고, 안전을 위한 내진성능 강화, 전자기펄스(Electro Magnetic Pulse, EMP) 및 화생방 방호설계가 적용된 비상대비시설 확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30) 한국은행 본부 부지에는 구관(준공: 1912년), 본관(1987년), 1별관(1964년), 2별관(1932년) 및 소공별관(1965년) 등 총 5개의 건물이 산재해 있다.

2. 재무 현황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발권력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 및 정부에 대출하거나,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한다. 그러나 국외부문의 외화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시중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함과 동시에 외화자산을 매입·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은 외화증권 및 예치금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의 대부분은 화폐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과 외화예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손익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와 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의 차이, 환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본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법」 제99조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¹³¹⁾하고, 잔여 이익 중 일부를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나머지 순이익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한다.

자산

2018년 말 총자산 규모는 495조 3,046억 원으로 2017년 말의 470조 5,847억 원보다 24조 7,199억 원 증가하였다.

주요 항목을 보면 유가증권 잔액이 381조 2,734억 원으로 2017년 말에 비해 40조 4,015억 원 증가한 반면, 예치금과 어음대출의 잔액

은 각각 19조 4,742억 원, 14조 859억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4조 3,674억 원, 3조 996억 원 감소하였다. 외환평가조정금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8조 6,115억 원 감소하였다.

표 IV- 4. 자산 현황 (기말 기준)

(억 원)

과목	2017(A)	2018(B)	증감(B-A)
자산	4,705,847	4,953,046	247,199
(유가증권)	(3,408,719)	(3,812,734)	(404,015)
(예치금)	(238,416)	(194,742)	(-43,674)
(어음대출)	(171,855)	(140,859)	(-30,996)
(외환평가조정금)	(240,441)	(154,326)	(-86,115)

자료: 한국은행

부채 및 자본

2018년 말 부채 규모는 479조 8,435억 원으로 2017년 말의 455조 5,625억 원보다 24조 2,810억 원 증가하였다.

주요 항목별로는 예금과 화폐발행 잔액이 각각 127조 387억 원, 115조 3,895억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28조 584억 원, 7조 4,819억 원 증가하였으나, 통화안정계정과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의 잔액은 각각 7조 원, 5조 원으로 2017년 말에 비해 6조 5,000억 원, 5조 원 감소하였다.

2018년 말 자본 규모는 15조 4,611억 원으로 2017년 말의 15조 222억 원보다 4,389억 원 증가하였다.

항목별로는 법정적립금이 1조 1,892억 원 늘어난 반면, 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이 7,503억 원 감소하였다.

131)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이 결산상 순이익금의 10%에서 30%로 변경되었다.

표 IV- 5. 부채 및 자본 현황 (기말 기준)

(억 원)

과 목	2017(A)	2018(B)	증감(B-A)
부 채	4,555,625	4,798,435	242,810
(화폐발행)	(1,079,076)	(1,153,895)	(74,819)
(통안증권발행)	(1,707,801)	(1,716,365)	(8,564)
(통화안정계정)	(135,000)	(70,000)	(-65,000)
(예금)	(989,803)	(1,270,387)	(280,584)
(환매조건부매각증권)	(100,000)	(50,000)	(-50,000)
자 본	150,222	154,611	4,389
부채와 자본 총계	4,705,847	4,953,046	247,199

자료: 한국은행

손익

2018년 중 당기순이익은 3조 2,137억 원으로 2017년 중 3조 9,640억 원보다 7,503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외화채권 가격 하락으로 외화채권매매차익이 감소하고 기준금리 인상효과 등으로 통화관리부문의 비용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영업수익은 유가증권이자가 1조 619억 원 증가함에 따라 2017년보다 1조 5,464억 원 증가한 13조 7,889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비용은 통화안정증권이자 및 유가증권매매손이 각각 4,790억 원, 1조 4,609억 원 증가함에 따라 2017년보다 2조 5,186억 원 증가한 9조 5,310억 원을 기록하였다.

표 IV- 6. 손익 현황

(억 원)

과 목	2017(A)	2018(B)	증감(B-A)
총수익	123,880	138,386	14,506
영업수익	122,425	137,889	15,464
(유가증권이자)	(66,457)	(77,076)	(10,619)
(유가증권매매익)	(38,576)	(44,416)	(5,840)
영업외수익	1,455	497	-958
총비용	70,799	95,434	24,635
영업비용	70,124	95,310	25,186
(통화안정증권이자)	(25,791)	(30,581)	(4,790)
(유가증권매매손)	(16,850)	(31,459)	(14,609)
영업외비용	675	124	-551
세전이익	53,081	42,952	-10,129
법인세 등(-)	13,441	10,815	-2,626
당기순이익	39,640	32,137	-7,503

자료: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처분

2018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3조 2,137억 원 중 9,641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354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하였으며, 나머지 2조 2,142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였다.

2018년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표 IV- 7. 대차대조표 (제69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68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백만 원)

과 목	2018 말	2017 말
자 산		
I. 유동자산	475,641,067	451,370,624
1. 현금	1	2
2. 지금은	5,361,015	5,137,100
3. 특별인출권보유	3,831,293	3,615,181
4. 유가증권(주식 2)	381,273,389	340,871,922
가. 국채	16,680,720	14,831,614
나. 정부보증증권등	-	-
다. 외화증권	364,592,669	326,040,308
5. 예치금(주식 3)	19,474,229	23,841,632
가. 당좌예치금	14,676,704	13,348,877
나. 정기예치금	4,797,525	10,492,755
6. 당좌대출	-	-
7. 자금조정대출	-	-
8. 할인어음	-	-
9. 어음대출(주식 4)	14,085,903	17,185,503
10. 증권대출(주식 4)	47	-
11. 환매조건부매입증권(주식 5)	-	-
12. 정부대출금(주식 4)	716,200	1,336,200
13. 국제금융기구대출금(주식 4)	537,528	637,111
14. 외국환	83,682	81,462
15. 대리점	1,623,417	1,281,940
16. 분지점환	-	-
17. 기타자산 (외환평가조정금)	48,654,363 (15,432,554)	57,382,571 (24,044,080)
II. 비유동자산	19,663,500	19,214,090
1. 투자자산	19,145,372	18,697,073
가. 출자금(주식 6)	11,424,683	10,972,501
나. 출자증권	7,713,067	7,716,344
다. 전신전화사용권	54	69
라. 제가입권	7,568	8,159
2. 유형자산	508,871	507,988
3. 무형자산	9,257	9,029
자 산 총 계	495,304,567	470,584,714

과 목	2018 말	2017 말
부 채		
I. 유동부채	471,944,906	447,672,947
1. 화폐발행	115,389,473	107,907,643
2. 통화안정증권발행(주석 7)	171,636,463	170,780,140
3. 통화안정계정	7,000,000	13,500,000
4. 정부예금	9,783,858	9,936,535
5. 예금	127,038,714	98,980,294
가. 당좌예금	53,423,936	46,698,435
나. 결제전용예금	-	-
다. 자금조정예금	3,686,591	1,420,400
라. 별단예금	4,705,736	5,217,950
마. 외화예수금	65,222,451	45,643,509
바. 기타외화예금	-	-
6. 환매조건부매각증권(주석 8)	5,000,000	10,000,000
7. 특별인출권배분	3,739,009	3,659,902
8. 본지점환	-	-
9. 기타부채	32,357,389	32,908,433
(외환평가조정금)	(-)	(-)
II. 비유동부채	7,898,548	7,889,532
1. 차입금	-	-
2. 퇴직급여충당금	185,480	173,188
3. 출자증권발행	7,713,068	7,716,344
부 채 총 계	479,843,454	455,562,479
자 본		
I. 잉여금	15,461,113	15,022,235
1. 이익잉여금	15,461,113	15,022,235
가. 법정적립금	8,809,633	7,620,419
나. 임의적립금	3,437,768	3,437,768
다.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3,213,712	3,964,048
자 본 총 계	15,461,113	15,022,23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95,304,567	470,584,714

표 IV- 8. 손익계산서 (제69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8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백만 원)

과 목	2018	2017
I. 영업수익	13,788,850	12,242,525
1. 수입이자와 할인료	9,177,510	8,225,834
(1) 유가증권이자(주석 9)	7,707,564	6,645,749
(2) 예치금이자	240,841	166,403
(3) 당좌대출이자	70	65
(4) 할인어음할인료	-	-
(5) 어음대출이자	107,026	119,323
(6) 증권대출이자	1	45
(7) 자금조정대출이자	75	68
(8) 환매조건부매입증권이자	28,779	4,248
(9) 정부대출금이자	3,060	4,539
(10) 국제금융기구대출금이자	5,966	4,313
(11) 수입잡이자	1,084,128	1,281,081
2. 수입수수료	150,242	151,713
3. 유가증권매매익	4,441,551	3,857,595
4. 통화안정증권상환익	19,547	7,383
5. 외환매매익	-	-
6. 지금은익	-	-
II. 영업비용	9,530,982	7,012,400
1. 지급이자와 할인료	5,425,402	4,558,851
(1) 예금이자	913,545	550,451
(2) 통화안정계정이자	200,722	211,808
(3) 통화안정증권이자	3,058,062	2,579,048
(4)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주석 10)	197,520	184,426
(5) 차입금이자	-	-
(6) 지급잡이자	1,055,553	1,033,118
2. 지급수수료	156,011	110,381
3. 유가증권매매손	3,145,873	1,684,984
4. 통화안정증권상환손	447	21,306

과 목	2018	2017
5. 외환매매손	184,915	17,529
6. 지금은손	-	-
7. 국제금융기구출연금	24,688	24,688
8. 화폐제조비	112,645	133,013
9. 퇴직급여	31,515	27,999
10. 감가상각비	30,314	25,537
11. 무형자산상각비	5,110	5,296
12. 일반관리비	414,062	402,816
III. 영업이익	4,257,868	5,230,125
IV. 영업외수익	49,701	145,515
1. 자산처분익	1,604	367
2. 잡익	48,097	145,148
V. 영업외비용	12,367	67,499
1. 출연금	10,000	60,000
2. 자산처분손	1,041	6,947
3. 잡손	1,326	552
VI. 법인세등공제전순이익	4,295,202	5,308,141
VII. 법인세등	1,081,490	1,344,093
VIII. 당기순이익	3,213,712	3,964,048

표 IV- 9. 자본변동표 (제69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8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백만 원)

구 분	자본금	이익잉여금	합계
I. 2017년 1월 1일(전기초)	-	13,422,700	13,422,700
II. 정부세입 납부		-2,322,970	-2,322,970
III. 농어가기금 출연		-41,542	-41,542
IV. 당기순이익		3,964,048	3,964,048
V. 2017년 12월 31일(전기말)	-	15,022,235	15,022,235
VI. 2018년 1월 1일(당기초)	-	15,022,235	15,022,235
VII. 정부세입 납부		-2,733,367	-2,733,367
VIII. 농어가기금 출연		-41,467	-41,467
IX. 당기순이익		3,213,712	3,213,712
X. 2018년 12월 31일(당기말)	-	15,461,113	15,461,113

표 IV- 1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69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8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 2019년 2월 28일

제68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 2018년 2월 27일

(백만 원)

과 목	2018	2017	
I.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3,213,712	3,964,048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 당기순이익	3,213,712		3,964,048
II. 이익잉여금처분액		3,213,712	3,964,048
1. 법정적립금 적립	964,114		1,189,214
2. 임의적립금 적립	35,395		41,467
가. 농어가기금출연목적	(35,395)		(41,467)
나. 손실발생대비목적	(-)		(-)
3. 정부세입 납부	2,214,203		2,733,367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재무제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가. 개요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관」 제33조에 의거 제정된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됩니다.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는 중앙은행의 특성상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경우 이익금 처분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석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 자산·부채의 계상 및 평가기준

자산은 취득시점에 계상하고 부채는 부담시점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 유가증권

유가증권 중 채권은 상각후원가로,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취득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 개별법을 적용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대상물에 대한 투자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 중 주식의 취득단가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손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외화환산기준 및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1) 외화환산기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환산 시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연계정인 외환평가조정금계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외화표시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외환매매손익은 원화를 대가로 보유외환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도한 외환의 대응원화금액에서 동외환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환매조건부매매거래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증권을 담보로 한 자금의 대차거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환매조건부매입증권계정에 계상하고,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매각증권계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바. 유형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1)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건물은 정액법을, 건물 이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을 각각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

무형자산 중 개발비는 정액법을, 소프트웨어는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종업원이 부담할 국민연금납입액의 일부를 은행이 대납하고 종업원 퇴직 시에 퇴직금에서 회수하는 국민연금전환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 법인세등

법인세등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와 동 법인세에 부가되는 법인 지방소득세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유가증권

유가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18 말	2017 말
과목	종목		
국채	국고채권	16,680,720,329,419	14,831,614,492,726
정부보증증권 등	-	-	-
외화증권	외국정부채 등	364,592,669,355,619	326,040,308,117,925
합계		381,273,389,685,038	340,871,922,610,651

3. 예치금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18 말	2017 말
과목	예치기관		
당좌예치금	외국상업은행 등	14,676,704,285,187	13,348,877,127,113
정기예치금	외국상업은행 등	4,797,525,103,141	10,492,755,332,524
합계		19,474,229,388,328	23,841,632,459,637

4. 대출금

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18 말	2017 말
과 목	대여처		
어음대출	국내금융기관	14,085,903,000,000	17,185,503,000,000
정부대출금	기획재정부	716,200,000,000	1,336,200,000,000
국제금융기구대출금	IMF	537,527,568,275	637,110,723,750
증권대출	국내금융기관	47,363,160	-
합 계		15,339,677,931,435	19,158,813,723,750

5. 환매조건부매입증권

환매조건부매입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18 말	2017 말
과 목	예치기관		
원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	-	-
외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	-	-
합 계		-	-

6. 출자금

출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18 말	2017 말
과 목	출자대상		
국내출자금	한국수출입은행	1,165,000,000,000	1,165,000,00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645,000,000,000	645,000,000,000
	소계	1,810,000,000,000	1,810,000,000,000
국외출자금	국제금융기구	9,614,682,607,676	9,162,501,271,326
합 계		11,424,682,607,676	10,972,501,271,326

7. 통화안정증권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18 말	2017 말
이표채	157,896,462,837,169	155,820,139,748,343
할인채	13,740,000,000,000	14,960,000,000,000
합계	171,636,462,837,169	170,780,139,748,343

8. 환매조건부매각증권

환매조건부매각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18 말	2017 말
과목	상대처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국내금융기관	5,000,000,000,000	10,000,000,000,000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외국투자은행 등	-	-
합계		5,000,000,000,000	10,000,000,000,000

9. 유가증권이자

유가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18	2017
원화증권이자	443,132,669,144	450,825,399,281
외화증권이자	7,264,431,392,286	6,194,923,681,250
합계	7,707,564,061,430	6,645,749,080,531

10.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18	2017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195,382,829,033	183,501,130,123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2,137,263,467	924,989,661
합계	197,520,092,500	184,426,119,784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영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3-8F
07241

Tel: 02 3787 6600
Fax: 02 783 5890
ey.com/kr

Ernst & Young Han Young
Taeyoung Building, 111, Yeouigongwon-ro,
Yeongdeungpo-gu, Seoul 07241 Korea

Tel: +82 2 3787 6600
Fax: +82 2 783 5890
ey.com/kr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국은행 총재 귀하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한국은행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물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은행의 재무제표는 한국은행의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을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관 제33조에 의거 제정된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관 제33조에 의거 제정된 회계규정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대표이사 徐珍錫 서진



2019년 2월 28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한국은행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부록

1. 한국은행 조직도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3. 경제일지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 한국은행 조직도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 1)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강원, 인천, 제주, 경기, 경남, 강남본부 2)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제주, 경기본부 3) 목포, 전

스크팀, 대외협력팀, 조직관리팀, 예산회계팀
역경제팀
규팀
팀(정보자료반), 커뮤니케이션운영팀(사료반), 뉴미디어팀, 화폐박물관팀
제교육운영팀
반), 정보보호팀(개인정보보호반), 품질관리팀, 전산운영부(회계결제시스템팀, 경영시스템팀, 정책시스템팀(데이터분석반)), 전산 서버팀, 통신팀)
원반), 급여후생팀, 노사협력팀(열린상담반), 경리팀
영팀, 조달관리팀
연수팀, 국내연수팀, 연수지원팀, 교수팀
석팀, 거시재정팀, 국제무역팀, 산업고용팀, 물가분석부(물가동향팀, 물가연구팀), 거시모형부(전망모형팀, 모형연구팀), 국제경제 자유무역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터통계연구반), 통계조사팀, 통계정보팀, 금융통계부(금융통계팀, 자금순환팀, 국제수지팀, 국외투자통계팀, 기업통계팀), 국민계 팀, 지출국민소득팀, 투입산출팀, 국민B/S팀, 물가통계팀)
리스크팀, 안정분석팀, 금융규제팀(금융안정정보반), 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 비은행분석팀), 금융안정연구부(금융안정연 팀)
니터링반), 일반은행1팀, 일반은행2팀, 특수은행팀
획팀, 정책분석팀, 정책협력팀, 정책연구부(통화신용연구팀, 정책제도연구팀)
영팀, 자금시장팀, 금융시장연구팀, 자본시장부(채권시장팀, 주식시장팀)
제협력반), 결제연구팀, 결제운영팀(지급결제개선반), 결제업무팀, 결제감시부(결제안정팀, 결제리스크팀), 전자금융부(전자금융 사팀(가상통화연구반))
획팀, 화폐수급팀(화폐수급지원반), 화폐관리1팀, 화폐관리2팀, 화폐연구팀
계팀, 외환시장팀, 국제금융부(자본이동분석팀, 국제금융연구팀), 외환업무부(외환심사팀, 외환건전성조사팀, 외환정보팀)
크푸르트, 동경, 런던, 북경(홍콩, 상해)
구팀, 지역기구팀, 금융협력팀, 교류협력부(대외교류팀, 지식협력팀)
획팀, 리스크관리팀, 위탁1팀, 위탁2팀), 투자운용부(운용전략팀, 정부채1팀, 정부채2팀, 회사채팀, 자산유동화채팀), 운용지원부 시스템팀)
화연구실, 국제경제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미시제도연구실, 북한경제연구실
대, 대전충남, 충북, 강원, 인천, 제주, 충청, 광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본부 5) 제주본부 업무팀 6) []내는 부 수, ()내는 팀 수, < >내는 연구실 수
충무팀 ¹⁾ , 기획조사부(기획금융팀, 경제조사팀) ²⁾ , 기획조사팀 ³⁾ , 업무팀, 화폐관리팀 ⁴⁾ , 화폐관리반 ⁵⁾
력반), 경영관리감사팀, 정책현업감사팀, 외환국제감사팀, 조사통계감사팀, 전산정보감사팀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차례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통화정책방향 (2018년 1월 18일)	114
◇ 통화정책방향 (2018년 2월 27일)	114
◇ 통화정책방향 (2018년 4월 12일)	115
◇ 통화정책방향 (2018년 5월 24일)	116
◇ 통화정책방향 (2018년 7월 12일)	117
◇ 통화정책방향 (2018년 8월 31일)	118
◇ 통화정책방향 (2018년 10월 18일)	119
◇ 통화정책방향 (2018년 11월 30일)	120
◇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8년 12월 26일)	121

(2)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2018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2018년 1월 18일)	129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18년 3월 8일)	129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8년 9월 20일)	13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폐지 (2018년 12월 6일)	130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18년 12월 20일)	130
◇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2018년 12월 26일)	131

(3) 금융안정회의의 주요 내용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18년 3월 29일)	132
◇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 주요 논의 내용 (2018년 6월 20일)	136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18년 9월 20일)	138
◇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12월)」 주요 논의 내용 (2018년 12월 20일)	141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통화정책방향

(2018년 1월 18일, 제1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등으로 국제금리가 상승하였으나 주가가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투자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감소하는 등 개선세가 둔화되었다. 국내경제는 금년에도 3%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 둔화되었으나 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으로 1%대 중반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

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1%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은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로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낮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8년 2월 27일, 제4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

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강화 등으로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1월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일시적 요인으로 확대되었으나 개선세는 여전히 완만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었으나 소비는 가계의 소득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축산물가격 하락, 개인서비스요금 상승폭 축소 등으로 최근 1% 수준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 후 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전반적인 증가규모 축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

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낮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8년 4월 12일, 제7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교역관계 악화 우려 등으로 국제금리와 주가가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

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회복세가 둔화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었으나 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축산물가격 하락, 석유류가격 상승폭 둔화 등으로 1%대 초중반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중반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1월 전망치(1.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다소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에 영향받아 하락하였다. 주가 및 원/달러 환율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북한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전반적인 증가규모 축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8년 5월 24일, 제10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을 보면,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시장국에서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설비투자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었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1%대 중

반 수준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대 중반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장기 시장금리가 주요국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원/달러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 북한리스크 완화 등에 따라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8년 7월 12일, 제13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건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국제 금융시장은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소폭 하회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었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이 큰 폭 상승하였으나 농축산물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1%대 중반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주가와 장기시장금리는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상당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보험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8년 8월 31일, 제16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건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을 보면,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시장국에서 환율 급등, 자본유출 등의 불안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났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지난 7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었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요금과 농산물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1%대 중반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을 나타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일부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고용 부진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가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그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반등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화 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보험세를 나타내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8년 10월 18일, 제19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폭에 그치는 등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7월 전망 경로를 다소 하회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었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상승세 확대, 전기요금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오름세가 1%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주가 급락 등으로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당폭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

양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8년 11월 30일, 제22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3/4분기중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체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었으나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은 다소 완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폭 늘어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 수준을 나타내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 내외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목표수준 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11월 들어 다소 축소되었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 등에 따라 상당폭 하락 후 반등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10월 들어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8년 12월 26일, 제25차)

I.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물가안정목표

◆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

-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
 - 중장기적인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수준을 종전과 같은 2.0%로 유지

- 2019년부터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

* 2004-18년 중에는 3년의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물가안정목표를 재설정한다고 명시

- 국민들의 물가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

2. 경제성장

◆ 국내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2019년중 세계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질 전망

- 선진국은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겠지만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미국은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효과 축소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겠지만 노동시장 호조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신흥국은 일부 취약국의 금융불안 가능성이 있지만 인도, 아세안 5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중국은 내수중심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세계경제에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가능성, 중국 성장세 둔화 우려, 유로지역 정치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

- 인플레이션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유가하락 등에 따라 낮아지는 반면 신흥국에서는 통화가치 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폭 높아질 전망

□ 국내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 용 등에 힘입어 수출 및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설비투자가 IT부문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 하겠으나 건설투자는 착공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다만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상·하방리스크가 혼재

○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주요 대기업의 투자 지출 확대 계획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중국 성장세 둔화,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

3. 물 가

◆ 소비자물가는 금년과 비슷한 오름세를 보 이겠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점차 높아질 전망

□ 소비자물가는 1%대 중후반의 오름세를 보일 것 으로 전망

○ 수요측 물가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국제유 가, 농산물가격 등 공급측 요인의 기여가 축 소되겠으나, 임금상승세 지속, 공공요금 인 상*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택시료 및 도시가스요금 등 인상 예정

○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은 임 금상승세 지속 등으로 금년중 1%대 초반에서 내년에는 1%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 다만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기조* 등을 감 안하면 오름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무상교육 확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등

□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으 로 하방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상황

4. 금융·외환시장

◆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 대외리스크 요인의 불확실성이 작지 않은 만큼 그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유로지역의 정 치적 불확실성 등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잠재

○ 이러한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되어 현실화 될 경우 글로벌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주요 가격변수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 될 가능성

□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전망

-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은 대외 차입여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가계부채가 누증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높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5. 금융안정

◆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겠으나 가계부채 누증,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대출 및 신용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음

- 다만, 금융자산* 보유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가계 전체의 이자상환부담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가계의 금융자산은 금융부채의 2.2배 수준(2018.2/4분기 자금순환표 기준), 부채보유가구의 금융자산은 금융부채의 1.1배 수준(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 신용공급은 은행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은행 가계대출은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대책 및 DSR규제 등으로 증가규모가 금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주택매매가격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 축소,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

- 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자금운용 확대 가능성*으로 금년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금융기관 건전성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수익성 개선 움직임, 양호한 자산건전성 및 복원력 등에 비추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이어갈 전망

*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간 가중치 차등화(2020.1월 시행 예정)에 대비

- 비은행 가계대출은 대출규제, 지방 주택경기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권의 가계대출 공급확대* 등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수익성 저하에 대응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으로 여신 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이 확대될 가능성

II.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및 물가 흐름 등 거시경제상황과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상황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
- ◆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물가설명을 보강하는 등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
- ◆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 발생시 적극 대응

1. 기준금리 운용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번에 정한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용
 -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가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
 - 아울러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물가의 기초적 흐름이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해 갈지를 면

밀히 점검

* 근원물가 및 보조 물가지표, 기대인플레이션,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제유가, GDP갭, 고용·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 지표 등

- (금융안정 유의)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과 대외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
 -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 속도를 상회하면서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추이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계속 점검

—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여부,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성향 변화 등도 지속적으로 파악

-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의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증대,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 확대 등으로 자본유출입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

-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유지)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2016년 공표)에 대해 수정·보완 여부를*를 점검한 결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 정책의 목적과 정책운용시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지침의 변경 필요성 등(참고)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참조)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 물가안정목표와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물가설명을 보강

— 총수요, 비용요인 등 주요 물가 결정요인들의 변화와 영향, 이에 따른 향후 물가전망 경로 등에 대한 설명을 확충

○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정책의도에 맞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의결문의 꾸준한 개선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지속

□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

□ **(정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속도 변화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경제 여건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고려하여 통화정책 운영에 반영

○ 성장·물가간 관계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금융불균형 심화 등 실물 및 금융 측면에서의 구조변화가 통화정책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유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

3.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및 지속적 합리화

□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실효성 제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운영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개별 프로그램의 한도와 운용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경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금지원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강화

○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및 공동검사 등을 통한 자금지원의 적정성 확보 노력도 지속

□ **(대출제도의 지속적 합리화)**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출담보제도 운용원칙 수립을 검토

○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성 자산의 적격담보 인정기준 등을 검토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시장불안에 적극 대처

-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 가격변수 및 외국인 증권자금 움직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요인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
 - 불안요인 발생시 「통화금융대책반」,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등 비상대응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의지를 적극 표명함으로써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
 - 금리, 환율 등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쓸림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등 시장불안 심화시에는 단계별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역할 확대,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
- 국제기구·협의체의 논의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한국경제현황과 전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
- * BIS 이사국에 신규 진출(2019.1.1일)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역할을 확대
- IMF의 제15차 쿼타* 일반검토, ASEAN+3의 CMIM 기능 제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을 강화
- * 쿼타(quota)는 회원국이 IMF에 출자하는 금액으로, IMF 협정문 제3조 제2항에 따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쿼타 증액여부, 각 회원국당 배분 방법 등 쿼

타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검토(general review of quota)를 실시

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 강화)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대응방안을 제시

- 「금융안정회의」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평가하고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 경보

- 대외 불확실성 요인, 국내 주택시장 상황 변화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리스크 측정·평가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 개별 금융기관 모니터링 및 부문검사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 요인의 조기 파악에 노력

* 위기 선행지표로서의 기능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안정지수(FSI)개편, FI-NET(금융안정정보 수집·공유 시스템)의 적극 활용 등

— 공동검사는 가계 및 기업 취약차주, 규제 영향 분석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고 「금융안정보고서」와의 연계성을 강화

- 핀테크 확산 등 디지털 혁신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금융안정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

□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

안정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관련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

□ **(지급결제인프라 확충·개선)**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

- 금융회사의 자금이체 편의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2020년 가동 목표)을 차질 없이 수행
-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기술의 지급결제인프라 적용 가능성에 관한 기술적 차원(예: 모의테스트)의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와 결제비용 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

□ **(지급결제인프라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도)**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추어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

-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담보납입비율 인상, 담보납입 부담 증대를 고려한 적격담보 확대 등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
-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관련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 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하고,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산에 따른 리스크 요

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실효적인 감시방안을 강구

* 2019년중 「IMF/WB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의 일환으로 국내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에 대한 평가가 예정

〈참고〉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이다.

○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경제·금융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과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인 및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한편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다.

○ **(물가안정목표제와의 관계)**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라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것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에 부합한다.

○ **(금융안정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에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 등을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2)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2018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2018년 1월 18일, 제1차)

1. 대출금 한도,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대출금 한도 및 상환기한

대출구분	회계별	대출금한도 (억 원)	상환기한	기타
일시대출금	통합계정	300,000	2019.1.20일	대출취급기한 : 2018.12.31일 (단,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2017년 대출금 중 미상환액을 한도에 포함하여 관리)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단, 2019.9.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2018.12.31일	
합계		400,000		

나.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 포인트를 더한 율로 한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통화안정증권(91일물) 수익률의 단
순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대출형식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2. 부대조건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구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기존 차입금이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위임사항 : 건별 대출의 실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한다.

4. 시행일자 : 2018년 1월 18일(목)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18년 3월 8일, 제5차)

□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시 초과낙찰제도를 도입

○ 응찰규모가 예치예정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제45조 제3항 신설)

* 초과낙찰금액의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은 총재에 위임 (「공개시장운영세칙」에 반영)

□ 통화안정계정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변경

○ 낙찰금리를 사전 내정금리 결정방식에서 금융기관의 응찰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제45조제1항 개정)

○ 다만,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과 과도하게 괴리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제45조 제4항 신설)

□ 시행일자 : 2018년 4월 3일(화)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8년 9월 20일, 제18차)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배정 대상 대출취급실적 중 ‘창업기업대출’을 ‘창업기업·일자리창출기업대출’로 변경(제11조)

□ 시행일자 : 2018년 11월 1일(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폐지 (2018년 12월 6일, 제23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을 제정

□ 시행일자: 2018년 12월 6일(목)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18년 12월 20일, 제24차)

□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하되 은행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19~2022년중 단계적으로 시행(제21조제2항, <별표>)

연도별 담보증권 제공비율

(%)

현행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0	70	80	90	100

□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라 은행들의 담보증권 조달부담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제21조제1항, 부칙)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 확대

현행	확대 후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좌 동
주금공 MBS (한시 허용)	주금공 MBS(상시 허용)
(신설)	-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 (이하 산금채) -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 (이하 중금채) -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 (이하 수출입금융채) -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

□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증권으로의 쓸림을 방지하고 유동성리스크에도 대비*하기 위해 담보증권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고 전체 담보증권 중 추가 적격증권(제2그룹)의 비중을 총재가 정하는 범위(50%) 이내로 제한(제21조제3항)

* 유사 시 당행 대출 담보로 활용 가능성 감안

담보증권 그룹화

제1그룹	제2그룹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주금공 MBS, 산금채·중금채·수출입금융채,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

□ 시행일자: 2019년 8월 1일(목)

- 참가은행의 사전 준비, 관련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9년 하반기 필요담보증권금액 적용 시(2019.8.1일)로 결정
- 다만, 주금공 MBS의 적격담보 상시 허용은 2018.12.20일부터 시행

◇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2018년 12월 26일, 제25차)

1. 물가안정목표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한다.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국회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연 4회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요구시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하여 답변한다.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한다.

2.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

이번 물가안정목표는 2019년부터 적용한다.

3. 기타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이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설명한다. 한편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한다.

(3) 금융안정회의 주요 내용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18년 3월 29일, 제6차)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21호-「금융안정 상황 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회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지수가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지표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취약성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안정지수와 함께 다양한 거시, 미시 지표들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시장을 대상으로 금융안정 관련 정보를 적극 수집함으로써 지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이에 더해 빅데이터(big data) 활용 등 보다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중이 현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는 등 점차 선진국과 유사한 경제구조로 바뀌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가계신용과 관련하여 정부규제가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면서 집단대출, 전세대출, 기타대출 등 여타 대출의 증가세는 오히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의 거시건전성정책 강도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유도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LTV, DTI 규제강화 지역의 경우 동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타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한 데도 LTV, DTI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저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LTV, DTI 규제강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LTV 비율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동향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와 관련하여 좀 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scenario)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권 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전체 익스포저(exposure)를 대상으로도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지수 15% 하락에도 은행의 자본적정성 저하 정도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주택시장 충격이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2차 효과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테스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택가격 15% 하락 시 나리오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의 주택가격 하락 충격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이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택의 스톡(stock), 플로우(flow), 가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최근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관련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에 대해서는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자본유출입과 관련하여 보고서에 수록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이외에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 및 해외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조정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여 선제적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서베이(survey)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이외에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우리나라의 부채수준이 높고 확대속도 또한 빨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다음으로 「한계기업 현황 및 특징」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한계기업 여신 분류에 있어 감독규정에 따른 기준과 원칙이 일선 은행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향후 경기순환 과정에서 한계기업의 경영행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기업들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일본의 좀비(zombie)기업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기업부문 대출에 대한 공동검사 시 한계기업 만성화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공동검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한계기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을 준비 중이며 동 보고서 작성 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데 있어 스

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중요하며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나리오를 잘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측면에서 당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현재 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지성 충격 분석에 머무르고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영란은행의 사례를 참조하여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충격 시나리오 하에 전체 금융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그 결과도 정례적으로 발표하여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아가 스트레스 테스트 강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충격흡수 능력과 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에 다른 위원은 현재 당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외 공표하고 있으며, 또한 감독당국과의 공동 스트레스 테스트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떠한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표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지난번에는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와 주택가격의 복합 충격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내외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동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테스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에 비은행을 포함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며 시나리오도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거시경제와의 연계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위원은 앞서 발언한 위원의 견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 대내외 거시경제 상황 변화를 가정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다른 위원은 이를 위해 당행의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평가 모형인 SAMP(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of Macroprudential Policy)와 여러 가지 거시경제 모형을 결합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다만 심각한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이에 동 위원은 시나리오의 세부 내용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영란은행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자본유출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부채뿐만 아니라 외화자산이 원/달러 환율 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되고 그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경우 앞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외국인 및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화자금 수요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및 환헤지(hedge) 수요 등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이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아울러 금융안정지수와 관련해서는 조기경보 지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시장의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환스왑레이트 등 파생상품 지표를 동 지수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한국은행은 정책기관으로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방향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번 분석결과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이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점검 내용이 아닌 한국은행 분석 자료로 오해하여 다룰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보도자료에 ‘금안회의 논의 내용’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하였음. 아울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보도자료를 일반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다른 위원도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더해 보도자료에 정책방향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기자설명회 시 동 사항들에 유의하여 커뮤니케이션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거시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는 법정보고서이며 이번 금안회의는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간점검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고서의

현안점검 사항으로 가계 및 기업 부채를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아울러 이러한 전제하에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가계 부채 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은 부채수준이 적정한지,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과 연계된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 및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한 상황 판단 및 분석을 위해서는 소비자 자료 등 가계부문 통계의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통계청 등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당행이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언급하였음.

이어서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보다 주목을 덜 받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위험도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지만 규모 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 부채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대출과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정책방향이었는데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계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그러한 전제가 맞는지 또한 한계기업의 위험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의 원인중 하나로 제기되었던 중소기업의 사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가계 및 기업 부채 상황에 대해 계속 점검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겠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한계기업과 관련해서는 공동검사에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한계기업의 존속 이유와 관련 리스크 그리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 등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첨언하였음.

◇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

주요 논의 내용

(2018년 6월 20일, 제12차)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체계는 2017년 12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의 부문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살펴보는 방식을 유지하였음.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에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국내 시장금리 상승압력 등의 여건 하에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핵심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또한 비은행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모형, 전세시장 및 대출동향, 국내 핀테크(Fintech) 현황 및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안정 관련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음.

이어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보고서가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각 부문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개황부문에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었지만 수년간 부채 증가세가 높았다는 점, 가계부채 누증이 잠재리스크라는 점 등을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 부문과 관련하여 각종 수치들과 함께 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다른 위원은 장기간의 저금리 지속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므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여 향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주택매매가격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역별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 시 금융환경의 변화, 금융기관의 행태 등 구조적인 측면에 유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이나 과다부채 기업의 증가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며 채무상환능력 취약기업의 현황뿐 아니라 업종별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위원은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

하여 향후 핀테크 발전이 신용카드 회사의 수익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여러 위원들은 복원력 부문에서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충격에 대한 복원력만 평가하고 복합 충격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시에는 다양한 충격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복합충격을 상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규제 변경으로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초래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규제 변경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음으로 현안분석과 관련해서 일부 위원은 비은행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충격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모형의 한계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일부 위원은 국내 핀테크 현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아직 P2P 금융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례에서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P2P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전세시장 및 대출에 대한 분석에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차인, 임대인 및 금융기관 등의 리스크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

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위험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의 차기 현안분석 사항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잘 반영하는 DSR(Debt Service Ratio)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위원은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중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안정 관련 잠재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대출의 만기구조 및 차환율 등에 대한 다양한 가정 하에 DSR에 대한 시나리오(scenario) 분석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에 대해 또 다른 위원은 DSR 추정 시 어떤 데이터와 가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추정치간 편차가 클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를 금융안정 보고서에 기술할 경우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우선 학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에 당초 의견을 개진했던 위원은 DSR 추정치가 분석방식에 따라 어떠한지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첨언하였음.

일부 위원은 앞선 위원의 견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DSR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위험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주택공급 우위 등으로 주택매매가격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동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아울러 국내 핀테크에 대해서는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및 금융기관의 관련 투자 확대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혁신성장 등을 위해 금융중개기능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현재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잠재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먼저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부대책의 영향으로 최근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출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된 반면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계대출 수요를 새롭게 유발하는 요인과 금융기관의 거래유인 구조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음으로 기업대출과 관련하여 한계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과다부채 기업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간 중소기업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들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

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등 과거 금융위기 상황을 적용하여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안정보고서의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안정 이슈 분석 시 데이터의 한계나 국제적으로 명확한 이론 및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계에서 논의되는 사항 등을 계속 지켜보면서 연구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18년 9월 20일, 제18차)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56호-「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DSR 수준을 대출종류, 만기구조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요국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을 보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움직임이 상이한 것으로 보여 수도권 주택시장 분석 시 이들 매매가격 동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신규주택 및 기존 주택으로 구분하여 산출되는 매매가격지수가 없어 이를 일반화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복원력과 관련하여 미 연준 및 영란은행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국내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는 유익한 정보지만 상당한 시장충격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복원력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테스트 결과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아울러 거시변수에 기초한 스트레스 테스트 외에 대외충격이 국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주요 이슈의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수요와 여타 주요국의 대출 수요를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음.

일부 위원은 향후 정책대응 방안으로 DSR 이외에 다른 정책수단이 있는지 여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도 함께 고려하여 펀더멘털(fundamental) 차원에서 민간신용 증가 수준의 점진적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음으로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주택수급 상황 파악 시 재건축의 경우 멸실주택이 증가하지만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도

늘어나는 점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주택수급 상황 등 공급여건과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수요변화와 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장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주택수급 시점간의 불일치가 있어 특정연도의 주택수급 비율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평균 주택수급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한 호주, 캐나다의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음으로 최근 자영업자 부채현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은 고소득, 고신용 차주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비은행금융기관 통계를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중 고소득 차주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정확한 상황 분석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별 DSR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비은행 통계 등 자영업자 대출 관련 자료를 확충하여 이들에 대한 대출건전성

평가의 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시의적절한 금융안정 이슈들에 대해 잘 분석해 주었다고 평가한 후,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2010년 이후 주택거주 목적의 실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공급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향후에는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음. 이 경우 공실인 주택이 상당부분 레버리지(leverage)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보도자료의 <참고 1>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거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도 OECD 국가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술한 이유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거시경제상황, 계량모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전망하였으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이를 보도자료에 명시하였다고 답변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자설명회 시 유의하여 커뮤니케이션하겠다고 첨언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동 대책이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자본유출입과 관련하여 다음주 FOMC 회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신흥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아직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금융 및 실물 부문에 미칠 충격에 대해 계속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현재 주택가격 데이터가 매주 지역별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함과 아울러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단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일부 위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이슈에 비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 보도자료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양한 금융안정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잘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 분석 시 유량(flow) 측면의 수급요인뿐만 아니라 주택보급률, 자가주택 소유율 등 저장(stock) 측면의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택수급 변화 등 금융안정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12월)」

주요 논의 내용

(2018년 12월 20일, 제24차)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체계는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의 부문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살펴보는 방식을 유지하였음. 보고서 작성방향은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장금리 상승압력 등의 여건 하에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정책대응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또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모형 개발, 소득측면에서의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 기업 재무건전성의 특징 및 시사점 등 다양한 이슈(issue)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음.

이어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금번 보고서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전반적으로 잘 평가하였고 시의성 있

는 새로운 주제들도 많이 다루었다고 언급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부문별로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나,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이 낙관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 부동산금융 익스포저(exposure) 증가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보다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들은 금융안정지수의 산출기준, 각 단계별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금융안정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은 상업용 부동산시장 분석에 대해 투자수익률 상승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부동산금융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이 주로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에 기인하여 증가한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레버리지(leverage)비율 산정 시 제외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리스크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복원력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국내은행의 LCRI 규제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주요 국 은행들에 비해 크게 낮은 점에 유의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생명보험사의 자본 확충과 관련하여 시장금리 상승이 조달여건을 악화시키는 측면과 함

계 수익성 제고 등 생명보험사에 유리한 면도 있으므로 이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현재 대외지급능력을 외화유출에 대한 방어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향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CLS 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상승한 이유를 보다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현안분석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에 대하여 시나리오에서 상정한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도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나타나는 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소득측면에서의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DSR이 100%를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자산측면에서 부채상환능력이 높은 경우에도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DSR 수준이 기초 통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동 분석에서 주로 가계부채 DB를 활용한 이유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DSR 규제에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차주의 DSR을 규제 기준이 아닌 실질부담 기준으로 보정하여 산출해 볼 필

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서 금융안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어 이번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그간 금통위에서 논의되었던 가계부채 누증 문제와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 등이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세부적인 분석내용에는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보이는 등 일부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예컨대 보고서의 현안 분석 중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30%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외환위기 시의 주택가격 하락률이 이에 훨씬 못 미쳤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동 테스트 결과가 다소 낙관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통화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버블(bubble)이 생겼다 꺼질 때 금융시스템, 특히 은행부분이 큰 영향을 받고, 그 결과 신용 경색과 함께 실물경기 하락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첨언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

변 결과는 금리가 300bp 상승하거나 주택가격이 30% 하락할 경우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지만 금융기관들의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음.

3. 경제일지

(1) 통화·금융·재정

- 1.15 ▷ 정부,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 발표
 - 가상통화 실명제 추진 및 거래 불법행위 엄정 대처
 - 거래소 폐쇄방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조율 후 결정
 -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지원·육성
- 1.18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50%) 유지
- 1.25 ▷ 금융위원회,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발표
 - (포용적 금융) 서민금융 공급('18년 정책서민자금 7조 원 등), 최고금리 인하(27.9%→14%) 등을 통한 금융부담 완화, 연령별(청년, 중·장년, 고령층) 맞춤형 금융지원
 - (중금리대출 활성화) 공급한도를 증액한(2.15조 원→3.15조 원, '18년 상반기) 사잇돌 대출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 강화 등
- 2.27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50%) 유지
- 3. 6 ▷ 한국은행, 1년물 통화안정증권 통합발행제도 및 중도환매방식 변경
 - 통합발행기간 확대(1개월→2개월) 및 통합발행일 변경(매월→매 홀수월)(3.12일 시행)
 - 매 홀수월에 잔존만기 4개월물 중도환매 실시(11월 시행)
- 3.13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및 시행
 -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서로 교차될 수 있도록 개정 한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장 추천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1년 단축(4년→3년)
 - 전임위원 임기만료 시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임위원 임기만료 후 즉시 후임자의 임기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교차임기제 도입에 따른 임기교차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조치
 -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및 경제에 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정부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 3.27 ▷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 입찰제도 개선
 - 경쟁입찰 시 초과낙찰제도 도입(초과낙찰은 입찰예정금액의 20% 한도)
 - 낙찰금리 결정방식 변경(사전 내정→입찰결과에 따른 결정)

- 4.12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50%) 유지

- 4.17 ▷ 금융위원회,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 가계신용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
 - 업권별 목표관리, 커버드본드 활성화, 여신관리, 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 고정금리목표 상향, 변동금리대출 월상한액 제한 등을 통해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 4.24 ▷ 금융위원회,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 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및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 사각지대 해소
 - 다주택·고소득자의 제도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 공급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일시상환에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주택연금 유인을 제고하여 금리상승·고령화 등의 리스크 요인에 대비

- 4.27 ▷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 발표
 -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
 - 단계적으로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19년 유예, '20년 110%, '21년 100%)
 -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햇살론)을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 가중치(130%) 부여

- 5.24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50%) 유지

- 7.6 ▷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 과세 공정성 제고 및 증부세 수입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지원 도모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80%에서 연 5% 포인트씩 90%까지 인상
 - (서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0.1~0.5% 포인트 인상하는 한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3% 포인트 추가과세
 - 종합합산토지도 0.25~1% 포인트 인상(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 유지)
- 7.10 ▷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강화
 - 금융회사 간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 공유
 - 금융회사가 취급업소 거래 거절 시, 거절 시점 명시 및 거절 사유 추가
- 7.12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50%) 유지
- 7.30 ▷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고용친화적 재설계, 신성장 기술 세제지원 확대 등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부동산 세제 적정화 등
 - (조세체계 합리화) 환경친화적으로 발전용 에너지 세제 개편,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납세자 보호·편의 제고 등
- 8.31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50%) 유지
- 9.13 ▷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세율인상(과표 3억 원 초과구간 +0.2~0.7%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0.1~1.2% 포인트) 및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150%→300%)
 - (주택임대사업자)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및 대출규제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취득 주택을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및 증부세 합산 과세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 LTV 40% 도입 등
 - (조세정의 구현) 증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 현행 80%에서 연 5% 포인트씩 100%까지 인상

9.18

▷ 정부,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 원 국무회의 의결

- 구조조정 지역(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및 업종(조선 및 자동차) 추가 지원(940억 원)
- 폭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 복구(357억 원) 및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지원(357억 원)

9.12

▷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30만호)를 확보하고 '21년부터 공공주택 위주(공공임대 35% 이상)로 주택 공급
- 일정 단축을 통해 전량 신혼부부에게 분양·임대되는 신혼희망타운(10만호, 수도권 7만호) 조기 공급
- 서울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정비를 통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10.18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50%) 유지

10.19

▷ 금융위원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 (DSR 관리지표 도입) 高DSR 기준(DSR 70% 초과 대출) 설정, 신규대출 취급액 중 高DSR 비중을 은행별로 차등 관리
 - DSR 70% 초과대출: 시중은행 15%, 특수은행 25%, 지방은행 30%
 - DSR 90% 초과대출: 시중은행 10%, 특수은행 20%, 지방은행 25%
 - 한편 '21년까지 은행별 평균 DSR이 시중은행 40%, 특수·지방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現 52%, 128%, 123%)
-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RTI(Rent to Interest) 규제비율 현수준 유지, RTI 기준 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사유 원칙적 폐지 등

10.30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발표

- (1단계: '19~'20년)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 중앙정부 기능 일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를 지방정부로 이양('20년) 등
- (2단계: '21~'22년)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 기능이양 방안 등을 포함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19년 중 방안 마련 예정)

11.26

- ▷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발표
 - 합리적 원가산정을 통해 가맹점 부담 적격비용 재산정(현재 인하여력은 0.8조 원 수준)
 - 우대구간 확대(연매출 5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

11.3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상향 조정(1.50%→1.75%)

12. 8

- ▷ 국회, 2019년 예산 확정
 - 정부안 대비 총지출 및 총수입 각각 0.9조 원 및 5.3조 원 감소
 - 예산 축소: 보건·복지·고용(-1.5조 원), 교육(-0.3조 원) 등
 - 예산 확대: SOC(+1.2조 원), 환경(+0.2조 원) 등
 - 관리재정수지 적자 4.2조 원 확대
 - 국가채무는 국채 조기상환에 따라 0.2조 원 감소

- ▷ 국회, 2018년 세법개정안 수정 의결
 -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하되 일부 세부담은 정부안 대비 하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300%→200%),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 신설 등
 - (소득세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차등을 두되 정부안 대비 등록자의 세부담 상향(등록자 필요경비율 70%→60%, 미등록자는 50% 유지)
 - (부가가치세법)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11%→15%),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21년까지 한시적 확대(500만 원→1,000만 원) 등

12.20

- ▷ 한국은행,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 차액결제 참가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現 50%→'19.8월 70%→'20.8월 80%→'21.8월 90%→'22.8월 100%)
 -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적격 대상 담보증권의 범위 확대

- ▷ 기획재정부, 「2019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 99.6조 원 이내에서 발행(순증 42.5조 원, 만기·조기상환 57.1조 원)
 - 50년물 발행 정례화 등 장기물 비중 확대
 -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2.26

- ▷ 한국은행,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 물가안정목표(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0%(전년동기대비) 유지
 -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불특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기대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 정례 발간(연 2회) 등을 통해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2) 무역·외환

- 2.20 ▷ 한국은행, 스위스중앙은행과 원/스위스프랑 통화스왑계약 체결
 - 계약금액: 11.2조 원/100억 스위스프랑, 계약기간: 3년

- 2.21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미(코스타리카 외 4개국) FTA 정식서명
 - 북미 진출을 위한 제3의 루트를 마련하여 대미 수출 모멘텀 확보
 - 95% 이상의 상품시장 개방으로 자동차·철강·가전·섬유·화장품 등 주력 품목 수출 확대에 기여

- 5.10 ▷ 한국은행,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 이행선언서 공표
 -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에 대한 지지, 준수에 대한 약속과 이를 위한 내부절차 완료 사실 등을 포함

- 5.17 ▷ 한국은행·기획재정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단계적으로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 공개 추진
 - '18下 및 '19上 반기별 공개, 이후 분기별 공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7. 2 ▷ 한국은행, 「외화대출 취급지침」 개정
 - 외화대출 실수요 증빙 절차 완화 및 외화대출은행과 송금은행간의 불일치 허용 등

- 11.11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국제결제은행(BIS) 이사직 수임
 - 「BIS 이사회」는 BIS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국제경제·금융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BIS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
 - 임기는 3년이며, 2019년 1월부터 임기 시작

(3) 산업·고용 및 기타

- 1.17 ▷ 정부,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 계획 발표
 - 202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여 모험자본 공급
 - 펀드 결성 및 운용에 있어 정부역할 축소 및 민간 창의성 적극 활용
 - 혁신성을 갖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 유도

- 2. 6 ▷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 → 190만 원 이하) 및 대상 직종(생산직 →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 종사자 포함) 확대
 -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3.15 ▷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창업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해외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 3.26 ▷ 한국은행,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중 400억 원을 활용하여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 3.29 ▷ 금융위원회,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지원펀드」 출범
 - 성장단계별 대규모 자금 공급('18년 2조 원, 3년간 8조 원)
 - 혁신모험펀드와 연계한 보증·대출 프로그램 운용 ('18년 3조 원, 4년간 20조 원)
 - 펀드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성과중심 운용을 통한 민간자금 유입 확대 유도

- 4. 5 ▷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산업 위기 발생에 대응
 - 지역산업 위기로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강구

- 4.17 ▷ 한국은행,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 금융증개지원대출 한도 중 300억 원을 활용하여 성동조선해양 및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원 대상은 최근 1년간 성동조선해양 또는 STX조선해양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업체
- 5.21 ▷ 국회,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3.8조 원 규모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청년내일채움공제 증액(528억 원, 4만 명 분)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지역 투자유치 지원, 조선·자동차 협력 업체 지원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
- 5.29 ▷ 정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지정 및 지역대책 보완방안」 논의
-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5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추가 지정
 - 경남 거제, 진해, 통영·고성,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이 대상 지역
 - 既수립한 「1·2단계 대책」을 신규 지정 위기지역으로 확대 지원
 - 조선업 경쟁력 등 대체·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지원
- 6.2 ▷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
- 6.4 ▷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예산 3,000억 원으로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시행
- 5월 소진된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재개(2,000억 원)
 - 청년(만39세 이하) 소상공인 및 청년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대상
 -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1,000억 원) 지원
- 7.18 ▷ 정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등 발표
- (거시경제 활력 제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4조 원 규모 재정보강), 내년도 예산 당초 계획(증가율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
 -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지급액 대폭 확대 등 일자리 지원 강화
 - 기초연금 당초 계획보다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소득지원 강화
 - 영세자영업자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여건 강화
 - (혁신성장 가속화) 핵심규제 개선 추진 및 사람·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시장경제 공정성 제고) 개혁입법 가속화 및 불공정 거래 근절 노력

8.13

▷ 정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 수소경제) 및 공통분야(혁신인재 양성) 선정
- '19년 중 전략투자 및 8대 선도사업에 5조 원('18년 대비 +1.4조 원) 투자

10.24

▷ 정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 (민간투자 활성화) 금융·세제지원 강화,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스마트화, 유턴기업 보조금·세제지원 등
- (공공투자 확대) 지역 투자프로젝트 추진, 입지규제 개선 및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18년 17.9조 원→'19년 26.1조 원(+8.2조 원)) 등
-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원격협진·공유경제 등 시장창출효과가 큰 분야부터 핵심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마련(연내)

11. 1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개편안 시행

- 지원대상 일자리 창출기업 범위 확대
 - 총고용인원 증가·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 받은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및 창업 후 7년 이내 요건 폐지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실적 우대 강화

12.13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 회원사 비율 30% 이상인 소상공인단체의 신청 및 정부 심의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및 1년 이내 만료 예정 업종 등이 대상
-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출 원칙적 금지 및 위반 시 이행강제금(위반매출의 5% 이내) 부과

12.17

▷ 정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모든 정책수단 활용하여 경제활력 제고 추진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 및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 성과 창출
- 가계소득기반, 사회안전망 등 경제·사회 포용성 지속 강화 및 정책 보완
-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준비 본격화

12.20

▷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

-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확대 발행(4년간 18조 원)
- 구도심 상권 30곳 복합공간으로 육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 부실채권 0.9조 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등 재기·퇴로 지원 등

12.26

▷ 기획재정부,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발표

- (재정지원 강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4.9조 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2.8조 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 확대(1.3조 원) 등 약 9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既발표 지원대책 차질없이 추진, 필요 시 추가대책 강구
- (최저임금제도 개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주휴수당·시간 포함 등 시급환산방식 개선 등
-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계도기간 추가 연장 등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I. 한국은행 개요		
1. 연혁 및 설립목적	통화정책국	조수영
2. 조직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실	우한솔
나. 집행간부 및 감사	비서실	정효원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기획협력국	신지선
II. 경제 동향		
1. 실물경제		
가. 세계경제	조사국	박병걸, 안시온
나. 국내경제	조사국	김주리, 임춘성 조동애, 권기백
	지역협력실	박세준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조사국	박병걸, 최기산
나. 국내금융시장	금융시장국	이상호
	국제국	조남현
III. 업무 현황		
1. 중기전략	기획협력국	최용운
2. 통화신용정책		
가. 물가안정목표	조사국	김병국
나. 기준금리	통화정책국	심원
다. 여수신	통화정책국	박동민
	금융결제국	박미숙
라. 공개시장운영	금융시장국	장순복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통화정책국	심원
	금융통화위원회실	우한솔
3. 금융안정업무		
가. 금융안정상황 분석·점검	금융안정국	김관희
	금융검사실	차전영
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국제국	류창훈
다.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국제협력국	장준영
라.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금융시장국	이상호
4. 발권업무		
가. 화폐 발행	발권국	김승주
나. 화폐 유통	발권국	정복용
다. 국내외 협력	발권국	추명삼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5. 지급결제업무		
가. 한은금융망 운영	금융결제국	오석은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6. 외환 및 국제협력업무		
가. 외국환업무	국제국	류창훈
나. 외화자산 운용업무	외자운용원	최지원
다. 국제협력업무	국제협력국	최석현
7. 조사통계업무		
가. 조사연구업무	조사국	최인협
	경제연구원	김의진
	지역협력실	김용현
나. 통계업무	경제통계국	장은중
8. 국고 및 증권업무		
가. 국고업무	국고증권실	하경희
나. 증권업무	국고증권실	김미영
다. 기금관리업무	국고증권실	홍영경
9. 대외 커뮤니케이션		
가. 국민과의 소통 확대	커뮤니케이션국	이종호, 손영희 고아라
나. 대국민 경제교육	경제교육실	이보라
IV. 경영 상황		
1. 조직 운영		
가. 조직 체계	기획협력국	신지선
나. 조직 운영방식	기획협력국	신지선 한명진, 윤진영
다. 교육훈련	인재개발원	김동휘
라. 인력 운영	인사운영관	최창훈
마.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인사경영국	박주하
바. IT시스템 고도화	전산정보국	김은정
사. 통합별관 건축 추진	별관건축본부	민호식
2. 재무 현황	기획협력국	박성경
부록		
1. 한국은행 조직도	기획협력국	신지선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금융통화위원회실	우한솔
3. 경제일지	조사국	김주리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커뮤니케이션국	이종호
보고서 작성총괄	커뮤니케이션국	김제현, 신세용 이종호

2018 연차보고서

발행인	이주열
감 수	고승범
편집인	이중식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www.bok.or.kr
발행일	2019년 3월 29일
제 작	(주)제일프린테크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조사·연구 > 주요 보고서 > 연차보고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전화 02-759-4520,
이메일 publicinfo@bok.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SSN 1975-4922

